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 전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한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OTRA는 현재 발간하고있는 74개국의 경제정보를 국가별로
지정된 주기(분기/반기/연1회)에 따라 UP-DATING하는 한편 발간 대상국을
확대하여 귀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차 례

1.	국가개요	1
2.	국가개요/도미니카(공) 외교동향	2
3.	국가개요/도미니카(공) 정치동향	5
4.	경제동향 및 전망/2005년도 대 도미니카 수출전망	8
5.	한국과의 무역관계/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10
6.	한국과의 무역관계/주요인사 교류현황	11
7.	한국과의 무역관계/대 도미니카(공) 시장진출 확대전략	12
8.	한국과의 투자관계/도미니카진출 한국업체	14
9.	수입규제사례/도미니카(공) 영사송장제도 중소기업 수출에 애로사항	19
10.	수입규제사례/한시적 추가 수입관세 부과	21
11.	현지히트상품/El Diamante 1회용 비닐팩 식용유	21
12.	현지히트상품/핸드폰 악세사리 제품 대히트	22
13.	현지히트상품/불꽃놀이용 폭죽 연발 대히트	22
14.	현지히트상품/손 젤크림 제품 대히트	23
15.	진출 성공/실패사례/150MW 발전기 프로젝트 입찰실패 사례	23
16.	진출 성공/실패사례/프로젝트 추천등 적극적인 수요 창출을 통한 정부조달 성공	24
17.	진출 성공/실패사례/IT중소벤처기업 진출 실패사례	25

18.	진출 성공/실패 사례/디젤발전소 프로젝트 수주 성공 사례 ..	26
19.	진출 성공/실패 사례/디젤발전소 신규 수주 성공 사례	28
20.	주요 이슈/대리점법	30
21.	주요 이슈/영사송장 수수료	30
22.	주요 이슈/양국간 통상현안	31
23.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32
24.	출입국/비자/도미니카(공) 방문참고사항	33
25.	환전	34
26.	기후	35
27.	공휴일	35
28.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36
29.	호텔	37
30.	식당	37
31.	교통/통신/교통,통신.....	38
32.	유용한 연락처	40
33.	여행시 유의사항	41
34.	관광명소	44
35.	유용한 현지어 표현	44
36.	국토	45

37.	국 민	46
38.	역 사	47
39.	국 가 조 직	49
40.	정 치 제 도	50
41.	정 치 사 회 동 향 / 2005년 도 정 부 각 료 명 단	51
42.	정 치 사 회 동 향 / 2005년 도 정 치 동 향	51
43.	국 가 원 수	54
44.	주 요 인 사	54
45.	행 정 구 역	55
46.	대 외 관 계	60
47.	도 량 형	61
48.	관 공 서 관 행	61
49.	국 제 공 항 및 항 구	62
50.	매 스 미 디 어	63
51.	주 한 주 재 국 기 관	63
52.	현 지 화 제 유 머 속 담	63
53.	물 가 정 보	64
54.	경 제 발 전 사	65
55.	경 제 정 책 / 경 제 무 역 정 책 및 제 도 (2005년)	68

56.	금융통화제도	70
57.	주요산업동향/광업	71
58.	주요산업동향/교통,관광업	72
59.	주요산업동향/농림수산업	73
60.	주요산업동향/에너지산업	74
61.	주요산업동향/의약품 시장동향	76
62.	주요산업동향/자동차산업	80
63.	주요산업동향/정보통신산업 현황	81
64.	주요산업동향/제조업 일반	82
65.	주요산업동향/중고자동차 시장동향	83
66.	주요산업동향/철강,금속산업	85
67.	주요산업동향/휴대폰 악세서리 시장	85
68.	주요산업동향/건축자재산업	86
69.	지적재산권	88
70.	소비자보호	89
71.	수입관리제도/영사송장제도	89
72.	수입관리제도/도미니카 수입관련 정책	91
73.	관세제도	91
74.	관세제도/관세평가 예외품목	92

75.	통관절차	93
76.	통관절차/수입통관시 영사송장 필요	94
77.	유통구조	95
78.	국제입찰제도	96
79.	외환관리제도	97
80.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98
81.	시장특성/시장특성 및 참고사항	99
82.	시장특성/시장개척시 유의사항	101
83.	시장특성/통상투자환경	103
84.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109
85.	상거래시유의사항/시장개척활동 참고사항	111
86.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112
87.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여건 개요	113
88.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절차 개요	115
89.	전반적 투자여건/법인설립, 공장설립 및 청산절차	116
90.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유망공단 현황	121
91.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관련 주요 컨설팅 및 부동산 업체.....	126
92.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전략	127
93.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128

94.	전반적 투자여건/도미니카(공) 투자진출 장벽	131
95.	투자유치정책	133
96.	외국인투자제한	134
97.	투자진출절차	134
98.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138
99.	공장설립	139
100.	산업단지	140
101.	자유무역지대	140
102.	조세제도	141
103.	사회간접자본	143
104.	노동여건	144
105.	사회보장제도	147
106.	현지 생활여건	147
107.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149
108.	자녀 교육여건	150
109.	진출기업/진출업체 디렉토리	150
110.	주요경제지표	155
111.	대외거래지표	155
112.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	156

113.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 통계	156
114.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주요 수출입 상품	157
115.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품목별 외국인투자유치 통계	158
116.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국별 외국인투자유치 통계	158
117.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연도별 외국인투자유치 통계	159
118. 물가금융지표	159
119. 노동통계	159
120. 지방자치구역동향/유관기관	160

1. 국가개요

일반사항

국명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위치	중미, 카리브해 중부해상 이스파놀라섬의 동부
면적	48,734km ² (한반도의 1/4)
기후	아열대성기후, 연중기온 섭씨 19-28도, 평균온도 25도
수도	산토도밍고 (Santo Domingo)
인구	887만3000명(2004년) (남자 50.82%, 여자 49.18%)
주요도시	산토도밍고(220만명), 산티아고(71만명)
민족(인종)	메스티조 및 물라토 73%, 백인 16%, 흑인 11%
언어	스페인어
종교	카톨릭 94%, 신교 3%, 기타 3%
건국(독립)일	1844년 2월27일 (아이티공화국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제
국가원수 (실권자)	대통령 Loenel Fernandez
입법부	양원제 (상원 32석, 하원 150석)
정당	여당 PLD (Dominican Liberal Party) 제10야당 PRD (Dominican Revolutionary Party) 제20야당 PRSC (Social Christians Reformismists's Party) 정부성향 : 진보, 비동맹

경제지표(2004년 기준)

GDP	166.3억불(2003년), 186.5억불(2004년)
실질경제성장률	-1.3%(2003년), 1.95%(2004년), 3.5%(IMF 2005년 전망치)
1인당 GDP	US\$2,102.2
실업률	18.0%(2003년), 17%(2004년)
물가상승률	42.7%(2003년), 28.7%(2004년)
화폐단위	Dominican Peso (RD\$)
환율	1 US\$ = 28.60 RD\$ (2005.6.26일 현재)

외채	US\$58억불(2003년), US\$70억불(2004년)
외환보유고	US\$0.95억불(2003년), US\$6.3억불(2004년)
산업구조	제조업(15.5%), 유통(11.2%), 건설(10.7%) 농수산(11.7%), 호텔·관광(7.4%)
교역규모	US\$ 5,471백만 (2003년 수출) US\$ 5,096백만 (2003년 수입) US\$ 5,750백만 (2004년 수출) US\$ 5,370백만 (2004년 수입)
교역품	수출 (페로니켈, 원당, 커피, 코코아/이상 일반상품, 수혈세트 신발부자재, 여승연, 신사복/이상 수출공업단지) 수입 (식품 등 소비재, 원유 등 원자재, 수송기계 등 자본재)

한-도미니카(공) 관계(2004년 기준)

체결협정	문화협정(1968년), 사증면제협정(1982년) 과학술협력협정(1982년)
교역규모	US\$81.5백만 (2003, 우리나라 수출) US\$71.8백만 (2003, 수입) US\$73.9백만 (2004, 수출) US\$ 121.8백만 (2004, 수입) US\$ 41.2백만 (2005.5월, 수출) US\$ 35.1백만 (2005.5월, 수입)
교역품	자동차, 가전제품, 섬유류, 유화제품(수출), 페로니켈(수입)
투자교류	24개사 공장 투자진출, 국내유치 전무
교민	400명

2. 국가개요/도미니카(공) 외교동향

가. 외교정책기조

외교적 지평 확대

- 주재국은 전통적인 친미·친서방 노선을 견지하되, 기존의 고립적·소극적 외교 정책에서 탈피,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 등 전 방위적 차원의 외교적 지평 확대
- 99.1월 도미니카(공) 대통령으로서는 44년 만에 유럽 4개국(프랑스, 이탈리아, 교황청, 스페인) 공식방문, 2003.9월 스페인 방문
- 인도, 적도 기니 및 베냉과 수교('99), 카타르와 수교(2000)
- 도미니카(공)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99.9월 대만 및 2000.2월 일본, 싱가포르, 태국, 2001.3월 대만 등 아시아지역 방문

- 2003.9월 이스라엘 및 요르단 방문

인접국 및 중남미 제국과의 관계강화를 통한 참여전략 확대

- 주재국 대통령이 최초로 '98.2월에는 아이티를, '99.11월에는 쿠바를 공식방문
- '98년의 제20차 중미정상회의, CARIFORUM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99년 제2차 ACS정상회의, 제2차 ACP정상회의 등 국제적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도미니카(공) 카리브해 도서국가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지도적 국가임을 대내외에 과시
- 신임 Leonei 대통령도 취임 이후 주로 인근 중미제국 방문을 통한 양자간 현안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중미권과의 공동협력을 위해 미국과의 FTA 협상에 공동참여하고 있으며, 중미통합시스템(SICA)에 2003년 12월에 가입
- 2004.6.14일 푸에르토리코 방문
- 2004.6.29일 SICA 정상회담 참석차 과테말라 방문
- 2004.11월 리오그룹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 방문 및 베네수엘라를 방문하여 석유공급계약 체결
- 2004.12월 중미정상회의 참석차 엘살바도르 방문

보편주의 외교노선 전개

- 비동맹 정회원 가입
- '99.5 비동맹 옵서버 참가후, '99.9 유엔총회시 정회원으로 가입
- 리오그룹 정회원 가입
- '99.9 유엔총회 리오그룹 외무장관회의에서 리오그룹 정회원으로 가입

다변화전략 구사

- 유엔 마약관련 특별총회 참가, 대인지뢰방지협약, 불법무기거래방지협약, 사막화 방지협약 서명 등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전략 추진

나. 주요국과의 관계

대미 관계

-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
- 도미니카(공)은 정치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도미니카(공)의 제1교역·투자국인 동시에 미국내에 1백만명 이상의 도미니카 노동자들이 체류
- 미국시장에 대한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도미니카(공) 주요 경제외교정책의 하나이며 대부분의 대미수출이 CBI(카리브강화법안)의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외채, 무역(특히 섬유쿼타), 마약, 이민문제관련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위해 380명의 군인을 이라크에 파병했음 그러나 2004년 4월말 대선을 앞두고 철군했음
- 미국과의 FTA 협상을 위해 중미 5개국과 보조를 맞추고 2004.8.16일 FTA를 체결했으나, 옥수수시럽에 대한 관세부과안 시행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의회인준을 못 받아 보류 상태였으나 도미니카는 다시 상하원 옥수수시럽 25%

- 관세부과안을 2004년말에 철회시켜 FTA 발효의 길을 열어 놓음
- 현재 중미 5개국, 도미니카와 미국과의 FTA는 미국 부시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 속에 의회
의 비준만이 남은 상태임.

대아이티 관계

- 과거의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양국간의 문제를 대화와 협상에 의해 해결하는 관계로 발전
- '96.12 양국 정상회담의 마이애미 회동이후 관계발전 가속화
- '99년 미주기구(OEA) 등 국제기구에서 도미니카(공)내 불법체류 아이티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사례 지적 이후 이들 불법체류자들의 송환문제가 양국간 최대 현안으로 대두
- 도미니카(공)내에서는 100만명 이상의 아이티인들이 불법체류중
- 아이티는 도미니카(공)에게 동 아이티인들의 법적 추방권리를 인정해주되 추방과정에서 야기되는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는데 합의
- 현재 양국 국경선을 통해 불법체류 아이티인들을 계속 본국으로 송환중

대쿠바 관계

- 정경분리에 의한 실리외교 추구
- '98년 양국간 복교 이후 Fernandez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Castro 쿠바 대통령이 '98.8 쿠바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도미니카(공)을 방문하였으며 Fernandez 전 대통령도 '99.11 도미니카(공)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쿠바를 공식방문(이베로 아메리카 정상회의 계기)
- 양국간 교역·관광·문화교류가 점차 확대추세이며 '99.11 양국 외무장관간 투자보장협정 및 국제마약거래 공동대회를 위한 협정에 각각 서명
- 도미니카(공)측은 최근 국제회의시 미국의 대 쿠바봉쇄 해제 및 CARICOM 회원가입 촉구 등 쿠바의 역내질서로의 편입유도 등 쿠바측 입장 옹호

대베네주엘라·멕시코 관계

- 양국 정상간 교환방문을 통한 우호협력관계 유지
- 베네주엘라, 멕시코 공히 도미니카(공)이 주도하고 있는 카리브지역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지지입장
- 베네주엘라는 2000.10월 기존의 산호세 협정을 대체한 '카라카스 에너지 협력협정'을 체결, 동국으로부터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의 기반 마련.
- 2003년 말 최근 베네주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베네주엘라 전 대통령 Perez의 쿠데타 기도에 도미니카 현 정부가 연루되어 있다는 기자회견과 석유수출 금지조치 및 대사 소환조치로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지속 해결노력을 보여 양국 관계가 복원됨.
- 2004년 11월 베네수엘라 차베스대통령과 도미니카 Leonel 대통령간의 에너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밀월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함.

대CARICOM 관계

- 1998년 자유무역협정 체결, 2001년도 17차 실무회의를 거쳐 협정효력 발효

- 국회의 동의절차 완료 이후 관세조정 등의 후속조치가 남아있으나, 동 협정 체결로 기존의 중미와의 자유무역협정과 더불어 동 지역 전체시장규모를 47백만 명으로 확대개방(CARICOM회원국:약7백만, 중미:약32백만)
- WTO와의 교섭 및 미주자유무역지대 참여에 대한 공동입장 견지

대유럽 관계

- 유럽은 도미니카(공) 제2의 수출시장이며 방문관광객의 2/3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제협력파트너
- Fernandez 전 대통령은 '99.1월 도미니카(공) 대통령으로서는 44년 만에 유럽 4개국을 방문, 대유럽관계 강화
- '99.11월에 개최된 제2차 ACP(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정상회의시 도미니카(공)이 의장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차기 회의시까지 ACP국가그룹과 EU와의 신 LOME 협정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유럽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발판 마련
- 2003.5월 10일부터 12일간 일정으로 유럽의 이태리, 핀란드, 독일, 덴마크를 공식방문 예정이었으나, 국내 Banintel은행 부도사건 수습을 위해 방문일정을 취소한바 있음.
- 2003.9월 Hipolito 대통령, 전통 우방국인 스페인을 공식방문
- 2004년 10월, 2005년 3월 Leonei 대통령도 우방국인 스페인을 방문, 외국인투자 유치 건을 성사시킴.

대아시아 관계

- 아시아 3국(한국, 대만, 일본)을 새로운 경제파트너로 인식하고 차관 및 정보산업기술 전수 등 경제외교에 초점
- 특히, 도미니카(공)은 1949년 대만과 수교 이후 일관되게 대만입장을 지지해온 역내 대표적인 친 대만국가이며 한국은 26개 업체가 자유무역지대에 진출하는 등 제2의 투자국이며 일본은 아시아국가 중 최대차관 제공(2억불)국가
- 최근 도미니카(공)은 중국과의 외교관계 모색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PRD 소속의 상원대표단 9명이 2000.9. 중국을 친선 방문한 바 있음.
- 2001.3월 Hipolito 대통령은 대만을 공식 방문하여, 양국간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기술협력을 확대.
- 신임 Leonei 대통령도 아시아국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특히 한국을 경제발전 모델로 상정하고 있음.

3. 국가개요/도미니카(공) 정치동향

가. 개관

- 1930년에서 1961년까지의 30여 년간 계속된 Rafael Trujillo의 독재정치 종식 이후 도미니카(공)은 지난 40년간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법치국가 건설에 매진.
- 이 과정에서 Joaquin Balaguer 전대통령이 이끄는 PRSC(기독교 사회개혁당)와 Juan Bosch가 이끄는 PRD(도미니카 혁명당)양당이 번갈아 정권을 장악하면서도 상호간 집권당과 야당의 입장에서 균형과 견제 하에 양당정치의 형태를 띠어옴.

- 이러한 와중에서 1996.5월 대선에서 전 Fernandez 대통령이 승리함으로써 PLD(도미니카 해방당)가 창당 23년 만에 정권을 창출, PLD당이 참여하는 다당정치 시작.
- 40세에 대통령에 당선된 전 Fernandez 대통령은 젊은 정치세대의 기수로서 집권 후 대외적으로는 국제무대에서의 적극참여, 부정부패 척결, 행정부의 효율성 제고 및 조직 정비, 직업공무원제도 신설, 사법제도 개혁,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지출 증대 등 제반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소수당으로서의 한계, 여소야대의 정국 등 여야간의 갈등이 지속 되었음.
- 2000.5.16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PRD당의 Hipolito Mejia후보가 당선되어 의욕적인 정책을 펼쳐 초기에는 상당한 국민의 인기를 얻어 2002년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으나, 2003년 4월 Baninter은행의 대규모 부도사태로 말미암은 외환불안과 경기침체로 IMF 관리체제로 전락되어 2004.5.16일 대선에서 PLD당의 Leonel Fernandez가 다시 집권하게 된 것임.

나. 정세현황

- 2000.5.16 실시된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제1야당 PRD(도미니카 혁명당)의 Hipolito Mejia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야 결말이 날 것이라던 당초의 지배적 예상과는 달리, 여당 PLD(도미니카 해방당)의 Danile Medina 후보 및 제2야당 PRSC(기독교사회개혁당)의 Joaquin Balaguer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음.
- 전 집권당인 PLD는 집권기간 4년 연속 연 평균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 실현,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통한 도미니카(공)의 국제적 위상의 제고 등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이 정책대결이 아닌 다분히 인물 위주의 양상을 띠었으므로 서민적인 품모로 대중적 인기가 높은 현 Hipolito 대통령이 유리하였다는 점, 집권기간 중 고도경제성장 등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해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실패했다는 점, 기존 정권은 부패 하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있었다는 점 등이 패인의 요인으로 분석됨.
- 8.16 취임한 Hipolito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빈곤파타, 부정부패척결, 전력난 해소, 교육 및 보건향상, 천연자원 및 환경보호, 치안강화에 국내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힘으로써, 전 정권의 경제성장 일변도 경제정책에 벗어나 농업부문 강화 등 서민생활 안정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음.
- 신 정부는 출범 이후 Hipolito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급료삭감, 불요불급한 정부예산의 절감 등 Hipolito 대통령이 검소하고 서민적이며 자신의 대선공약을 지키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부각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했으며, 특히,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의 개혁을 위하여 헌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기존 정치인, 관료들의 이해가 얹혀 찬반 대립이 심화되었고, 신 정부 출범 이후 유가인상, 폐소화의 평가절하 등에 따른 지속적인 물가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지난 Balaguer(PRSC) 대통령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연임 금지 제도를 Partido Revolucionario Dominicano당의 요청으로 대통령 연임 제도를 추진한 바, 2002년

도미니카(공)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 개헌에 성공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대통령 Hipolito가 차기 대통령 후보에 오를 수 있게 되어, 연임을 위해 대선 후보로 나왔었음.

- 대통령 연임 제도를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도미니카(공) 여당인 PRD 당이 5월 16일 실시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었음.
- Partido Reformista Social Cristiano(PRSC) 당은 Mr. Jacinto Peynado, Mr. Eduardo Estrella 의원들이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하여 선거 운동을 펼쳤는데, 당의 내부선거 결과 Mr. Eduardo Estrella 의원이 Mr. Jacinto Peynado 의원을 누르고 PRSC당의 대통령 후보에 당선됨.
- 그러나 Mr. Jacinto Peynado 의원은 내부선거 투표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Mr. Eduardo Estrella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했었으나, 당의 내부 갈등을 해결해 나갔음.
- Partido de la Liberacion Dominicana(PLD) 당은 1996-2000년도 전 대통령이었던, Mr. Leonel Fernandez Reyna이 당 대표로 출마하여, 기타 다른 후보와 경쟁을 벌였으나, Mr. Leonel이 PLD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
- Partido Revolucionario Dominicano(PRD) 당은 당시 집권당으로써, 대통령 Hipolito Mejia이 2000-2004년까지 도미니카(공) 정부를 이끌어 왔으며, Hipolito Mejia 대통령의 2004-2008 재선을 위해 다소 무리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음.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PRD 당의 의원들(Milagro 당시 부통령, Subervi 관광부 장관, Hatuey PRD 당수, Esquea, Alburquerque 등)이 많았지만, Hipolito Mejia 가 여러 부류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 후보로 결정 되었었음.
- 2003년 4월 현지 제 2의 은행인 Banintel은행의 대형 부도사건으로 야기된 달러화 부족으로 극심한 환율불안을 겪은 후 경기 침체가 계속되다가 8.29일 IMF 차관도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IMF 관리체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음. 이후 6억불 규모의 IMF와 Stand-By차관 재협상을 진행하다가 대선으로 인해 중단되었음.

다. 2002년 5월 16일 총선결과

- 도미니카(공) 여당인 PRD 당이 5월 16일 실시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 도미니카(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총선결과에 의하면 상원에서는 총 의석 32석중 당시 여당인 PRD당이 29석, 야당인 PLD 및 PRSC 당이 각각 1석 및 2석을 차지하였음.
- 또한 총 125명의 시장선거에서는 당시 여당인 PRD당이 104석, 야당인 PLD당이 7석, PRSC당이 11석, PRI당이 군소정당으로 3석을 차지했었음.
- 그러나 당시 집권여당인 PRD당은 하원에서는 총 150석중 73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였음. PRD당은 98년 선거결과 83석에서 10석이나 줄어든 73석에 그쳤으며 PLD당도 49석에서 41석으로 줄어들었음. 그러나 PRSC당이 98년의 17석 에서 36석으로 의석이 크게 늘어났음

라. 2004년 대선 결과(도미니카 대선, 정권교체 성공)

- 2004-2008년간 도미니카공화국을 이끌 새 대통령을 뽑는 5월 16일 선거에서 제 1야당인 PLD당(해방당)의 Leonel Fernandez 후보가 집권여당인 Hipolito Mejia 현 대통령을 꺾고 정권교체에 성공했음. 도미니카 중앙선거관리위원회(JCE)의 투표집계 결과 당시 제 1야당인 PLD(해방당)의 Leonel Fernandez 후보가 57.11%, 집권당인 PRD당(혁명당)의 Hipolito Mejia 후보가 33.65%, 제 2야당인 PRSC(기독교사회주의개혁당)의 Eduardo Estrella 후보가 8.65%를 득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당초 여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제 1야당의 Leonel Fernandez가 줄곧 앞서 있었기 때문에 선거결과가 예견된 것이기는 했으나, 선거 막판 Hipolito Mejia 후보가 집권 프리미엄을 업고서 맹추격을 한 양상이었으나, 집권기간 중 IMF 관리체제로 전락하는 등 위낙 경제실정의 흠을 가지고 있어서 Leonel Fernandez 후보가 비교적 수월하게 정권교체를 달성했음.
- 도미니카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는 후보가 없을 시에 2차 결선투표를 45일 후에 다시 하게 되어 있어, 결선투표 성사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였으며, PRD당의 Hipolito Mejia 후보도 Leonel 후보의 1차 투표 시 과반 저지 후에 2차 투표에서 역전하는 전략을 구사했으나, 결국 1차 투표에서 Leonel 후보가 과반 득표에 무난히 성공함으로써 2차 투표는 없어지게 됨.
- 현지 분위기와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여론조사 결과 세 불리를 느낀 당시 집권 PRD당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국제 선거감시단까지 파견했었으나, 비교적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와 개표작업이 진행되어 당초 예상보다 개표가 빨리 진행되어 5.17일 새벽에 이미 Hipolito Mejia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했었음.
- Leonel Fernandez 후보는 현재의 Hipolito Mejia 대통령 바로 직전 대통령 출신으로 비교적 청렴 결백하고, 정치 및 경제에 대한 비전과 전문지식을 갖춘 대통령으로서 향후 도미니카의 침체된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특히 2003년도부터 극심한 침체와 불안을 보이고 있는 환율 및 물가 안정 문제, 만성적인 전력부족 문제, 고 실업률 문제 등에 대해 집권초기부터 강력한 경제개혁 정책을 펴나가면서 환율의 하향안정화에 성공했고, 현재에도 계속 물가안정 정책을 펴나가고 있음.

4. 경제동향 및 전망/2005년도 대 도미니카 수출전망

<2005년 수출 전망>

가. 총괄표

- 2003년: 81.5백만불(-55.9%)
- 2004년(잠정): 67.4백만불(-17.3%)

-
- 2005년 전망: 80.0백만불(18%)

나. 전망근거

1) 밝은 면

- 환율 등 경제 불안요소가 사라질 2005년부터 전반적인 경기회복 전망
 - IMF 관리체제 정착으로 인해 건전한 금융시스템의 확립, 균형재정 달성과 환율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2005년 1/4분기부터 본격적인 경기회복 전망
 - 전반적인 경기 안정과 구매력 회복으로 그 동안 위축되었던 수입 수요 회복 전망
- 정권교체 이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진출기회 확대
 - 2004년 8월 정권교체 이후 새로운 투자정책이 본격화될 2005년부터 그간 취약했던 전력, 통신, 교통, 의료 분야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증대로 향후 우리의 관련 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다수의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IT, 기계 및 플랜트 수요 증대
 - 최근 들어 기존의 섬유, 가전제품, 자동차 등 소비재 수입에서 탈피, 통신, 제조업 부문 등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아국이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IT분야 및 중소형 기계, 플랜트 프로젝트 등 관련 산업의 진출 기회가 다양하게 발생 전망
 - Leonei 신정부도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기계, 플랜트 등 자본재 수입관세를 대폭 낮추려는 계획을 언론에 발표

2) 어두운 면

- 외채 상환일정 차질로 국제신뢰도 상실시 전반적 경기 위축
 - 2005년과 2006년에 집중되어 있는 외채 상환문제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신뢰도가 추락하여 도미니카 경제 전체가 위축되어 수입이 감소될 가능성이 상존
- 지리적 제약 및 국내기업의 도미니카 시장에 대한 인지도 미약
 - 현지시장은 카리브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한국과의 거리가 멀고, 항공교통편이 불편하며 요금도 비싼 편이라 시장개척단이나 개별 세일즈 출장업체가 매우 적은 편임.
 - 또한 현지시장은 여타 시장에 비해 아직까지 아국업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틈새시장(Niche Market)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케팅노력을 기울일 경우 현지시장뿐만 아니라 인접국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대이상의 성과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아직까지 국내기업의 현지 인식도가 취약하여 시장개척에 소극적임.

○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 제약

- 플랜트 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출의 경우 도미니카(공)의 지불 능력을 감안할 때 Supplier's Credit 을 통한 파이낸싱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요경쟁국인 미국, 브라질, 베네수엘라, 일본, 대만, 스페인등과 비교해 볼 때 아국의 파이낸싱 지원능력은 금액이나 조건 면에서 뒤떨어지는 상황임.

다. 종합의견

- 도미니카 경제는 2003년도에 자산규모 2위 은행이었던 Baninter은행 부도사태로 야기된 환율불안으로 2004년도까지 극심한 경기침체 및 IMF관리체제로 전락했었으나, 2004년 8월 정권교체로 인해 그 동안의 정치불안요소 제거되고 환율안정이 가시화되어 2005년부터는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 1/4분기 실적은 양호했으며 지속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05년부터는 그간 환율불안으로 거의 중단되었던 수입 수요가 회복되고, 구매력도 살아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도 2003년 수준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아직은 도미니카의 경제 펀터멘탈이 취약해 IMF를 비롯한 독일 경제 전문기관, EIU 등에서 2005년도에 1-2%대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도미니카 중앙은행장도 최근 발표에서 1.8% 성장을 예상했으나, 한국산의 경우 현지 경제인 및 수입에이전트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로 품질 및 가격요인을 고려하여 여타국에 비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2003년도 수준에 근접한 8천만불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음.
- 또한 무역관이 접촉하고 있는 현지 중소 바이어들의 최근 거래동향으로 판단하더라도, 기존의 미국, 일본, 유럽의 수입거래선을 전환하여 한국산에 대한 수입을 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 오더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2005년도에는 15-20% 정도의 수출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임.

5. 한국과의 무역관계/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아국을 승인
- 1962.6. 6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 이성가 주멕시코 대사, 초대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 오천석 주멕시코 대사, 제2대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 최경록 주멕시코 대사, 제3대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 Armando German 주일대사, 주한초대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 이창희 주멕시코 대사, 제4대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 송광정 주베네주엘라 대사, 제5대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 구충회 주베네주엘라 대사, 제6대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 산토도밍고에 아국 상주공관 개설

- 이복형 초대대사 신임장 제정
- Carlos Gorden Guzman 제2대 주한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 도미니카(공), 주한 상주공관 설치
- Jose Angel Savinon 초대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강대완 제2대 대사 신임장 제정
- Ciro Amaury Dargam Cruz 제2대 주한상주대사(제4대대사) 신임장 제정
- 도미니카(공) 정부 Vicente Carracho Peralta를 주한대사대리로 임명
- Julio Nolasco Rodriguez 제3대 주한상주대사(제5대대사) 신임장 제정
- 김성식 제3대 대사 신임장 제정
- Boliver E. Abreu Fernandez 제4대 주한상주대사(제6대대사) 신임장 제정
- Zolia Martinez de Medina 제5대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박련 제4대 대사 신임장 제정
- 조기일 제5대 대사 신임장 제정
- Olivero 제6대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이창호 제6대 대사 신임장 제정
- Oscar Cury Paniagua 제7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 Virgilio Alcantara 제8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 배진 제7대 대사 신임장 제정
- Marcelo Felipe Bermudez Estrella 제9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 Jose Miguel Nunez 제10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 김주억 제8대 대사 신임장 제정
- 이준일 제 9대 대사 신임장 제정
- Hector Galvan 제11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6. 한국과의 무역관계/주요인사 교류현황

< 주요인사 교류현황 >

가. 방문

- 1957. 4. 양유찬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친한사절단 파견
- 1957. 8. 동국 대통령 취임식에 아국특사를 파견
- 1963. 2. Juan Bosch 대통령 취임식에 아국 경축사절단 파견
- 1970. 8. Balaguer 대통령 취임식에 최경록 대사를 경축특사로 파견
- 1974. 8. Balaguer 대통령 취임식에 송광정 대사를 경축특사로 파견
- 1981. 1. 정중택 농수산부장관 대통령특사로 방문
- 1982. 8. 오세응 정무장관 대통령특사로 Blanco 대통령 취임식 참석
- 1983. 7. 아국국회의원단 방문(단장:이동진의원)
- 1983. 12. 이영호 체육부장관 방문
- 1984. 2. 채문식 국회의장 방문
- 1988. 8. 국회의원사절단(단장:황낙주 동자위원장)
- 1989. 4. 국회의원사절단(단장:이치호 법사위원장)
- 1990. 8. 박희도 대통령 특사, Balaguer 대통령 취임식 참석
- 1991. 5. 이승윤 대통령 특사, 유엔가입지지 교섭차 방문
- 1996. 8. Leonel Fernandez 대통령 취임식에 박희태 특사 파견

- 1996. 8. 한-도의원친선협회 사절단(단장:김정수의원) 방문
- 1997. 1. 오세웅 국회부의장 사절단 방문
- 1997. 5. 김광일 대통령특사 방문
- 1997. 11. 신기복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방문
- 1999. 5. 유종근 전라북도지사 방문
- 2000. 8. 최호중 대통령특사방문(Hipolito 대통령 취임식 참석)
- 2001.12. 국회세계박람회 유치사절단(단장 : 김기춘의원)
- 2004. 5. 도미니카대선 감시단 방문(단장 : 노영우공사)
- 2004. 8 도미니카 대통령 취임식 참석 조창현 특사 방문

나. 방한

- 1971. 7. 아국대통령 취임식에 German 주일대사가 경축특사로 방한
- 1981. 3. Carlos Gardon Guzman 주일대사 아국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방한
- 1981. 9. Alfredo S.Imbert Mogregor 국방차관부부, 국방장관 부인 방한
- 1982. 2. Tavares 외무장관 부부 방한
- 1983. 3. Scheker 체육부장관 방한
- 1983. 4. Dargam 재무차관 방한
- 1983. 10. Tolentino Dipp 도미니카(공) 하원의장 일행 방한
- 1986. 1. Vidal 외무차관 방한
- 1989. 4. Herrera Cabral 외무차관 방한
- 1989. 11. Lamarche 상공부차관 방한
- 1990. 10. Joaquin Ricardo Garcia 외무장관 방한
- 1992. 10. Jose A. Guzman 공업진흥청장 방한
- 1993. 6. Teofilo Tabar 관세청장 부부 방한
- 1995. 4. Pena Gomez PRD 당수일행 방한
- 1995. 10. Ramon Fadul 하원의장 및 E. Reyes 도한의원협회장 일행 방한
- 1995. 11. A. Dargam 외무차관 방한
- 1996. 6. ADOZONA 통상사절단 방한
- 1999. 12. Washinton Gonzales Nina 노동부 차관 방한
- 2001. 3. Dulce Rosario de la Maza 외교부 영사국장 방한
- Tirso Mejia Ricart 국가개혁위원회 사무총장 방한
- Hector Galvan 신임 주한 대사 부임

7. 한국과의 무역관계/대 도미니카(공) 시장진출 확대전략

<시장진출 확대 전략>

1. 한국상품의 경쟁력 동향

가. 가전제품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현지 인지도 양호

- 한국상품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 대기업제품 중심으로 높은 시장점유를 나타내며 호조를 띄고 있음
-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는 LG, 삼성, 대우등 국내 유명메이커들의 브랜드 인지도가

-
- 아주 높아 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섬유류의 경우는 국내 투자기업이 대 미국 우회수출을 위해 한국산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쿼터 및 관세혜택을 받는 미국산 대비 가격에서는 20%내외, 품질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있음

나. 국내기업의 현지 인지도 저하 및 지리적 불리에 의한 마케팅 부진

-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 제품 및 철강제품 등의 경우 지리적인 여건과 국내기업의 현지 정보부재에 의한 마케팅 활동 부진으로 시장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진세

다. 기계류 및 플랜트에서는 수출금융 지원제도 부실로 성과부진

- 한편, 개도국 시장의 전략진출분야인 기계류 및 플랜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주요 경쟁국인 미국, 일본, 독일 대비 금융지원시스템의 경쟁력 약화
- 미국 및 주요 선진국의 경우 자국산 기계류 및 플랜트 수출지원을 위해 7%내외의 우대금리를 지원중

2. 수출확대방안

가. 대기업 유명브랜드를 활용한 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 중남미 시장이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고있는 만큼 현지에서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국내 대기업들이 수출유망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유명 브랜드를 활용한 현지 마케팅 시, 좋은 성과가 예상됨

나. 플랜트 프로젝트 진출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금융지원 시스템 확립

- 현재 대기업 상사 중심으로 활용되고있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확대하여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국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제도를 강화할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지리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현지화 강화

- 진출유망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약점으로 마케팅이 활발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 투자진출, 지점개설, 에이전트 계약 등 활발한 현지화 지원을 통해 현지 수요에 적극 부응
- 현재 섬유류 중심 현지 투자진출을 통해 대 주재국 수출의 약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로도 다양한 산업분야의 현지화 진출을 지원하여 대 주재국 및 인근국 수출확대 강화
- 지사화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유망품목 현지진출 강화
- IT 산업, 건축자재, 중소형 플랜트 등 현지 시장성이 높은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지사화사업으로 적극 유치,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지원 강화

라. 교포 무역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수출침병화

- 주재국 포함 중남미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는 교포 인력을 무역 전문요원으로 전환 및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현지 전진기지로 활용
- 무역관에서 우수 교포인력 발굴 및 양성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과 연계시킴으로써 국내기업의 마케팅 경비 절감 및 현지화 적극 추진
- 최근 중남미 지역 섬유업 부진으로 유휴 인력이 발생하고있는 바 동 인력에 대한 O/B 구축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

마. 현지 지방박람회 참가를 통한 지방상권 마케팅 활동 강화

- EXPO-CIBAO 및 EXPO-CONSTITUCION, EXPO VEGA REAL 등의 지방 유명 종합박람회 참가를 통한 지방 상권 공략 및 바이어 발굴 활동 강화

바. 현지 전문품목박람회 참가를 통한 품목별 마케팅 활동 강화

- EXPO MUEBLES INTERNACIONAL(국제가구박람회), Constuexpo(건축박람회)등 현지 전문품목박람회 참가를 통한 품목별 마케팅 활동 강화

8. 한국과의 투자관계/도미니카진출 한국업체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 진출기업명 한글: 가미스포츠 / 영문: Garmy Sports, Inc.

주소: Zona Franca de Moca, Rep. Dom

전화번호: (1809) 578-5710/1410

팩스번호: (1809) 578-5810

E-MAIL: garmy@hanmail.net

대표자: 김종직/Jong Jik Kim / 사장

- 1) 업종: 제조 및 무역업
- 2) 취급품목: 스포츠공
- 3) 진출년도: 1989년
- 4) 진출형태: 단독투자
- 5) 종업원수: 3 : 120
- 6) 자본금: US\$ 270천
- 7) 매출액: US\$ 3백만 ('04년)

국내 모기업

기업명: 가미산업

주소: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한신코아 오피스텔 609호

전화: (02) 2202-5367/5369

팩스: (02) 424-0349

대표자명: 김종직

* 진출기업명 한글: 로드웨이 엔터프라이즈 / 영문: Loadway Enterprises, Inc.

주소: Zona Franca Industrial de Bonao, Rep.Dom.

전화번호: (1809) 525-4525/4535

팩스번호: (1809) 525-4666

E-MAIL: loadway@codetel.net.do

대표자: 서성호/ Sung Ho Suh/ 공장장

- 1) 업종: 제조업
- 2) 취급품목: Boy's & Men's Woven shirts
- 3) 진출년도: 1988년
- 4) 진출형태: 미국 뉴욕주 단독 법인
- 5) 종업원수: 6 : 760
- 6) 자본금: US\$ 200만불
- 7) 매출액: US\$ 1,000만불

* 진출기업명 한글: 리한상사 / 영문: LeeHan S.A.

주소: Bella Vista, Santo Domingo, Rep.Dom.

전화번호: (1809) 534-8000

팩스번호: (1809) 534-8666

E-MAIL: l.han@codetel.net.do

대표자: 이원광/ Won kwang Lee/ 대표이사 사장

- 1) 업종: 서비스업
- 2) 취급품목: 수출입 통관대행
- 3) 진출년도: 1995년
- 4) 진출형태: 단독투자
- 5) 종업원수: 1 : 8
- 6) 자본금: US\$ 50천
- 7) 매출액: US\$ 200천('04년)

* 진출기업명 한글: (주)미래와 사람 / 영문: The Will-bes Dominicana Inc.

주소: Zona Franca de Barahona, Rep. Dom.

전화번호: (1809) 524-2829/2830/4411

팩스번호: (1809) 524-3688

E-MAIL: willbesman@codetel.net.do

홈페이지 주소: <http://www.willbes.com>

대표자: 박택규/ Taek Kyu Park / 본부장

- 1) 업종: 제조업
- 2) 취급품목: 섬유(원단, 자수 및 니트웨어 봉제)
- 3) 진출년도: 1986년
- 4) 진출형태: 현지법인 설립
- 5) 종업원수: 26 : 2,500
- 6) 자본금: US\$ 12,000천
- 7) 매출액: US\$ 25,000 천

8) 합작선 및 합작비율: 한국측 지분

국내 모기업

기업명: ㈜미래와 사람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14, 네트워크 빌딩 9층/10층

전화: (02) 529-5700

팩스: (02) 552-5502

대표자명: 전병현

* 진출기업명 한글: 발보아 케이 / 영문: Balboa K. INC.

주소: Zona Franca Industrial La Romana, Rep.Dom.

전화번호: (1809) 556-4931

팩스번호: (1809) 556-4376

E-MAIL: balboa.k@codetel.net.do

대표자: 지식봉 / Suk Bong, Ji / 지사장

특기사항 : 2005년 7월부로 철수 계획

1) 업종: 제조업

2) 취급품목: 신사복 상의

3) 진출년도: 1983년

4) 진출형태: 현지법인 / 단독투자

5) 종업원수: 6 : 550

6) 자본금: US\$ 350천

7) 매출액: US\$ 18백만('04년)

국내 모기업

기업명: 원풍물산 주식회사

주소: 인천직할시 서구 가좌동 538

전화: (032) 578-5454/5455

팩스: (032) 577-9906

대표자명: 이원기

* 진출기업명 한글: 비엔비 / 영문: B & B S.A.

주소: Zona Franca de Villa Altagracia. R.D.

전화번호: (1809) 559-4511

팩스번호: (1809) 559-4512

E-MAIL: cisaventas@hotmail.com

대표자: 배종태/ Jong T. Bae / 대표이사

1) 업종: 제조업

2) 취급품목: 플라스틱류

3) 진출년도: 1997년

4) 진출형태: 단독투자

5) 종업원수: 1 : 54

6) 자본금: US\$ 1,600 천

7) 매출액: US\$ 3,000천('04년)

* 진출기업명 한글: 아사모 / 영문: Asamo Corp.

주소: Zona Franca San Francisco, Rep.Dom.

전화번호: (1809) 588-8353

팩스번호: (1809) 588-6880

E-MAIL: asamodr@hotmail.com

대표자: 김동명 / Dong Myung Kim / 대표

- 1) 업종: 제조업
- 2) 취급품목: 면바지류
- 3) 진출년도: 1999년
- 4) 진출형태: 단독투자
- 5) 종업원수: 4 : 700
- 6) 자본금: 2,500천
- 7) 매출액: 11,000천 ('04년)

* 진출기업명 한글: 에스엠씨 / 영문: SMC,S.A.

주소: Zona Franca Ind. La Vega, Rep.Dom.

전화번호: (1809) 242-6565/6566

팩스번호: (1809) 242-6567

E-MAIL: smc@codetel.net.do

대표자: 장성목 /Sung Mok Chang / Director

- 1) 업종: 제조업
- 2) 취급품목: 의류
- 3) 진출년도: 1987년
- 4) 진출형태: 현지법인
- 5) 종업원수: 1: 300
- 6) 자본금: US\$ 560천
- 7) 매출액: US\$ 1,200천 ('04년)

* 진출기업명 한글: 영스뉴욕 / 영문: Young's N.Y.

주소: Zona Franca de Moca, Rep.Dom.

전화번호: (1809) 578-4521/4522

팩스번호: (1809) 578-4523

E-MAIL: ypungs.newyork@codetel.net.do

대표자: 이남규/ Danny Rhee

- 1) 업종: 제조업
- 2) 취급품목: 스포츠의류
- 3) 진출년도: 1990년
- 4) 진출형태: 현지법인
- 5) 종업원수: 4 : 280
- 6) 자본금: US\$ 1백만
- 7) 매출액: US\$ 1.5백만 ('04년)

* 진출기업명 한글: 유피아이 / 영문: United Packaging Industrial
주소: Zona Franca de Bonao, Rep.Dom.
전화번호: (1809) 525-4233/4255
팩스번호: (1809) 525-4244
E-MAIL: upackaging.codetel.net.do
대표자: 배종태 / Jong Tae Bae / 사장

- 1) 업종: 제조업
- 2) 취급품목: 박스, 인쇄
- 3) 진출년도: 1989년
- 4) 진출형태: 단독투자
- 5) 종업원수: 3 : 42
- 6) 자본금: US\$ 1백만
- 7) 매출액: US\$ 2백만('04년)

* 진출기업명 한글: 제이 앤드 제이 / 영문: J & J C.por. A
주소: Zona Franca de Nigua, San Cristobal, Rep. Dom.
전화번호: (1809) 542-1517
팩스번호: (1809) 542-1328
E-MAIL: jyj@codetel.net.do
대표자: 장인탁 / In Tak Chang / 사장

- 1) 업종: 제조업
- 2) 취급품목: 포장자재(박스)
- 3) 진출년도: 1991년
- 4) 진출형태: 단독투자
- 5) 종업원수: 5 : 80
- 6) 자본금: US\$ 50천
- 7) 매출액: US\$ 6백만 ('03년)

* 진출기업명 한글: 아르꼬 이리스 도미니카나 / 영문: Arcoiris Dominicana
주소: Zona Franca Industrial, San Pedro de Macoris, Rep. Dom..
전화번호: (1809) 526-6666
팩스번호: (1809) 526-6671
E-MAIL: arcoiris_som@hotmail.com
대표자: 이인빈 / In Bin Lee / 대표이사

- 1) 업종: 제조 및 무역업
- 2) 취급품목: 재봉사 제조, 공업용 바늘 및 섬유자재 수입
- 3) 진출년도: 1999년
- 4) 진출형태: 단독투자
- 5) 종업원수: 1 : 20
- 6) 자본금: US\$ 1백만
- 7) 매출액: US\$ 1.8백만 ('04년)

* 진출기업명 한글: 씨 앤 케이 / 영문: C & K, C.por.A

주소: Calle 8, #60, Santo Domingo, Rep.Dom.

전화번호: (1809) 766-1212/1213

팩스번호: (1809) 766-0601

E-MAIL: ck.cxa@codetel.net.do

대표자: 김평구 / Pyung Ku Kim / 사장

- 1) 업종: 제조업
- 2) 취급품목: 완구인형, 홍보용품(가방, 열쇠고리)
- 3) 진출년도: 1984 년
- 4) 진출형태: 단독투자
- 5) 종업원수: 1 : 60
- 6) 자본금: US\$ 50천
- 7) 매출액: US\$ 800천

* 진출기업명 한글: 케이 비 에이취 무역 (주) / 영문: K N H Internacional

주소: Jardines del Norte, Santo Domingo, Rep.Dom.

전화번호: (1809) 565-2725/ 926-5024

팩스번호: (1809) 926-5024

E-MAIL: kbh_intl@hotmail.com

대표자: 조봉기 / Bong Ki Cho / 대표

- 1) 업종: 무역업
- 2) 취급품목: 신중고 오토바이, 자동차 및 관련 부품
- 3) 진출년도: 1992년
- 4) 진출형태: 현지법인
- 5) 종업원수: 1:10
- 6) 자본금: US\$ 1,000천
- 7) 매출액: US\$ 2,500천 ('04년)

9. 수입규제사례/도미니카(공) 영사송장제도 중소기업 수출에 애로사항

도미니카(공)으로 수출 시 영사송장 반드시 첨부 새로운 관세평가제도로 영사송장 없이는 통관이 안돼

도미니카(공) 세관은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WTO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관세 평가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그간 시행돼오던 세관 인정관세 부가가 폐지되고 수입상의 수입가격에 의해 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WTO 회원 각국간의 정보교류로 수입신고 가격의 타당성을 검증하게 됐다.

그간 도미니카(공)은 관세제도의 낙후로 수입상 단체나 세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표준에 의거 수입관세를 부과해왔으나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2001년

7월 1일부터 수입상의 송장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그러나 동 신관세평가제도의 도입으로 그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있던 영사송장 (Factura Consular)에 대한 논란이 새로 재기되었는데, 지난 2004년 7월초 산체스 도미니카(공) 관세청장은 앞으로 영사송장이 없는 통관서류는 접수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실제 국내 수출상이 다소 불편을 겪고 있다.

영사송장 (Factura Consular)은 대 도미니카(공) 수출시 통관서류에 첨부하게 되어있는 수출국주재 도미니카(공) 대사관의 수출품 확인 영사서류이다.

그 동안 이 영사송장은 재외 도미니카(공) 대사관의 서류절차 지연 및 과도한 영사송장 수수료 징구로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물품이 영사송장 없이 400불 내외의 벌금만 현지에서 수입상이 부과하고 통관 해왔으며 도미니카(공) 정부에서도 동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 적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여타 국가에서는 도미니카 정부에 동 영사송장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후진국 특성상 주한 도미니카 대사관은 이를 주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쉽게 폐지되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지 세관의 관세부과가 인보이스 가격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수출 물품확인 및 언더밸류 방지를 위해 세관에서 동 영사송장을 반드시 필요로 함에 따라 외국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되어 오고 있다.

현지 외무성에 의하면 동 영사송장 발급기일은 요구서류만 갖추면 1-2일내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수출가격이 1천불 이상인 경우 82불, 1천불 미만인 경우는 34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영사송장이 첨부되어있지 않은 통관서류는 접수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대 도미니카(공) 수출서류 작성시에는 반드시 주한 도미니카(공) 대사관에서 발급한 영사송장을 첨부하기 바라며 동 영사송장과 관련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장기간이 걸리는 등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무역관 이메일 (sdqkctc@verizon.net.do)로 지급 연락 바란다.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대사관이 서울에 있어 영사송장 발급을 위해 내용이 불편한 만큼 사전에 주한 대사관으로 전화문의를 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춘 다음 신청당일 아침에 서류를 접수시켜 오후 정도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 영사송장 제도는 우리나라 기업뿐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폐지를 지속 요청해 오고 있고, 도미니카 경제부처에서도 폐지 검토를 수 차례 공언했으나, 2005년 6월 현재까지도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주한 도미니카(공) 대사관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9 가든타워빌딩 1601호
- 전화 : 02-742-6867
- 팩스 : 02-744-1803

- 대사 : Mr. Hector Galvan

10. 수입규제사례/한시적 추가 수입관세 부과

한시적 추가 수입관세 부과

도미니카 공화국의 Hipolito Mejia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 27일자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추가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임시 조치를 취했음.

동 조치에는 식료품, 약품, 원자재 및 기계류는 제외되며, 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열 집적판 및 장비는 무관세임을 공표함.

동 조치의 배경은 당시 이라크 전쟁에 따른 폐소화의 평가절하 영향으로 나온 긴급조치의 성격인데, 우리나라 수출품에도 영향을 미쳤으나, 그 여파는 미미한 수준이었음.

동 조치의 한시적 기한 3개월은 정확히 2003.2.27-2003.5.27일 까지 었음.

지난 4월 Banintel은행 부도사건 이후 극심한 환율불안정으로 2003년 8.29일 IMF관리체제로 들어 갔으며, 도미니카 정부에서는 IMF와의 균형재정 조건을 맞추기 위해 추가 수입관세 2%를 부과하기 법안을 다시 2003년 11월말에 의회에 다시 통과시켜, 2004년 말 까지도 수입세 2%가 고정적으로 부과되었음.

이러한 한시적 수입관세 2%에 대해 국내외 반대여론이 계속 높고, 2004.5.16일 당선된 Leonel Fernandez 대통령은 그의 선거 공약에 동 수입세 2%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은 이후, 2005년 1월 1일부로 동 수입세는 폐지되었으나, 향후에도 수입세를 다시 부과할 여지는 많은 상황임.

11. 현지히트상품/티 Diamante 1회용 비닐팩 식용유

<제품설명>

0.5리터, 1리터, 3리터들이 포장으로 판매되는 식용류 시장에서 저소득층 시장을 목표로 개발된 0.1리터들이 비닐팩 소포장 식용류

<히트요인>

과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세상가에서 대용량의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양을 일회용 컵이나 각종 용기에 덜어서 판매하여 왔으나, 정부에서 위생상 불결하다는 이유로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저소득층 시장을 목표로 하여 1회용 비닐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한다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위생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마케팅 전략을 추진한 결과 사용이 편리하고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 외에 독신자, 학생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었다.

<시사점>

소비자의 소득수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시장조사를 기초로 한 마케팅 전략은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다.

12. 현지히트상품/핸드폰 액세서리 제품 대히트

<핸드폰 액세서리 제품 대히트(다양화 경향)>

도미니카(공) 2003년에 이은 2004년도와 2005년도 2/4분기 히트 상품은 2002년 여름부터 통신사 매장 및 전국 핸드폰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액세서리 제품이 지속적인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다.

도미니카(공) 4대 통신회사 CODETEL, ORANGE, TRICOM, CENTENIAL 들은 무선통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핸드폰 가격을 점차 낮추고 있고 이용요금 또한 저렴해 지고 있음으로 핸드폰 보급률이 급성장하고 있다.

핸드폰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색깔 별 핸드폰 케이스, 인형 케이스, 이어폰 등등 핸드폰 액세서리 제품들이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대부분의 핸드폰 액세서리 제품이 중국에서 수입되어 디자인은 우수하지 않으나, 가격이 매우 저렴하여 현지 핸드폰 액세서리 시장 보급에 촉진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신문기사에 따르면 젊은 층에서 핸드폰을 다양한 액세서리로 꾸미는 것이 유행이라는 내용과 함께, 선물용으로 핸드폰 액세서리를 주는 것이 유행이어서 이를 겨냥해 통신회사들이 신규 가입자에 핸드폰 액세서리를 판촉용으로 많이 배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도미니카(공) 정부는 2000년,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켰고, 2002년부터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적발하고 벌금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어폰 판매가 더욱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핸드폰 시장의 급속성장을 미루어 볼 때, 핸드폰 액세서리 시장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3. 현지히트상품/불꽃놀이용 폭죽 연발 대히트

<불꽃놀이용 폭죽제품 연발 대히트>

도미니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끼어 있는 12월에 통상 가정집 및 축제현장에서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폭죽놀이를 즐긴다. 통상 폭죽놀이후에는 연말연시에 수십 명이 화상을 당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에게 인기가 있다.

특히 2003년의 경우 Phantom이라는 상표의 폭죽이 노상 점포를 산토도밍고 시내 곳곳에 설치해 놓고 대량으로 팔고 있어, 공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연말에 대히트를 했다.

2004년도의 경우는 도미니카가 최악의 불경기를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을 잇기 위한 심정으로 또한 새로 오는 2005년을 빨리 맞기 위한 요인이 복합되어 폭죽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려는 심리적 요인도 있는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에서는 분석했다.

200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만 수백만개의 폭죽이 팔린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2004년도의 경우는 12월 들어서면서 판매가 급증하였고 성탄절 이후 수십 명이 화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도의 경우도 불꽃놀이용 폭죽제품이 계속 히트 상품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현지에서 주저하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다.

14. 현지히트상품/손 젤크림 제품 대히트

<손 젤 크림제품 대히트>

도미니카공화국에서 2004년 들어 가장 히트친 상품은 손에 바르는 젤 크림으로 현지명은 Mantias Limpias라는 것이며, 2005년 현재에도 계속 소비자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젤 형태의 제품으로 크기는 매니큐어 정도의 크기로 소지하고 있다가 손이 더러워지거나 건조해지거나 할 때 손을 보호할 목적으로 젤을 나오게 해서 비비면 손이 청결해 지는 제품이다.

이러한 제품은 과거 도미니카에 2가지 종류가 수입되었으나, 가격이 비싸고, 인식이 덜 되어 유행하지는 못했는데, 2003년 말에 도미니카 업체 “Laboratorios Lam” 이라는 회사가 개발에 성공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이 제품은 직장 여성 및 남성, 학생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병원, 약국, 슈퍼마켓 등에 공급되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이 제품의 특징과 히트상품이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사용시 단 15초 내에 병원균을 제거 한다. 바르는 순간부터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물이나 수건이 필요 없다. 끈적끈적하지 않고, 손이 시원하고 습기를 유지시킨다. 피부에 무해하다. 2 또는 6온스 용기의 갈색이다. 소비자 가격은 2온스 짜리는 US\$ 1.03, 6온스 짜리는 US\$ 2.14로 저렴하다. 동 제품은 저렴한 가격과 배급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계층 및 연령대의 사람이 사용 가능 하다.

동 제품을 생산하는 Laboratorios Lam사는 1983년에 설립된 의약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수입품을 대체하여 국산품을 제조. 유통시켰기 때문에 도미니카 국민들이 더욱 애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15. 진출 성공/실패사례/150MW 발전기 프로젝트 입찰실패 사례

<국내 H 중공업 디젤발전기 프로젝트 입찰실패 사례>

프로젝트 개요

- 1999년 9월 실시된 발전사업의 민영화로 현지 2대 민영발전소 중에 하나인 하이나

- 전력회사가 도미니카(공) 산페드로시에 신설 예정이었던 150MW 디젤발전기 입찰
- 예상수주 액: 1억5천만 불
- 프로젝트 결정시기: 2000년 8월 17일

추진경과

- 산토도밍고 무역관에서 현지 민영 발전회사의 프로젝트 수요를 파악하고 국내 H중공업과 협력하여 기존 협의가 진행 중이던 입찰심사에 참가
- 최종결정시까지 전략가격과 납기로 국내기업의 최초 카리브해 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쟁사인 Warzila(핀란드 기업)사의 현지 지명도와 로비로 인해 수주 실패함.

아국기업의 참고사항

- 현지는 전력공급이 부족하여 20년이상 외국 유명 발전기 공급사(바질라, 만, 케터필터, 지멘스, 미쓰비시등)들이 장기적인 인맥구축과 현지 진출을 통해 기반을 구축해 놓은 지역임.
- 아국기업의 경우 신규진출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출장 등을 통해 관계기관 및 발주사측에 아측의 고급기술과 전략가격을 설명하고 현지 인맥을 구축하는데 실패하였음.
- 특히 대형프로젝트는 인맥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되고있는 현지실정을 감안할 때 향후로는 지속적인 현지방문을 통한 인맥구축과 인지도 확산이 필요함.
- 경쟁사의 경우는 충분한 가격과 조건으로 낙찰한 반면 아측은 높은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발주사측을 이해시키는데 실패하였고 오히려 덤핑의 의혹을 제기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경쟁사를 지원한 형태가 되었음.

16. 진출 성공/실패사례/프로젝트 추천등 적극적인 수요 창출을 통한 정부조달 성공

<프로젝트 주요 성공사례>

2002년 4월 국내 무선 CDMA 통신단말기 제조사는 아국의 높은 CDMA 응용 기술을 바탕으로 한 IT제품의 대 도미니카(공) 수출을 위해 사전 조사단계부터 치밀한 마케팅을 전개하여 중남미 최초로 정보통신관련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였음

동사는 도미니카(공) 내 관련제품의 수요가 다대함을 사전파악하고 일차 수요 대상처인 주재국 교통청을 통해 수익성 및 향후 응용전략 제시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통신회사 및 연관기업과의 컨소시엄 형성으로 현지 인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주요 선진국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최신 교통관리 시스템을 수주 성공하였음

동 프로젝트 수주는 일회성 납품에 한정치 않고 금번 수주를 통해 주재국 통신시스템에 설치예정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향후 다양한 활용방안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향후 시장 선점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동 프로젝트의 수주성공 요인으로는

프로젝트 발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프로젝트를 개발, 최적 모델을 아측에 유리하게 추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구사
단순 판매를 위한 마케팅이 아닌 구매자의 이익 및 효율성을 적극 배려하는 Win-Win 전략의 구사로 발주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하였음
개발도상국으로 관련 정보에 낙후되어있는 발주처에 동 프로젝트 설치시 향후 예상되는 수익 및 공익성을 적극 설명하여 정부내 각층에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배경 확보에 성공
현지 에이전트 등을 통해 현지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유력기업을 연계하는 컨소시엄 형성을 통해 현지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였음

동 정보통신 프로젝트 성공은 주재국 내에서도 향후 다양한 활용방안을 미리 확보함에 따라 이미 관련 기업의 수요가 대량으로 접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남미 여타국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진출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큰 성과라 할 수 있음

17. 진출 성공/실패사례/IT중소벤처기업 진출 실패사례

<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IT 시장 진출실패 사례 >

프로젝트 개요

국내 중소 IT 벤처기업이 현지 최대 통신회사인 CODETEL 및 네트워크 장비회사인 E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주재국 교통청의 "경찰업무강화 유무선 SI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총 800만불 규모 수주 시도

프로젝트 세부내용

무선 교통범칙금 부과 Web Checker (CDMA 무선 인터넷활용 단말기)
무선 SI 시스템구축 (단말기와 경찰청 전산망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컨소시엄 업체 및 관련 분야

한국 IT벤처업체 : Web Checker 및 인터넷 연계 프로그램 지원

E사 : 프로젝트 운영관리 및 접속 프로그램 구축

CODETEL : 인터넷 프로토콜 제공 및 프로젝트 비용 투자

년간 예상 범칙금 중, 10% 내외를 경찰청으로부터 징수

프로젝트 발주처 : 도미니카 경찰청

범칙금 연간 예상 수익 : 5억7천만 페소 (2,000대 X 800페소/일)

프로젝트 추진 경과

○ 프로젝트 추진 개요

- 2001년 6월 : 교통청 업무개선방안 일, 프로젝트 개발의향서 접수
- 2001년 7월 : 국내 관련기업 대 교통청 프로젝트 프로포잘 제출

- 2001년 8월 : 현지 업무분장 및 관련 기업 컨소시엄 형성
- 2002년 4월 : 대정부 사업승인 취득
- 2002년 5월 : 교통청장 교체에 따른 사업 중단

○ 프로젝트 추진 결과 (실패 원인)

- 대정부 사업승인 취득에 따라 컨소시엄 기업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국내 IT벤처업체는 1차분 단말기 공급계약 4월중 체결하려고 추진 중 5월에 교통청장의 교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됨
- 도미니카 정부가 고위관료 위주로 정책이 변하는 후진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업체의 경우도 자금, 정보, 경험이 부족한 IT 관련 중소기업이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치 못한 데도 원인이 있음.
- 사실 한국에서 도입한 테스트용 단말기의 50%가 현지에서 잘 작동되지 않은 기술적 문제도 있었음
- 이후 새 교통청장이 스페인 업체와 현지 Tricom사와 동일한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역시 기술력 부족으로 현지 작동이 되지 않아 계획을 중단한바 있음.

18. 진출 성공/실패사례/디젤발전소 프로젝트 수주 성공사례

국내 H사(현대중공업) 도미니카 880만불 규모 디젤발전소 수주

H사(현대중공업) 자체기술개발 디젤발전기 최초 납품

1. 디젤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계약 개요

- 계약자
 - Maxon Engineering Services Inc.
 - 국내 H사(현대중공업)
- 계약일: 2003. 5. 29일(계약서상)
- 수주 발전소 규모: 10MW Diesel Power Plant
- 발전기 Type: Hyundai 9H25/33 중속 발전기
- EPC(엔지니어링, 자재조달, 건설) 계약 금액: 미화 880만불
- Maxon Engineering Services Inc. 회사 개요
 - 회사성격: 동 업체는 Puerto Rico에 본사가 있으며 도미니카에 지사를 두고 있음.
 - 주력사업: Puerto Rico에서는 Electro Mechanical Engineering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도미니카에서는 발전사업을 하고 있음.
 - 현재 발전소 규모: 40MW 디젤 엔진 발전
 - 발전사업 기간: 약 10 년 정도 발전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음.
 - 연간 발전 매출액: 약 미화 2천만불

2. 프로젝트 발주 배경

동 바이어는 1990년 초 CDE (도미니카 전력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 40MW 규모에 달하는 디젤 발전소를 도미니카 남서부 Barahona 지역에 건설하여 현재까지 발전 사업을 영위해 왔음.

그러나 도미니카 정부가 1999년에 CDE를 민영화 하면서 기존 업체와 체결한 PPA(Power Purchase Agreement)를 재 협상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CDE와 Maxon과의 PPA 금액이 하락 조정되게 되었음. 또한 2000년도 초 정부가 Spot Market (가장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부터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발전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40MW를 효율이 좋은 중속 발전기(Medium Speed Diesel Generator)로 새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이에 국내 H사(현대 중공업)는 현지 산토도밍고무역관과 협조하에 2000년도 초반 부터 Maxon사와 프로젝트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계약 체결을 위해 미국계 업체인 Caterpillar와 GE 그리고 유럽계 업체인 Wartisla, MAN B&W등과 경쟁을 하게 되었음.

3. 수주(계약체결) 과정

국내 H사(현대중공업)는 현지에서 무역관과 협조 하에 바이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끌어 내어 바이어와 친분을 쌓는데 성공을 하였음. 즉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이어 방문 및 식사 초대를 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진행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었음. 또한 프로젝트 상담하는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Advice 그리고 바이어가 원하는 발전소의 기술사양 및 발전기 구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바이어로부터 높은 신뢰를 쌓게 되었음.

투자의향서(LOI) 체결

2001년 5월, 1년 반만의 결실로 국내 H사(현대중공업)는 Maxon사와 금융 Arrangement 조건부 LOI를 체결하는데 성공하였음. 이에 타 공급업체와 계속적인 수주경쟁을 마감할 수 있었으며 금융제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음.

계약체결

이후 약 2년 만에 금융제공이 막바지에 달하게 되어 최종 은행에 프로젝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Maxon사와 EPC계약에 서명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은행으로 부터 최종 금융제공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발전소 건설기간은 NTP (Notice to Proceed)로부터 약 10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임.

4. 동 프로젝트 수주 의의

동 프로젝트는 국내 H사(현대중공업)이 자체기술로 디자인하여 개발한 발전기가 납품 되어 건설될 최초의 발전소로서 9H25/33 모델 4대가 공급되는 첫 육상발전소가 될 것이며, 발전기부터 기자재 Civil Work에서 Commissioning까지 모두 현대의 자체 기술로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는데 큰 의의가 있음.

또한 최근 도미니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 H사(현대중공업)이 무역관과 협조(현대중공업은 2001.8.1~2002.7.30일간 산토도밍고무역관의 지사화업체였음) 하에 3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바이어를 관리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음.

이후에도 계속 1,400만불 규모의 14MW급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및 150MW급 EGE Haina사와 신규발전소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어 추가 계약 성사 가능성도 높은 상태임.

19. 진출 성공/실패사례/디젤발전소 신규 수주 성공사례

<디젤발전소 신규 수주 성공사례>

도미니카공화국은 2004년 통계로 발전설비는 화력 2,633MW, 수력 449MW 등 총 3,082MW의 용량을 갖추고는 있으나, 화력과 수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각각 44.4%, 97.2%로 피크 시, 전력수요량의 80% 정도인 2,460MW 정도만 공급되는데 그쳐 만성적인 전력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30여 년 이상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같은 전력부족 현상은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활동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연간 10% 이상씩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력가격도 중남미 국가 중 비싼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력문제는 도미니카가 해결해야 할 제 1순위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따라서 도미니카는 지난 5월 16일 대통령 선거에서 제 1야당인 PLD당(도미니카해방당)의 전 대통령이었던 Leonel Fernandez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최우선 순위에 전력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도미니카의 열악한 전력사정으로 인해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도미니카 전력시장안정화 지원을 위해 2억불의 차관을 제공하고 있고, 국제통화 기금(IMF)에서 도미니카에 지원하는 6억6천만불의 Stand-By 차관 자금 중에서도 전력분야에 일부가 쓰일 예정으로 있다.

도미니카는 현재 대통령인 Leonel Fernandez의 과거 집권시인 1999년도에 전기 발전부문과 배전부문을 민영화하여 EGE HAINA사, COGENTRIX사, UNION FENOSA사, EGE ITABO사, AES사, LADESA사, MAXON ENGINEERING사 등이 발전을 맡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배전부문은 스페인 계의 UNION FENOSA사가 국영이었던 EDENORTE와 EDESUR의 정부지분 50%를 사들여 민영화해서 운영해 오다가 Hipolito Mejia 전 대통령이 2003년 9월 30일에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해 버린 상태이다.

배전부문에 대해서는 민영화 조치를 취했던 Leonel Fernandez 전 대통령이 지금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다시 민영화를 할지 여부가 관심 대상으로 되어 있다.

도미니카는 현재에도 잦은 정전으로 인해 각종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주택 등이 비상용 중소형(500KW-1KW)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고, 대형 산업설비 및 호텔 등은

대형 발전기를 상용으로 가동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에도 발전설비 시장은 수요가 다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Leonel Fernandez 신정부가 들어설 금년 하반기부터는 정책 최우선 순위에 있는 전력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로 정부조달 발전프로젝트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회복 추세에 발맞춰 관광단지 및 호텔 신축에 따른 발전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금년 하반기부터 관광 관련 5개 다국적 그룹이 2억 달러의 신규투자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7개의 호텔 신축, 1개의 컨벤션 센터, 해양수족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른 발전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 도미니카의 대형 발전설비 부문 시장에 있어서, 핀란드계의 바짔라(WARTSILA)사, 독일의 MAN사, 영국의 롤스로이스사, 미국의 캐터필라사와 함께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치열한 수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핀란드의 바짔라사는 수십 년간에 걸친 현지시장 경험과 광범위한 인맥,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현지 대형발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과거 한중이 SIMENS사의 하청기업으로 석탄발전 설비를 공급한 경험이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2003년 5월말에 현지 Maxon Engineering사의 10MW 대형 디젤 발전소를 수주한 적이 있으며, 기타 자체 개발 디젤엔진 발전기 수대도 판매해 왔다.

2004년 들어서 현대중공업은 산토도밍고 무역관의 지원 하에 현지 이태리게 시멘트업체인 DOMICEM사의 1,200만불 규모의 22.5MW 대형디젤발전소 입찰에서 핀란드 바짔라사와 경합하여 수주 일보 직전까지 갔었으나, 결국 기존 거래선인 바짔라사로 낙찰되어 아깝게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5월 25일에 현대중공업은 무역관과 협력하여 현지 업체인 MERCASID S.A.사의 100만불 규모의 2.5MW 디젤발전소 입찰에서, 이번에는 경쟁사인 핀란드의 바짔라사를 제치고 수주에 성공하게 되었다.

최근 이라크 및 중동사태로 말미암아 유가가 사상 최고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화력발전 부분은 최악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입찰 건도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을뿐더러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게 마련인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사된 금번 현대중공업의 수주 건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4년 10월 11일에도 현지 맥주 및 럼주 병을 제조하는 회사인 Zanzibar사와 4.7MW 발전소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리고 2005년 들어서는 2월에 CEPMS사와 3백20만불 규모의 디젤발전기 계약 및 6월에 RICA사와 1백60만불 규모의 디젤발전기 계약도 무역관과의 협조하에 성사시켰다.

[도미니카의 회사별 발전용량 및 시장점유율(2003년도)]

발전 회사명	발전 용량(MW)	시장점유율(%)	발전형태
EGE Haina	599	19	화력
Monte Rio	88	3	화력

EGE Itabo	366	12	화력
CEPP	65	2	화력
IPPs	915	29	화력
Union Fenosa	190	6	화력
AES Andres	300	10	화력
Seaboard	110	4	화력
EGE Hydro	449	15	수력
총 계	3,082	100	-

(자료원 : 도미니카전력청 CDE, 2004년 12월 통계)

20. 주요이슈/대리점법

<대리점법>

대리점법(법률 173 호, '66.4.6)은 국내외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대리점은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대리점 계약은 계약 사항의 구체적인 위반이나 공급자에 대한 불이익 야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됨을 규정하고 있어, 계약의 해지는 물론 갱신에 관하여 계약서 조항에 별도 명기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내업체가 현지 대리점 업체를 최초 선정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임)

특히, 공급자에 의한 계약해지 시, 대리점에 대해서 투자자금 및 지출비용 외에 5년간 영업이익을 보상하고, 5년 이상 대리점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매1년마다 최근 5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의 10분의 1을 추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주요이슈/영사송장 수수료

<영사송장제도>

관세청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에 포함되는 영사송장은 수출업체가 수출국에 주재하는 영사가 발급하는 송장으로서, 수출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매건 당 US\$200-500을 지불하여야 한다.

수입업체가 영사송장이 미비 된 상태로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US\$100내외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관을 허용하기도 하나, 상습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수입상에 대해서는 세관당국의 눈살이 곱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은 수출상에 이를 요구하게 된다.

최근 일부 국내기업의 경우 3,500여불 소량 수출하면서 국내주재 도미니카 대사관에 1,500불 정도의 영사송장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가 발생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현지 세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으로 통관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단, 일체의 세금이 면제되는 자유무역지대는 예외를 두고 있어, 영사송장 첨부는 불요하다.

이러한 경향으로 동 영사송장 제도를 폐지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높고, 도미니카 정부도

폐지를 지속 검토하고는 있으나, 2005년 6월 현재까지도 동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22. 주요이슈/양국간 통상현안

< 양국간 통상현안 >

1. 對 도미니카(공) 무역수지 불균형

90년대부터 2002년까지 지속적인 과다 흑자유지로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늘 존재했었음.

그러나 2003년에는 도미니카 화폐의 평가절하로 한국의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폭은 많이 줄었으며, 2004년에는 오히려 무역역조까지 발생하여 무역수지 불균형문제는 일시 해소되었으나, 다시 2005년 들어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임.

수입품목 한정 및 우회수출 물량에 큰 원인이 있으나 균형적인 교역확대를 위해 수입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경주 필요

< 연도별 아국의 무역수지 현황 >

(단위: 천불)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5월)
수출	155,829	131,406	185,017	81,526	73,867	41,158
수입	45,083	37,418	21,808	71,844	121,849	35,054
무역수지	110,746	93,988	163,209	9,682	-47,982	6,10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2005년 5월 통계)

2. 한시적 추가 수입관세 부과

이라크 전쟁에 따른 도미니카 폐소화의 평가절하 영향으로 2003년 2.17-5.17일간(3개월) 수입품(식료품, 의약품 등 생필품과 원자재, 기계류 제외)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여파는 미미한 수준이었음.

도미니카가 2003년 IMF 관리체제로 전락하자 2003년 11월에 수입세 2%를 설정하여 부과해 오다가, 2005년 들어 수입세를 폐지한 상태임.

그러나, 도미니카는 항상 수입세를 부과할 여지가 많은 상황임.

3. 관세평가시 불규칙한 기준 적용

세관에서 관세평가시 일부 품목에 대해 비교자료 부재를 사유로 불규칙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아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중고 자동차 및 오토바이에 대해 이러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향후 현지 관세청을 대상으로 한국 중고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모델별, 연도별 상세 가격표 자료를 제공하여 동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23.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비자>

우리나라와는 지난 '82년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무비자 입국 및 90일간 단기체류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의 장기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 주한 도미니카(공) 대사관에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비자는 외교, 공용, 의례, 상용, 가족, 관광, 거주, 학생의 8가지로 구분되며 유효 기간은 60일과 1년짜리가 있으며, 구비서류인 신원증명서(스페인어), 호적등본(스페인어), 여권, 사진 3매(2x2), 신청서한 원본 및 사본 5매, 양식 509-REF(관광 및 상용비자의 경우) 등을 준비하여 주한 도미니카(공)대사관에 신청하면 된다.

체제연장을 위한 도미니카(공)내에서의 비자신청은 한국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이민 청에 신청하며, 비자신청을 위해서는 도미니카(공)내의 거주자 또는 법인 명의로 이름, 국적, 거주지, 직업, 신청 명의자와의 관계가 명기된 공문을 준비하여야 한다, 신청명의자가 개인인 경우 신청명의자의 재산상태, 국적, 직업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명의자가 법인이라면 공식용지에 대표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민국(Departamento de Imigracion)으로부터 임시 체류증(Temporary Residence Card)이나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 Card)을 발급받아야 하며, 임시 체류증은 비자 취득 또는 입국 후 2개월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이며, 통상 10-12주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임시 체류증을 취득하면 장기체류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2년을 만기로 하되 사진 촬영 등의 절차로 자동 갱신된다.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행정절차상 문제점으로 단.장기 체류증 발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바 현지 투자진출업체에 장기근무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는 가급적 주한대사관에서 1년 이상의 장기 비자를 취득해서 방문하면 편리하다.

<출입국절차>

출입국을 위한 특별한 방역절차는 없으며, 여행자의 휴대품이 개인용품 또는 선물로서 상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거주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하던 개인용품, 가사용품 등 이삿짐의 면세가 가능하다.

<출입국 유의사항>

여타국과 달리 도미니카공화국은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근로허가' 제도가 없이체류비자, 임시체류증, 또는 영주권상에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목적을 명기하도록 하고 노동활동을 허가하고 있다.

양국간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된 우리나라 국민은 90일 이내에 한하여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24. 출입국/비자/도미니카(공) 방문참고사항

<도미니카(공) 방문시 참고사항>

1. 산토도밍고 무역관 연락처

- 주소 : Roberto Pastoriza No.16, Edif. Diandy 13. 7N. Santo Domingo, Rep. Dom.
- 전화 : (1-809) 540-0329, 567-9733, 팩스 (1-809) 567-9737
- 이메일 : sdqktc@verizon.net.do
- 직원 (비상시)
 - . 관장 이정훈 (자택) (1-809) 482-1733, (핸드폰) (1-809) 707-0099
 - . 한국직원 : 최상균 (핸드폰) (1-809) 224-5259

2. 무역관 위치 및 찾아오시는 방법

- 산토도밍고 무역관은 국제공항인 LAS AMERICAS공항에서 자동차로 40분 정도 거리에 소재한 산토도밍고 시내의 올림픽공원 인근 ROBERTO PASTORIZA 16번지(건물 7층)에 위치하고 있음
- 무역관이 위치한 Diandy 13 빌딩은 7층짜리 흰색 빌딩으로 주변에 상가가 없어 식별하기 다소 용이하나 보다 쉽게 찾아오시기 위해서는 콜택시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함.
- 호텔 등지에서 무역관 찾아오시는 방법
- 호텔에서 무역관 : 호텔내에 관광택시가 항상 대기하고있으며 운전 기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주시면 되며 요금은 약 100페소임
- 시내에서 무역관 : 일반 시내에서 관광택시를 타기는 곤란하고 일반적으로 콜택시를 불러 무역관 주소를 보여주면 됨

3. 치안상태

- 당지는 특별히 치안상 문제는 없으나 언어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홀로 시내를 다시실 경우 다소 어려움이 있음
- 특히 밤늦게 호텔 밖을 나오실 경우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이 동행 하셔야 안전

4. 기타 방문관련 가이드

가. 교통수단

- 산토도밍고 시내에는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와 버스가 있으며 버스 요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Omsa) 대형버스는 5Peso, 중형버스는 10 Peso이나 대부분의 택시는 평균 15-20년가량의 노후차량들로서 6명내외의 승객을 태워,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경우에도 중상류층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고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음
- 시내에서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1회이용시 100 Peso의 요금을 받으며 팁은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됨
- 주요 콜택시 회사 및 전화번호 (전화를 하면 3분 정도후 도착)
 - . Apolo Taxi : 537-0000

- Tecni Taxi : 567-2010
- Aero Taxi : 685-1212

나. 호텔

- 투숙호텔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역관으로 연락하시면(기간 및 항공편과 투숙희망 호텔수준등) 사전 할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무역관에서는 조식포함 100불 내외의 호텔을 활용하고 있음
- 호텔예약시,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체크인시에 신용카드 슬립을 발행해 놓고 체크아웃 정산후 슬립을 폐기하고있음
- 비지니스 및 국제행사장으로 사용되는 특급호텔들은 카리브 해안의 George Washington(Malecon)가에 밀집하여 있으며, 숙박요금은 조식을 포함하여 1박당 US\$150-200 수준(Single기준)임
- 특급호텔외에 1급 호텔로서 비지니스맨이나 단체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은 숙박 요금이 계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으나 1일 조식 포함하여 US\$100불 내외 수준임

다. 식당

- 연간 300여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태리식, 스페인식, 아랍식, 중국식, 일식, 한식 등 다양한 식당과 맥도날드, 버거킹, 따코벨, KFC, TGIF, OUT-BACK 등 Fast-Food점이 산토도밍고 각지에 있음

25. 환전

<화폐단위>

도미니카(공)의 화폐단위는 페소(도미니칸페소, RD\$)이며, 1RD\$=100센타보이다. 지폐는 10, 20, 50, 100, 500, 1000, 2000페소 등이 있으며 주화는 1,5페소와 5, 10, 25, 50센타보가 있다.

<환율>

2005년 6월27일 현재 중앙은행의 공식환율은 US\$1=RD\$28.60이다. 중앙은행은 매일 환전 참고환율을 발표하고 있으며, '98년 7월2일의 공식환율 9.3%절하 이후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2002년 말부터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여 2003년 4월 현지 Banintel은행 부도사건 이후에는 극심한 환율인상이 이뤄져 8월 한때 1달러당 40페소까지 갔다가 8월 29일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 자금이 들어온 후 1달러당 32페소로 다소 안정되었다가, 현 정부의 배전업체 국유화 조치가 있던 9.30일 이후 다시 48까지 올랐다가 12월 들어 정부의 강력한 불법환전상 단속 등 환율통제정책으로 12월말에 환율 35로 하향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2004년 들어서도 5.16일 대선, 8월 16일 정권인수 등의 정치적 영향 때문에 쉽게 안정되지 못하다가 정권교체 이후 2004년말부터 급격한 하향안정화 추세를 나타내어 2005년 6월 현재에도 28-29 수준에 안정화 되어 있다.

<환전>

환전은 시중은행이나 환전소에서 자유롭게 교환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환전소의 교환비율이 유리하다.

26. 기후

<기후특성>

아열대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는 이스파놀라(Hispaniola)섬의 기온은 저지대에서는 연중 내내 화씨 73도 이상이며, 여름 동안에는 화씨 80-91도간을 오르내리나 고지대는 상당한 저온을 나타낸다. (연중기온 섭씨 19-28도, 평균기온 25도)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되는 우기에는 적도부근에서 발생하는 태풍(허리케인)이 지나고 있으며, '59년의 David, '98년의 George등은 3등급이상의 위력으로 도미니카(공)과 카리브 해안 도서국가에 상당한 피해를 남기고 갔다. 2004년도에는 태풍 Jeanne가 북동부 지역을 강타하여 Jimani 지역 등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음.

또한 2003.9.22일에는 리히터 강도 6.5의 강진이 발생하여 북부 Puerto Plata와 Santiago 지역에 큰 피해를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함.

<주요도시의 기후>

주요 도시별 위도의 차이가 적어 전국이 유사한 기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출장시 추천복장>

비즈니스출장 시, 하계복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관공서나 주요바이어 면담 시에는 정장착용이 권장된다. 그러나 비즈니스 면담 이외에는 짧은 팔 소매와 가벼운 바지 등 여름용 캐주얼 복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27. 공휴일

<휴일지정방식>

도미니카(공)의 공휴일은 전국 공통이며, 1997년 6월 19일 발표된 법률 제 139-97호에 의거 종교기념일을 제외하고는 화,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주 월요일로 앞 당기고, 목, 금요일인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로 연기된다.

단, 8월 16일의 경우에는 매 4년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경우에만 요일을 변경한다.

<2005년도 공휴일 일정표>

1. 1월 1일(목) El Año Nuevo(12월 31일 오후부터)
2. 1월 10일(월) Día de Reyes Magos 당초 1월 6일(목)에서 변경
3. 1월21일(금) Día de Nuestra Señora de la Altagracia
4. 1월24일(월) Día de Duarte 당초 1월 26일(수)에서 변경
5. 2월27일(금) Día de la Independencia
6. 3월25일(금) Viernes Santo(목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7. 5월2일(월) Día del Trabajo 당초 5월 1일(일)에서 변경
8. 5월26일(목) Corpus Christi(성체일)
9. 8월15일(월) Día de la Restauración 당초 8월 16일(일)에서 변경
10. 9월24일(토) Día de Nuestra Señora Mercedes
11. 11월 6일(일) Día de la Constitución
12. 12월25일(일) Día de Navidad

<출장 지양기간>

공식적인 공휴일은 상기와 같이 연간 12일이며, 대부분의 기업주는 7-8월과 12-1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휴가를 떠나고 있어, 동기간은 출장을 지양하는 것이 좋으며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는 미국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미니카 사람들이 친척방문 등으로 귀국 러시를 이루기 때문에 항공권 확보가 어렵다.

28.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13시간으로 한국이 24:00일 경우 도미니카(공)은 11:00이다. 2000년 10월 30일 동계 시간제 적용을 위해 한시간씩 늦추었다가 에너지 절약 등 관련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다시 원상 복귀하였다.

<근무시간>

은행, 관공서를 포함한 일반 사무실의 근무시간은 주5일제로 8:00-17:00이며, 생산 현장 및 유통업체는 주 6일제로 월-금요일간은 08:00-17:00이나 주말은 반공휴일로 08:00-12:00 간이다.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은 업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토요일 간은 09:00-21:00, 일요일은 09:00-14:00간 영업을 실시한다.

<회계연도>

정부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9. 호텔

<도미니카 호텔>

산토도밍고에는 비즈니스 및 국제행사장으로 사용되는 특급호텔들은 카리브 해안의 George Washington가(Malecon 지역)에 밀집하여 있으며, 숙박요금은 조식을 포함하여 1박당 US\$100-150수준(Single기준)이다.

호텔명	위치	전화/팩스
Hotel Quinto-Centenario	카리브해안	(1809) 221-0000 / 221-2020
Hotel Renasissance Jaragua	" "	(1809) 221-2222 / 686-0503
Hotel Santo Domingo	" "	(1809) 221-1511 / 535-4050
Hotel Melia Santo Domingo	" "	(1809) 221-6666 / 686-0125
Hotel El Embajador	Sarasota가	(1809) 221-2131 / 532-5306

특급호텔 외에 1급 호텔로서 비즈니스맨이나 단체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은 실내외 Pool과 Tennis Court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숙박요금은 계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으나 1일 3식 포함하여 US\$50-90(1인기준) 수준이며 장기 체류 시에는 가격 네고가 가능하다.

호텔명	위치	전화/팩스
Hotel Gran Lina	Maximo Gomez가	(1809) 563-5000 / 686-5521
Hotel Dominican Fiesta	Mirador Sur	(1809) 562-8222 / 562-8938

30. 식당

<도미니카 식당>

연간 300여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태리식, 스페인식, 멕시코식, 아랍식, 중국식, 일식, 한식 등 다양한 식당과 맥도날드, 버거킹, 따코벨, KFC, Out-Back, TGIF 등 Fast-Food점이 산토도밍고 시내 각지에 있다.

(이태리식 및 스페인식)

- Vesuvio
 - Add. : Av. George Washington #521, Santo Domingo
 - Tel : (1809) 221-1954
 - Fax : (1809) 221-3300
- Fellini
 - Add. : Av. Roberto Pastoriza #504, Santo Domingo
 - Tel : (1809) 540-5330,
 - Fax : (1809) 541-4924

- Neptuno's
 - Add. : Boca Chica, Santo Domingo
 - Tel : (1809) 523-6534
- El Meson de la Cava(동굴 식당)
 - Add. : Av. Mirador del Sur No. 1, Santo Domingo
 - Tel : (1809) 533-2818
- Sully
 - Add. : Av. C. Summer/C.Las Caobas, Santo Domingo
 - Tel : (1809) 562-3389

(한식, 일식, 중식)

- Restaurant Coreano Manna (한식)
 - Add. : Calle 12 de Julio #7, Bella Vista, Santo Domingo
 - Tel : (1809) 535-3355 /535-5533
- Restaurant Coreano Bethel (한식)
 - Add. : Av. Romulo Betancourt #1560, Bella Vista, Santo Domingo
 - Tel : (1809) 532-6248
- Restaurant Jardines SEUL (한식)
 - Add. : C/Roman Franco Brito #44, Bella Vista, Santo Domingo
 - Tel : (1809) 532-7854
- Restaurant Chino de Mariscos (중식 : 해선루)
 - Add. : Av. Sarasota #38, Santo Domingo
 - Tel : (1809) 532-8350
- Restaurant Bella Cristal (중식 : 여정주가)
 - Add. : Roberto Pastoriza No. 458, Ena. Piantini, Santo Domingo
 - Tel : (1809) 540-2923
- Restaurant Samurai (일식)
 - Add. : Av. A. Lincoln #902, Santo Domingo
 - Tel : (1809) 565-1621

31. 교통/통신/교통,통신

<우리나라와의 교통>

한국으로부터 가장 일반적인 여행항로는 New York(John F.Kennedy 공항)에 도착해서 American Airlines이나 Continental Airline, Delta Airline, Jet Blue를 이용해서

산토도밍고에 도착할 수 있으며, Los Angeles나 New York에서 Miami를 경유, American Airline를 이용하여 산토도밍고나 Puerto Plata시로 도착할 수 있다. 또한 유럽을 경유해서 오는 경우는 Air France를 타고 파리에서 또는 마드리드에서 Iberia항공을 타고 산토도밍고로 올 수도 있다.

도미니카 - 미국 항공노선 현황

- American Airline : 뉴욕(케네디공항), 마이아미, 보스톤 - 산토도밍고 구간
- Continental Airline : 뉴욕(뉴욕공항) - 산토도밍고 구간
- US Airway : 필라델피아 - 산토도밍고 구간
- Delta Airline : 뉴욕 - 산토도밍고 구간
- Jet Blue : 뉴욕- 산토도밍고, 뉴욕 - 산티아고 구간
- United Airline : 뉴욕 - 산토도밍고 구간

<국내교통>

산토도밍고 시내에는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와 버스가 있으며 버스요금은 10Peso (210원 정도)이나 대부분의 택시는 기본요금이 100Peso이며 평균 15-20년 가량의 노후차량들로서 6명의 승객을 태워,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경우에도 중상류층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고 콜택시를 이용한다.

호텔에 대기한 관광택시나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시내 1회 이용 시, 100-150 Peso의 요금을 받으며, AILA국제공항과 산토도밍고간은 300-400 Peso를 요구한다.

Avix, Hertz, Dollar, Honda, National 등의 렌트카 회사들이 있어 국제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차량렌트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는 물론 표지판이나 신호체계가 완비되지 못하고 운전자들이 도로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위험이 높은 편이다.

육상 교통시설로서 비교적 잘 갖추어진 도로는 고속도로12,600km(포장율은 85%내외), 지방도로 17,000km가 전국을 연결하고 있으나, 산토도밍고시를 중심으로 북쪽과 동쪽, 서쪽으로 '┘'자 형태로 이루어져 지방간을 연결하는 노선부족으로 수도권 지역의 병목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철도는 총 757km 가 설치되어있으나 대중 교통수단으로서는 사용되지 않고 대농장 내에서 사탕수수 운반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국제통신>

도미니카(공)의 통신부문은 일찍이 시장개방과 자율화를 통한 경쟁제도의 도입에 성공하여 가장 선진화된 부문으로서 앞선 장비와 기술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전화는 일반전화와 Cellular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내 곳곳에 설치된 전화국에서 국제전화를 신청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	전화	팩스	서비스내용
VERIZON	(1809)220-2607	(1809)566-7821	전화, 인터넷, Cellular 등 종합서비스
TRICOM	(1809)476-6000	(1809)476-4412	전화, 인터넷, Cellular 등 종합서비스

국제간 우편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Courrier, Mail Order 업체에서 병행하는 사설 사서함 등이 있다. 과거에는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도착이 지연되는 일이 많아서 국영 우편서비스 기관인 INPOSDOM의 서비스 사용을 기피하여 왔으나, 최근 서비스가 급속 개선되고 있다.

우편제도	서비스회사	사용료 및 특기사항
국내사서함	INPOSDOM	대형 : 가입비 540 페소, 연사용료 1,000페소 소형 : 가입비 210 페소, 연사용료 400 페소
해외사서함	EPS	마이아미 해외 사설사서함 서비스 제공 가입비 400 페소, 건별 서비스료 별도
국내우편(연하장기준)	INPOSDOM	8 페소 (등기우편)
	EMS	5 페소 (심부름 배달증명)
	심부름회사	20 페소 (수도권내)
	METRO	20 페소 (시외)
해외우편	EMS(국영)	220 페소 (500그램 미만, 2주소요)
(동남아기준)	DHL	365 페소 (900그램미만, 3-4일소요)
	FEDEX	474 페소 (900그램미만, 3-4일소요)
	TNT	405 페소 (900그램미만, 3-4일소요)

(주 : EMS는 국영우체국인 INPOSDOM에서 운영하는 배달심부름 회사임)

(중앙은행 공시환율 : US\$1=RD\$28.6, 2005년 6월 27일 환율)

<국내통신>

국내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국내외 장거리 통화 및 Cellular 서비스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내전화는 기본요금으로 지불하여, 전화인심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시내곳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로는 국내 장단거리 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명	전화	팩스	서비스내용
VERIZON	(1809)220-2607	(1809)566-7821	전화, 인터넷, Cellular 등 종합서비스
TRICOM	(1809)476-6000	(1809)476-4412	전화, 인터넷, Cellular 등 종합서비스
TURITEL	(1809)534-1280	(1809)531-0972	Cellular 서비스

국영우체국인 INPOSDOM(Instituto Postal Dominicano)에서 사서함을 포함, 국내외 종합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설회사로는 산토도밍고 수도권내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심부름회사, 시외간 장거리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수회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2. 유용한 연락처

<도미니카 경제단체>

단체명	위치	전화/팩스
한-도 상공인회	-	(809) 544-1555 / 544-1515
수입업자협회	Roberto Pastoriza #16	(809) 562-6909 / 541-2574

상공회의소	Arzobispo Nouel #206	(809) 682-2688 / 685-2228
Herrera 공단협회	27 de Febrero #486	(809) 530-2160 / 530-6221
수출업자협회	Winston Churchill #5	(809) 532-6779 / 532-1926
경제인협회	Sarasota #20	(809) 532-5523 / 533-7520
수출투자진흥청	Plaza de Bandera	(809) 530-5505

<한국기관>

단체명	E-mail	전화/팩스
대사관	corea.emb@verizon.net.do	(809) 532-4314 / 532-3807
무역관	sdqktc@verizon.net.do	(809) 567-9733 / 567-9737
투자진출업체협회	-	(809) 535-5344/535-4238
한인회	-	상 동

33. 여행시 유의사항

<여행 준비>

(의복 준비)

연중 내내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날씨가 계속되므로 하복을 준비하면 된다. 일부 냉방시설이 완비된 유명 식당이나 호텔, 연회장 등은 실내온도가 매우 낮아, 일반적으로 긴팔 와이셔츠를 입는 것이 좋다.

우기로 분류되는 6월부터 10월간은 일반적으로 하루 한두 차례 호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일상적인 호우는 5분에서 30분 내외로 지속되므로, 호우 중에는 이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과거의 예로 보아 9월을 전후해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는 점에서 동기간 여행시에는 사전 준비 때는 물론 여행 중에도 일기예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2004년 5.23일 도미니카-아이티 국경지대인 Jimani지역에서 대규모 수해로 인해 1,000명 이상이 죽은 예처럼 비가 집중호우 성으로 내리기 때문에 여행 중에는 필히 일기예보를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 규격)

일반 가정용 전원은 110V 60Hz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콘센트가 접지선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혼용되고 있으나, 전력소비량이 높은 에어컨은 220V 60Hz를 기본으로 하며 3상 코드를 사용한다.

<여행 여건>

(치안)

지난 '30-'61년간의 군부 독재 탓인지 중미 카리브지역에서는 비교적 치안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최근 미국정부의 범죄인 본국추방 정책으로 '98년이후 약 6000여명이 강제 송환 당하여, 강도사건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푸에르토리코와 함께 미국을 향한 중남미 지역의 마약과 밀매자금 경유국으로서, 전국적으로 마약범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현지인과의 시비나 연쟁은 피하는 것이 좋다.

(택시)

산토도밍고 시내에서 일반서민들은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Concho라는 소형 택시를 주로 하고 있으며, 요금은 10Peso (280원 정도)이나 대부분의 대형택시는 평균 15-20년 가량의 노후차량들로서 6명의 승객을 태워,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경우에도 중상류층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고 주로 콜택시를 이용한다.

호텔에 대기한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고 택시회사에 전화로 부르면 약 3-5분내에 도착하는 콜택시를 이용하면, 시내의 경우 1회당 100 Peso, AILA국제공항과 산토도밍고간은 300-350 Peso를 요구한다.

한편 최근에는 시내 일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대형버스들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요금은 3페소이다. 최근까지는 제한된 지역만 운행하고 있으나 향후로 점차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Avis, Hertz, Dollar, Honda, National 등의 렌트카 회사들이 있어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차량렌트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는 물론 표지판이나 신호체계가 완비되지 못하고 운전자들이 도로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고, 차량 정비상태가 매우 취약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편이다.

(응급)

화재, 응급환자 신고는 '911'이나, 환자발생의 경우에는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게 환자를 이동 시킬 수 있으며, 시내중심가에 위치한 UCE 종합병원은 비교적 많은 의료설비를 갖추고 있다.

의료시설은 매우 빈약한 편이며, 곳곳에 약국이 있어 필요한 약은 쉽게 구입이 가능하나, 값이 비싸므로 국내에서 자주 사용하던 소화제, 설사약, 외상치료 연고 등 비상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풍토병을 옮기는 모기가 매우 많은 편으로 가려움증을 없애주는 몰파스나 연고 등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팁관행)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팁을 줄 필요는 없으나, 짐을 실고 내려주는 경우에는 20페소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좋으며, 호텔이나 포터가 짐을 옮겨주는 경우에도 약 20페소 내외의 팁을 주면 좋다.

국제공항에서는 포터나 택시기사들의 과도한 요구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있으나, 현지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면 50페소 한도 내에서 지불하면 되며 구태여 팁에 대한 흥정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음식점에서는 음식값에 서비스료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별도의 팁을 지불할 의무는 없으나, 종업원의 친절에 대한 보상의 표시로 10%내외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

(식수)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수돗물을 식수로 마시지 않으며, 미네랄 워터를 구입하여 마신다.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는 주로 식수업체에서 제조하는 5갈론짜리 식수를 비치하여 무료로 제공하며, 미네랄 워터의 경우에는 별도로 주문하여야 한다.

(이발소)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발소가 없어, 현지인 이발소를 이용한다. 머리 결이나 스타일이 현지인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사람으로부터 자주 이용하는 이발소를 추천 받아 이용하면 되고, 요금은 200페소 정도이다. 여자 미용실의 경우는 산토도밍고와 제 2의 도시 산티아고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1개소 있음.

(구두닦이)

시내 주요 거리는 물론 이발소나, 슈퍼마켓주변, 관광단지 카페 등에서 구두닦이 소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요금은 부르는 게 값이나, 대략 10페소 정도면 충분하다.

<쇼핑>

(물가)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저급품과 커피, 시거 등 전통상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값이 비싸 대략 서울의 물가수준이다.

(쇼핑장소)

시내 중심가 27 de Febrero(베인티시에테 데 페브레로)에 있는 PlazaCentral(플라사 센트랄)에는 중고가 쇼핑물로 쇼핑하기에는 가장 적당하다. 그 외에 많은 쇼핑센터가 있는데 Plaza Lama, La Sirena, La Nacional , Acropolis, Jumbo 등을 들 수 있다.

Duarte(두아르테)라고 불리는 시장에는 값싼 저가품을 위주로 하여 우리나라 전통시장과 같이 많은 노점상과, 인파 차량 등으로 여행객들이 방문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현지에서 특별히 기념품으로 구입할만한 특산품은 없으나 럼주나 커피, 시가 등은 방문기념으로 구입할 만하다.

34. 관광명소

< 시내 관광명소 >

산토도밍고시는 신대륙 발견이후 최고의 도시로서 많은 유적지가 있으며, 동부와 북부의 카리브 해변에는 골프장, 카지노 등 위락시설을 갖춘 관광단지가 다수 개발되어 있다.

시내의 고시가지에는 신대륙 발견이후 최초의 성당(Catedral), 콜롬부스의 유해를 보관한 파로아 콜론(Faro A Colon)등대, 동굴호수가 있는 Los Tres Ojos,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판테온 등과 식당이나 화랑 등으로 이용되는 15세기 식으로 석조건물이 즐비하다.

< 시외 관광명소 >

수도에서 120 킬로미터 지점의 동남부해안에 위치한 까사데 캄포(Casa de Campo)는 종합관광단지로서 해수욕장, 골프장, 사격장, 테니스장, 승마장 등과 공개 음악당과 기념품가게 및 유명식당이 밀집된 알토 데 차봉(Alto de Chavon)이 있다.

특히 54홀 골프코스 가운데 Teeth of Dog 18홀은 PGA 랭킹 100대 골프장중24위 (2004년 랭킹 기준)로 알려져 있다.

동부 끝에 위치한 punta 까나(Punta Cana)와 Bavaro는 지역은 수도에서 약 200킬로 미터 지점으로서 카리브해의 맑은 물과 모래사장, 강한 태양 등을 즐길 수 있는 관광 단지로 최근 개발된 곳으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설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유럽인들이 단체로 관광오기도 한다.

북부 해안에는 뿌에르토 뵐라타(Puerto Plata), 사마나(Samana), 뵐라야 그란데(Playa Grande) 등이 수도기점 약 300킬로미터 지점에 개발된 관광단지이다.

특히 뵐라야 그란데에는 '98년에 완공된 골프장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되어, 내외 방문객들마다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시외의 관광명소는 해외에서 전세항공기가 유명 관광지로 직접 도착하기도 하며 일반인의 경우는 공항이나 산토도밍고 시내 호텔에서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는데 호텔의 경우 관광택시가 지역별 정액요금을 받고 각 지역으로 안내하고 있다.

35. 유용한 현지어 표현

< 발음규칙 >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서도 프랑스어를 사용국 접경국 하이티의 지배를 받아온 탓인지 스페인어에서는 발음이 생략되는 'h'를 발음하는 지명이 많다.

일반적으로 친구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투테아르(Tutear)가 매우 일반화되어 있어, 상담을 하는 경우, 회사내에서 상하간에도 우스텟(Usted) 대신에 투(Tu)를 사용한다.

'n'을 'ng'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 'en el ...'을 '엔 엘...'로 발음하는 사람이 많다.

<인사말 및 자주 사용되는 표현>

-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Gracias)
- (미안합니다): 뽀르돈(Perdon)
- (값이 얼마입니까?): 꾸안또 꾸에스타(Quanto cuesta?)
- (값을 좀 깎아 주세요): 데스꾸엔토 뽀르빠보르(Descuento, por favor)
- (실례합니다): 뽀르미소(Permiso)
- (첫인사): 꼬모 에스타(Como esta?) 또는 무초구스또(Mucho Gusto)
- (헤어질 때 인사): 아스따 루에고(Hasta luego)
- (아침인사): 부에노스 디아스(Buenos días)
- (낮인사): 부에나스 따르데스(Buenas tardes)
- (저녁인사): 부에나스 노체스(Buenas noches)
- (메뉴 갖다주세요): 엘 메뉴 뽀르빠보르(El menu, por favor)
- (영주증 갖다주세요): 라 꾸엔따 뽀르빠보르(La cuenta, por favor)

<주요 호칭 및 단어>

- 일상적으로 남자를 부를 때: 세놀 (Sr.)
- 일상적으로 여자를 부를 때: 세노리따 (Srta.)
- 일상적으로 나이트 부인을 부를 때: 세노라 (Sra.)
- 조금 친해진 사람을 부를 때: 아미고 (Amigo)
- 식당 등에서 계산서가 필요할 때: 라 꾸엔따 (La Cuenta)
- 가벼운 인사: 올라 (Hola)

<기타>

동양사람에 대해서는 중국사람의 뜻을 가진 치노(chino)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거리의 청소녀이나 소년들이 자주 사용한다. 비교적 별로 관계가 없다는 인식이 기초된 것으로서 상담을 하는 경우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은 하뽀네스 오 꼬레아노(Japones o Coreano) 등으로 물어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동양사람과 접촉이 있거나 방문한 적이 있어 비교적 친밀감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좋다.

36. 국토

<위치>

카리브해 중심에 위치한 이스파놀라 (Hispaniola)섬의 동부 2/3를 차지하며 아이티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은 쿠바 (Cuba), 푸에르토리코 (Puerto Rico) 등과 자메이카 (Jamaica), 트리니다드토바고 (Trinidad y Tobago)를 포함하는 카리브연안공동시장 (CARICOM) 14개국과 인접하고 있으며 관광산업과 투자 및 교역활동을 위한 최적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면적>

면적은 48,734천㎢로서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며, 한반도의 1/4, 이는 메사추세츠주의 2배 크기이다.

<지형>

토양은 기름지고 다습하며 국토의 80%를 차지하는 산악지역에는 카리브지역 최고 봉인 피코 두아르테(Pico Duarte)가 해발 3,175미터로 솟아 있으며, 1,633km에 달하는 해안선은 굴곡이 심하며 특히 남쪽으로 카리브해안의 칼데라만 (Bahia de Caldera), 북동해안의 사마나만 (Bahia de Samana) 등은 천연의 항만조건을 갖추고 있다.

<토지이용실태>

씨바오(CIBA0) 라고 부르는 북서부 지역은 가장 중요한 농경 지역이고, 남서쪽 및 북서쪽의 관개 사업은 넓은 지역을 농업에 알맞은 지형이다.

이 같은 지형으로 인해 경제는 전통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사탕수수 (설탕)농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커피, 담배, 카카오, 오렌지 농업이 그 다음이다.

<부존자원>

농산물은 도미니카공화국의 가장 주요한 산물로서 계곡마다의 비옥한 토양은 농작물 경작에 최적 조건을 제공하며, 산악과 구릉은 삼림으로 뒤덮여 있고 전국적으로 니켈, 금, 은 광물 등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자연경관>

넓은 해변과 기후 조건 때문에 카리브해 제 1의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호텔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관광지로는 동쪽의Punta Cana와 Bavaro가 유명하며, 북쪽의 Puerto Playa, Playa Grande가 수려한 해변 풍경으로 미국인과 유럽인들의 휴양지로 알려져 있다.

37. 국민

<인구>

도미니카 공화국은 인구 8백 72만명에 도시 집중적 성향을 띠고 있어 220만 명 정도가 수도인 산토도밍고 (SANTO DOMINGO)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1.64%(2003년)이며, 인구밀도는 174.5명/KM2(2003년)이다.

<종족>

인구의 대부분은 스페인 정착민과 이들이 데리고 왔던 아프리카 노예 및 인디언의

후손들로서 MESTIZO 및 MULATO가 73%, 백인 16%, 흑인 11%등이다.

<언어>

도미니카(공)의 공식언어는 스페인어이다.

<종교>

로마카톨릭이 인구의 94%를 점유하는 국교이나 신앙심은 그다지 깊지 못한 편이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며 신교가 날로 교세가 확장되고 있다. 종교 별 인구는 가톨릭 94%, 신교 3%, 기타가 2%이다.

<국민성>

문화. 경제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개인주의적이며 자존심이 강한 반면 합리적인 사고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친절하며 기대심을 갖고 있으나 현지 이민 중국인들로부터 받은 인상으로 인해 모든 동양 사람을 '치노(Chino)'라고 알잡아 부르는 경향이 있다.

개인별 교육수준이나 성격에 따라 다르나 일반 국민의 신뢰성은 별로 강하지 못한 편이며, 특히 금전 대차관계에서는 더욱 인색하고, 전기료, 임차료, 아파트 관리비 등을 연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문화수준>

도미니카(공)은 스페인 혈통을 지닌 카리브해 연안의 독립국가로서 북미와 강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스페인 및 프랑스, 아프리카 후손 등이 서로 어울려 살고 있어 문화 또한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전체대상인구의 82.1%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82%인데 비해 여자는 82.2%로서 여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에는 여자가 훨씬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건수준>

만성적인 전력공급 부족과 상하수도 설비부족으로 지방으로 갈수록 보건수준은 매우 열악하여, '98년도 World Bank에서 빈곤퇴치 대상국가로 선정되어, 보건부문에 대한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38. 역사

1492년 12월 5일 "콜롬부스"에 의해 발견, 스페인통치
1776년 아이티부분 프랑스에 정식할양

1795년	바실리조약에 의거 프랑스에 이양
1809년	스페인에서 재점령
1822년	아이티에서 점령(22년간 통치)
1844년	아이티로부터 독립
1916년-1924년	미국이 점령, 군사정권 통치
1924년	HORACIO VAZQUEZ 대통령 취임
1930년-1961년	TRUJILLO 에 의한 독재정치
1962년 12월	좌파의 JUAN BOSCH 대통령이 당선
1963년	우익 군부 쿠데타 발생
1965년 4월	군부내의 분열로 내란 발생(좌익 PRD재집권)
1965년 4월 28일	미군파병 및 동년 미주기구 평화군 개입
1966년 5월	총선 시까지 Hector Garcia가 대통령 취임
1966년 6월 1일	Joaquin Balaguer가 대통령 당선(70년 재선, 74년3선 12년 집권)
1978년 5월 16일	야당 도미니카 혁명당의 Antonio Guzman 대통령 당선
1982년 5월 16일	도미니카 혁명당 Jorge Blanco 대통령 당선8.16.정권 발족
1986년 8월	기독교 사회주의개혁당 Joaquin Balaguer 대통령 정권발족
1990년 5월 16일	대통령 선거로 Joaquin Balaguer 대통령 재집권
1994년 5월 16일	대통령 선거로 Joaquin Balaguer 대통령 재집권
1996년 8월 16일	대통령 선거로 Leonel Fernandez 대통령 집권
2000년 5월 16일	대통령 선거로 Hipolito Mejia 대통령 집권
2002년 5월 16일	총선실시 집권여당(PRD)의 압도적 승리
2003년 8월	Pan-America 경기 성공적 개최
2004년 5월 16일	대통령 선거 실시, PLD당 Leonel Fernandez 후보 당선
2004년 8월 16일	Leonel Fernandez 대통령 취임

스페인의 신 개척지로서 최초의 중심지였던 도미니카(공)은 많은 것들을 미대륙에 최초로 전달한 섬으로 알려져 있다.

식민지와 개발의 초점이 본토로 바뀌면서 산토도밍고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프랑스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남쪽에 위치한 아이티에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아이티는 노예들의 반발과 독립운동으로 1804년에 자유를 얻음. 1822년에 아이티인들은 22년 동안 전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얻었다.

도미니카(공)은 1844년 아이티의 점령으로부터 해방되었고, 1863년 완전한 독립을 얻었으나 미국이 1916년부터 8년동안 도미니카(공)을 점령하였다.

1930년, 독재자 라파엘 레오니다스 트루히요(Rafael Leonidas Trujillo)가 권력을 잡았으며 1961년 암살될 때까지 권력을 유지하였다.

투르히요 사망후 혼란 상태를 지나 1962년 후안 보쉬(Juan Bosch)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군사 쿠데타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과도기의 임시정부는 내전 발발까지 계속되다가 1965년 린든 존슨(Lyndon Johnson)은 내전 종식을 위하여 해병대를 파견하였고, "제 2의 쿠바"를 모면하였으며, 그는 1970년, 1974년에 재선에서 선출되었다.

1978년 PRD야당의 안토니오 쿠즈먼 (Antonio Guzman)은 호아킨 발라게르(Joaquin Balaguer)에 이기고 권력을 승계한 이후, 1982년 다시 PRD소속인 살바도르 호르헤 블랑코

(Sslvador Jorge Blanco)가 대통령직을 이었으나, 1986년에는 또다시 호아킨 발라게르가 근소한 차로 PRD후보를 누르고 4번째의 영광을 얻었으며, 1990년 그의 오래된 숙적인 후안 보쉬와의 선거에서도 승리하였다.

1994년 5월 총선에서 호아킨 발라게르는 PRD 소속의 호세 후란시스크 페니메즈를 근소한 차로 눌렀으며 후안 보쉬 (Juan Bosch)는 3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으며, 불법선거에 대한 비난으로 헌법개정과 임기 2년으로 단축하게 되었다.

1996년 5월 1차선거시 과반수 득표자 부재로 6월 2차선거시 PRSC당과 연합한 PLD당의 Leonel Fernandez가 PRD당의 Pena Gomez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했으며 2000년5월에 대선에서는 중 하류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PRD당의 Hipolito Mejia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리고 2004년 5월16일 대선에서 PLD당의 Leonel Fernandez 후보가 당선되어 8월 16일 대통령직에 취임했음.

39. 국가조직

<행정부>

1994년 개정헌법에 기초하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정치제도는 행정, 입법, 사법 등 3권 분립과 민주, 공화, 대통령제로 규정하여,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매4년마다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개헌으로 중임가능), 국가원수, 공권력의 최고책임자, 국군 통수권자이며 자신이 임명하는 16명의 각료로 구성된다.

<사법부>

1822년도 아이티(Haiti) 지배하에 있는 동안에 도입된 나폴레옹법전을 1844년 공식 법률체계로 인정한 도미니카공화국의 법체계는 대륙법 체계이면서 동시에 관습법(Common Law)의 영향을 받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법원제도는 프랑스식 제도에 기초하여

- 가정법원(Camara de Paz)은 1명의 재판관이 주재하며, 사소한 사건이나 법률로 별도로 정한 사안만을 관할하며,
- 1심법원(Camara de Primera Instancia)은 1명의 재판관이 주재하며 각 사법구역(Judicial District)당 1개의 법원이 있으며, 다른 법원의 관할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전 사건을 관할하며,
- 항소법원(Corte de Apelacion)은 5명의 재판관이 주재하며, 5개 사법구역(Judicial District)을 포함, 각 Departement별로 1개씩의 항소법원이 있어, 1심법원의 재판과 판결내용을 심판하며,
- 대법원(Suprema Corte Justicia)은 최고 법정으로서 9명의 재판관이 주재하며 1.2심 법원에서의 재판과 판결의 합법성에 대하여 재심판함
- 이밖에 행정재판소(Corte Administrativa), 노동재판소(Tribunal Laboral), 교통재판소(Tribunal), 토지재판소 등의 특별재판소가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배심원이 없어서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며, 재판장은

대법관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Magistrados)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프랑스의 법률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사법부의 행정과 입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

도미니카공화국의 의회는 양원제이다.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 양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은 매 4년마다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다. 상원(Senado)은 수도권과 29개 행정구역을 대표하는 32인으로 구성되며, 하원(Camara de Diputados)은 인구 50,000명당 1인의 비율로 선출되어 2005년 하원은 총 14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차기 총선거는 오는 2006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40. 정치제도

<도미니카 정치, 선거 제도>

도미니카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아라스트레(Arrastre)라는 정당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총선에서는 상원의원이, 대선에서는 대통령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득표비율에 따라서 각각 정당 별로 하원의원과 시도지사 또는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을 확정시킨다.

과거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매4년마다 동시에 치러왔으나, '96년도 대선 이후 매2년마다 총선과 대선을 교대로 치르게 되어 있다. 선거일은 매 짝수 년5월16일 개최되어 그 해 8월16일 선거직을 개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등 7명('99년 4월 2명 증원)으로 구성되며, 각 정당 별 비례로 하여 사회단체와의 합의를 거쳐서 확정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정당은 집권당인 자유당(PLD), 야당으로 혁명당(PRD), 사회개혁 기독교당(PRSC)등 3개당이 있다.

지난 '02. 5. 16일 개최된 총선에서는 당시 여당이던 PRD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총선결과에 의하면 상원에서는 총 의석 32석중 여당인 PRD당이 29석, 야당인 PLD 및 PRSC당이 각각 1석 및 2석을 차지하였음.

또한 총 125명의 시장선거에서는 여당인 PRD당이 104석, 야당인 PLD당이 7석, PRSC당이 11석, PRI당이 군소정당으로 3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하원에서는 전체150석중 여당인 PRD당이 73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2004년도 5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제 1야당인 PLD당의 Leonel Fernandez후보가 집권여당이었던 PRD당의 Hipolito Mejia 현 대통령을 제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이 확정되어 2004년 8월 16일 정권을 인수받아 집권 중에 있다.

41. 정치사회동향/2005년도 정부각료명단

※ 정부각료명단 (2005 년도 6 월말현재)

- 외무부장관 Carlos Morales Troncoso 전 부통령(2 회 역임)
- 재무부장관 Vicente Vengoa 경제관료
- 상공부장관 Francisco Janier Garcia 전 항만청장, 전 복권국장
- 농업부장관 Amilcar Romero 전 농업은행장, 전 전력청장
- 노동부장관 Jose Ramon Fadul 노동전문가
- 문화부장관 Jose Rafael Lantigua 시인, 수필가
- 교육부장관 Alejandrina German 교육전문가, 전 대통령 교육분야 고문
- 체육부장관 Felipe Payano 전 농구협회 회장, 전 체육부 차관
- 환경부장관 Max Puig Miller 상원의원
- 행정부장관 Franklin Almeyda 정치인, 변호사
- 여성부장관 Gladis Gutierrez 하원의원
- 국방부장관 Sufrido Pared Perez 군인
- 관광부장관 Felix Jimenez 정치인, 전 관광부장관
- 건설통신부장관 Manuel de Js. Perez 산토도밍고시 상하수도국장
- 보건부장관 Sabino Baez 사회보험부위원장
- 대통령비서실장 Danilo Medina 대통령직인수위원장, 2000 년 대선 PLD 후보

42. 정치사회동향/2005년도 정치동향

가. 개관

- 1930 년에서 1961 년까지의 30 여 년간 계속된 Rafael Trujillo 의 독재정치 종식 이후 도미니카(공)은 지난 40 년간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법치국가 건설에 매진.
- 이 과정에서 Joaquin Balaguer 전대통령이 이끄는 PRSC(기독교 사회개혁당)와 Juan Bosch 가 이끄는 PRD(도미니카 혁명당)양당이 번갈아 정권을 장악하면서도 상호간 집권당과 야당의 입장에서 균형과 견제 하에 양당정치의 형태를 띠어옴.
- 이러한 와중에서 1996.5 월 대선에서 전 Fernandez 대통령이 승리함으로써 PLD(도미니카 해방당)가 창당 23 년 만에 정권을 창출, PLD 당이 참여하는 다당정치 시작.
- 40 세에 대통령에 당선된 전 Fernandez 대통령은 젊은 정치세대의 기수로서 집권 후 대외적으로는 국제무대에서의 적극참여, 부정부패 척결, 행정부의 효율성 제고 및 조직 재정비, 직업공무원제도 신설, 사법제도 개혁, 사회복지에 위한 정부지출 증대 등 제반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소수당으로서의 한계, 여소야대의 정국 등 여. 야간 갈등이 지속되었음.
- 2000.5.16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PRD 당의 Hipolito Mejia 후보가 당선되어 의욕적인 정책을 펼쳐 초기에는 상당한 국민의 인기를 얻어 2002 년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으나, 2003 년 4 월 Baninter 은행의 대규모 부도사태로 말미암은 외환불안과 경기침체로 IMF 관리체제로 전락되어 2004.5.16 일 대선에서 PLD 당의 Leonel Fernandez 가 다시 집권하게 된 것임.

나. 정세현황

- 2000.5.16 실시된 대통령선거 1 차 투표에서 제 1 야당 PRD(도미니카 혁명당)의 Hipolito Mejia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야 결말이 날 것이라던 당초의 지배적 예상과는 달리, 여당 PLD(도미니카 해방당)의 Danile Medina 후보 및 제 2 야당 PRSC(기독교사회개혁당)의 Joaquin Balaguer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음.
- 전 집권당인 PLD 는 집권기간 4 년 연속 연 평균 7%이상의 높은 경제성장 실현,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통한 도미니카(공)의 국제적 위상의 제고 등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이 정책대결이 아닌 다분히 인물 위주의 양상을 띠었으므로 서민적인 품모로 대중적 인기가 높은 현 Hipolito 대통령이 유리하였다는 점, 집권기간 중 고도경제성장 등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해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실패했다는 점, 현 정권은 부패 하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있었다는 점 등이 패인의 요인으로 분석됨.
- 8.16 취임한 Hipolito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빈곤파타, 부정부패척결, 전력난 해소, 교육 및 보건향상, 천연자원 및 환경보호, 치안강화에 국내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힘으로써, 전 정권의 경제성장 일변도 경제정책에 벗어나 농업부문 강화 등 서민 생활 안정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음.
- 신 정부는 출범 이후 Hipolito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급료삭감, 불요불급한 정부 예산의 절감 등 Hipolito 대통령이 검소하고 서민적이며 자신의 대선공약을 지키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부각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의 개혁을 위하여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정치인, 관료들의 이해가 얹혀 찬. 반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신 정부 출범 이후 유가인상, 폐소화의 평가절하 등에 따른 지속적인 물가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지난 Balaguer(PRSC) 대통령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연임 금지 제도를 Partido Revolucionario Dominicano 당의 요청으로 대통령 연임 제도를 추진한 바, 2002 년 도미니카(공)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 개헌에 성공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현 대통령 Hipolito 이 차기 대통령 후보에 오를 수 있게 되어, 연임을 위해 대선 후보로 나왔었음.
- 대통령 연임 제도를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도미니카(공) 여당인 PRD 당이 5 월 16 일 실시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으로 풀이됨.
- 도미니카(공) PRD, PLD, PRSC 각 당 내부에서는 2004 년 차기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었음.
- Partido Reformista Social Cristiano(PRSC) 당은 Mr. Jacinto Peynado, Mr. Eduardo Estrella 의원들이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하여 선거 운동을 펼쳤는데, 당의 내부선거 결과 Mr. Eduardo Estrella 의원이 Mr. Jacinto Peynado 의원을 누르고 PRSC 당의 대통령 후보에 당선됨.
- 그러나 Mr. Jacinto Peynado 의원은 내부선거 투표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Mr. Eduardo Estrella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했으나 당의 내부 갈등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후보로 출마했음.
- Partido de la Liberacion Dominicana(PLD) 당은 1996-2000 년도 전 대통령이었던, Mr. Leonel Fernandez Reyna 이 당 대표로 출마하여, 기타 다른 후보와 경쟁을 벌였으나, Mr. Leonel 이 PLD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
- Partido Revolucionario Dominicano(PRSD) 당은 현 집권당으로써, 현재 대통령 Hipolito Mejia 이 2000-2004 년까지 도미니카(공) 정부를 이끌고 있으며, Hipolito

Mejia 대통령의 2004-2008 재선을 위해 다소 무리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음.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PRD 당의 의원들(Milagro 현 부통령, Subervi 관광부 장관, Hatuey PRD 당수, Esquea, Alburquerque 등)이 많지만, Hipolito Mejia 가 여러 부류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 후보로 결정 되었었음.

- 2003 년 4 월 현지 제 2 의 은행인 Banintel 은행의 대형 부도사건으로 야기된 달러화 부족으로 극심한 환율불안을 겪은 후 경기 침체가 계속되다가 8.29 일 IMF 차관도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IMF 관리체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음. 6 억 6 천만불 규모의 IMF 와 Stand-By 차관 재협상이 대선으로 인해 해결을 보지 못하고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Leonel 대통령이 재선된 후 2005 년 2 월 1 일부로 6 억 7 천만불 규모의 Stand-By 협정을 다시 체결하게 되었음.

다. 2002 년 5 월 16 일 총선결과

- 도미니카(공) 여당인 PRD 당이 5 월 16 일 실시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
- 도미니카(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총선결과에 의하면 상원에서는 총 의석 32 석중 여당인 PRD 당이 29 석, 야당인 PLD 및 PRSC 당이 각각 1 석 및 2 석을 차지하였음 또한 총 125 명의 시장선거에서는 여당인 PRD 당이 104 석, 야당인 PLD 당이 7 석, PRSC 당이 11 석, PRI 당이 군소정당으로 3 석을 차지했음
- 그러나 집권여당인 PRD 당은 하원에서는 총 150 석중 73 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였음. PRD 당은 98 년 선거결과 83 석에서 10 석이나 줄어든 73 석에 그쳤으며 PLD 당도 49 석에서 41 석으로 줄어들었음. 그러나 PRSC 당이 98 년의 17 석에서 36 석으로 의석이 크게 늘어났음

라. 2004 년 대선 결과(도미니카 대선, 정권교체 성공)

- 2004-2008 년간 도미니카공화국을 이끌 새 대통령을 뽑는 5 월 16 일 선거에서 제 1 야당인 PLD 당(해방당)의 Leonel Fernandez 후보가 집권여당인 Hipolito Mejia 현 대통령을 꺾고 정권교체에 성공했음. 도미니카 중앙선거관리위원회(JCE)의 투표집계 결과 제 1 야당인 PLD(해방당)의 Leonel Fernandez 후보가 57.11%, 집권당인 PRD 당(혁명당)의 Hipolito Mejia 후보가 33.65%, 제 2 야당인 PRSC (기독교사회주의개혁당)의 Eduardo Estrella 후보가 8.65%를 득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선거는 당초 여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제 1 야당의 Leonel Fernandez 가 줄곧 앞서 있었기 때문에 선거결과가 예견된 것이기는 했으나, 선거 막판 Hipolito Mejia 후보가 집권 프리미엄을 업고서 맹추격을 한 양상이었으나, 집권기간 중 IMF 관리체제로 전락하는 등 워낙 경제실정의 흠을 가지고 있어서 Leonel Fernandez 후보가 비교적 수월하게 정권교체를 달성했음.
- 도미니카 선거는 1 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는 후보가 없을 시에 2 차 결선투표를 45 일 후에 다시 하게 되어 있어, 결선투표 성사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였으며, PRD 당의 Hipolito Mejia 후보도 Leonel 후보의 1 차 투표 시 과반 저지 후에 2 차 투표에서 역전하는 전략을 구사했으나, 결국 1 차 투표에서 Leonel 후보가 과반 득표에 무난히 성공함으로써 2 차 투표는 없어지게 됐음.
- 현지 분위기와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여론조사 결과 세 불리를 느낀 집권 PRD 당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국제 선거감시단까지 파견했었으나, 비교적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와 개표작업이 진행되어 당초 예상보다

개표가 빨리 진행되어 5.17 일 새벽에 이미 Hipolito Mejia 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했었음.

- Leonel Fernandez 후보는 현재의 Hipolito Mejia 대통령 바로 직전 대통령 출신으로 비교적 청렴 결백하고, 정치 및 경제에 대한 비전과 전문지식을 갖춘 대통령으로서 향후 도미니카의 침체된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2003 년도부터 극심한 침체와 불안을 보이고 있는 환율 및 물가 안정 문제, 만성적인 전력부족 문제, 고 실업률 문제 등이 당장에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어 집권초기부터 강력한 경제개혁 정책을 펼친 결과, 일단은 환율 및 물가안정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고 있음.
- 2005 년 들어서는 Quirino 마약사건에 연루 혐의로 Hipolito Mejia 대통령을 구속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음.

43. 국가원수

직위 : 대통령(President)

성명 : 레오넬 페르난데스 (Leonel Fernandez)

취임일 : 2004.8.16

임기 : 4년

약력

- 1953년 12월 26일(만 50세)
- 수도 산토도밍고에서 출생
- 재혼, 부인 및 3자녀(1남 2녀)
- 성장지 : 미국 뉴욕(초등학교-고등학교 기간)

학력

- 도미니카 국립자치대학(UASD) 법대 졸업(법대 학생회장)
- '78 법학 박사학위 취득

경력

- '73 대학 재학시 PLD당 입당
- '85 PLD당 중앙위원
- '96- '00 도미니카 대통령
- '04- '08 도미니카 대통령

44. 주요인사

- | | |
|----------|-----------------------------|
| ○ 대통령 | Leonel Fernandez(전 대통령역임) |
| ○ 부통령 | Rafael Alburquerque(변호사) |
| ○ 농업부 장관 | Amilcar Romero(농업은행장, 전력청장) |
| ○ 국방부 장관 | Sufrido Pared Perez(군인) |

○ 교육부 장관	Alejandrina German(교육전문가, 대통령 교육분야 고문)
○ 재무부 장관	Vicente Vengoa(경제관료)
○ 외무부 장관	Carlos Morales Troncoso(전 부통령 2회 역임)
○ 상공부 장관	Francisco Javier Garcia(항만청장, 복권국장)
○ 행정부 장관	Franklin Almeyda(정치인, 변호사)
○ 노동부 장관	Jose Ramon Fadul(노동전문가)
○ 보건부 장관	Sabino Baez(사회보험부위원장)
○ 건설통신부 장관	Manuel de Js. Perez(산토도밍고시 상하수도 국장)
○ 체육부 장관	Felipe Payano(농구협회 회장, 체육부 차관)
○ 환경부 장관	Max Puig Miller(상원의원)
○ 관광부 장관	Felix Jimenez(정치인, 관광부 차관)
○ 문화부 장관	Jose Rafael Lantigua(시인, 수필가)
○ 여성부 장관	Gladis Gutierrez(하원의원)
○ 대통령 비서실장	Danilo Medina(대통령직인수위원장, 2000년 대선 후보)

○ 관세청장	Miguel Coco(경제관료)
○ 중앙은행총재	Hector Valdez Albizu(경제관료, 전 중앙은행 총재)
○ 전력청장	Radhames Segura(기술관료)
○ 수출진흥청장	Eddy Martinez(경제관료)

○ 대법원장	Jorge Ant. Suvero Issa(정치인)
○ 상원의장	Andres Bautista Garcia(정치인)
○ 하원의장	Alfred Pacheco Ozoria(정치인)

45. 행정구역

<도미니카 행정구역>

도미니카공화국은 일반적으로는 전국토를 크게 남동부, 남서부, 북서지역(시바오, CIBAO)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부르며, 행정구역으로서는 수도권(Distrito Nacional) 1개 구역과 29개주(Provincia) 등 총 30개 구역으로 나누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하여 9개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남동부는 수도권 주변과 섬의 동부 전지역이며, 남서부는 수도권 서쪽 남부지역 7개 주로, 북서지역은 수도권 서북부 14개 주 전체로 구성된다.

디스트리토나시오날(Distrito Nacional)

- 수도 : 산토도밍고(Santo Domingo)
- 산토도밍고 수도권 인구는 약 220만이며 도미니카공화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정부기관과 주요기업체, 문화행사장, 주요호텔이 밀집하여 있으며, 신대륙 발견 이후에 건축된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성당, 학교 등과 성벽과 주택 등 많은 유적이 남아있다.

싼크리스토팔(San Cristobal)

- 수도 : 싼크리스토팔(San Cristobal)

- 수도에서 서쪽 30Km 지점에 있는 싘크리스토팔은 총면적 992.94Km²에 인구 40만의 행정 구역으로 스페인 식민시절 초기의 사탕수수 농장의 유적을 갖고 있으며, 이곳에서 1844년 도미니카공화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곳이기도 하다.
- 주산물은 커피와 카카오이며 국영유리회사인 Industria Nacional del Vidrio가 소재하나, 현재는 누적된 적자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민영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빠라비아(Peravia)

- 수도 : 바니(Bani)
- 수도에서 서쪽 65Km 지점에 위치한 빠라비아는 면적 1,275.24Km²에 인구 20만의 행정구역으로 주요 상수원인 히구 에이아구아카테(Jiguey y Aguacate)가 있다.
- 카리브해의 마약단속을 목적으로 미 해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주산물은 양파이며 바니(Bani)에는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고 있다.

싼빠드로데마코리스(San Pedro de Macoris)

- 수도 : 싘빠드로데마코리스(San Pedro de Macoris)
- 수도에서 동쪽 72Km 지점에 위치한 싘빠드로데마코리스는 면적 1,032.42Km², 인구 22만의 행정구역으로 미국 프로야 구에서 활약중인 많은 야구선수를 배출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 사탕수수 농장이 산재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고 있다.

라로마나(La Romana)

- 수도 : 라로마나(La Romana)
- 수도에서 동쪽 110Km 지점에 있는 라로마나는 면적 653.95Km², 인구 16만명의 행정구역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대형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감부들의 별장이 즐비하다.
- 국내 최대의 사탕수수 산지이며,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고 있다.

라알타그라시아(La Altagracia)

- 수도 : 이구에이(Higuey)
- 수도에서 동쪽 161Km 지점에 있는 라알타그라시아는 면적 2,407.27Km², 인구 12만의 행정구역으로 바실리카식의 유서 깊은 성당인 Basilica Nuestra Senora de la Altagracia으로 유명 하며, 이곳에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성모상을 보유하고 있다.

엘세이보(EI Seybo)

- 수도 : 엘세이보(EI Seybo)
- 수도에서 북서쪽 135Km 지점에 있는 엘세이보는 면적 1,786.80Km², 인구 10만의 행정구역으로 스페인으로부터 전수 된 투우(Cruz con los Toros)로 유명하다.

아토마요르(Hato Mayor)

- 수도 : 아토마요르(Hato Mayor)
- 수도에서 북서쪽 110Km 지점에 있는 아토마요르는 면적 1,329.28Km², 인구 8만의 행정구역으로 악세사리용 호박의 일종인 암바르(Ambar) 광산이 유명하다.
- 국내 유일의 감귤 산지이며,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고 있다.

몬테플라타(Monte Plata)

- 수도 : 몬테플라타(Monte Plata)
- 수도에서 북동쪽 76Km 지점에 있는 몬테플라타는 면적 2,382.74Km², 인구 16만의 행정구역으로 하이티 국립공원(Parque Nacional de los Haitises)가 있으며, 목축과 우유가 주산물이다.

아수아(Azua)

- 수도 : 아수아(Azua)
- 수도로부터 서쪽 120Km 지점에 있는 아수아는 면적 1,474.46Km², 인구 20만내 외의 행정구역으로서, 토양이 비옥하여 화훼, 바나나, 유카 등 농작물이 재배되며, 규모는 영세하나 수산업도 이루어진다.

산후안데라마구아나(San Juan de la Maguana)

- 수도 : 산후안데라마구아나(San Juan de la Maguana)
- 수도에서 북서쪽 203Km 지점에 위치한 산후안데라마구아나는 면적 3,569.39Km², 인구 25만의 행정구역으로, 사바네 타(Sabaneta)와 예구아(Yegua) 댐이 있다. 양파와 당근, 쌀, 옥수수 등 다양한 농작물이 재배된다.

엘리아스삐냐(Elias Pina)

- 수도 : 코멘다돌(Comendador)
- 수도에서 북서쪽 257Km 지점에 위치한 엘리아스삐냐는 면적 1,321.95Km², 인구 6만의 행정구역으로, 인접국인 하이티와의 국경에 위치하고 있다.
- 화초와 플라타노, 유카, 마니 등이 주산물이다.

바라오나(Barahona)

- 수도 : 바라오나(Barahona)
- 수도에서 서쪽 200Km 지점에 위치한 바라오나는 면적 1,260Km², 인구 16만내 외의 행정구역으로 자성물체와 소금, 고령토 등이 유명하며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고 있다.
- 바나나, 옥수수, 콩 등이 재배되며, 바라오나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고 있다.

바오루코(Baoruco)

- 수도 : 네이바(Neiba)
- 수도에서 서쪽 230Km 지점에 위치한 바오루코는 면적 966.00Km², 인구 10만의 행정구역으로 토양이 마르고 건조한 편으로 포도, 커피, 바나나 등이 주로 재배된다.

인데펜덴시아(Independencia)

- 수도 : 히마니(Jimani)
- 수도에서 서쪽 282Km 지점에 위치한 인데펜덴시아는 면적 1,457.11Km², 인구 4만의 행정구역으로 카리브지역 최대 호수인 엔리키요(El Lago Enriquillo)가 있으며, 농작물의 재배는 바나나, 플라타노, 유카 등에 제한되고 있다.

삐데르날레스(Pedernales)

- 수도 : 삐데르날레스(Pedernales)

- 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서쪽 335Km 지점에 위치한 빼데르날레스는 면적 2,074.53Km², 인구 1만7천명의 행정구역으로 카리브해를 낀 최고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알루미늄의 원료인 보크사이트 광산이 있다.

싼티아고(Santiago)

- 수도 : 산티아고(Santiago)
- 수도에서 북쪽 155Km 지점에 위치한 산티아고는 면적 2,722.75Km², 인구 70만으로 국내 제 2의 행정구역으로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다.
- 특산물인 럼주와 시거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고 있다.

에스파이얏(Español)

- 수도 : 모카(Moca)
- 수도에서 북쪽 149Km 지점에 위치한 에스파이얏은 면적 573.06Km², 인구 20만
- 행정구역으로 토양이 비옥하여 커피와 카카오 플랜테이션에 적당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고 있다.

발베르데(Valverde)

- 수도 : 마오(Mao)
- 수도에서 북쪽 210Km 지점에 위치한 발베르데는 면적 823.38Km², 인구 15만의 행정구역으로 쌀과 바나나, 유카, 플라타노 등이 주산물이다.

뿌에르토플라타(Puerto Plata)

- 수도 : 뿌에르토플라타(Puerto Plata)
- 수도에서 북쪽 224Km 지점에 위치한 뿌에르토플라타는 면적 1,856.90Km², 인구 26만의 행정구역으로 신대륙 최초의 도시인 이사벨라(La Isabela)의 유적이 있으며, 풍부한 자연환경에 조성된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단지로 유명하다.
- 호박의 일종인 암바르(Ambar)와 목재 등이 유명하고 옥수수, 유카, 플라타노 등이 주산물이다.

몬테크리스티(Monte Cristi)

- 수도 : 몬테크리스티(Monte Cristi)
- 수도에서 북동쪽 270Km 지점에 위치한 몬테크리스티는 면적 1,924.35Km², 인구 10만의 행정구역으로 인접국인 하이티와 공동으로 항구 및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계획 중이다.

몬세뇨르누엘(Monsenor Nouel)

- 수도 : 보나오(Bonao)
- 수도에서 북쪽 85Km 지점에 있는 몬세뇨르누엘은 면적 992.39Km², 인구 15만의 행정구역으로 페로니켈 광산과 Rincon담이 유명하다.
- 캐나다 투자업체인 Falcon Bridge사의 광물제련 공장과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쌀이 주산물이다.

싼체스라미레스(Sanchez Ramirez)

- 수도 : 고투이(Cotui)
- 수도에서 북쪽 105Km 지점에 있는 산체스라미레스는 면적 1,196.13Km², 인구 16만의 행정구역으로 아티요(Hatillo) 담과 금.은 광산이 유명하다.

-
- 쌀과 화훼의 주산지이며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고 있다.

라베가(La Vega)

- 수도 : 라베가(La Vega)
- 수도에서 북쪽 125Km 지점에 있는 라베가는 면적 2,183.64Km², 인구 34만의 행정구역으로 카리브지역의 최고봉인 빼코 코두아르테(Pico Duarte)는 해발 3,175m에 달한다.
- 화훼는 물론 채소, 쌀, 바나나, 플라타노와 각종 과일 등의 국내 최대산지이며 자유무역지대 가 운영되고 있다.

두아르테(Duarte)

- 수도 : 썬프란시스코데마코리스(San Francisco de Macoris)
- 수도에서 북쪽 135Km 지점에 있는 두아르테는 면적 1,284.19Km², 인구 27만의 행정구역으로 자연보호지역인 Loma Q uita Espuelas가 있으며, 쌀, 옥수수, 화화, 바나나, 플라타노 등의 주산지이다.

마리아트리니달싼체스(Maria Trinidad Sanchez)

- 수도 : 나구아(Nagua)
- 수도에서 북동쪽 180Km 지점에 위치한 마리아트리니달싼체스는 면적 1,271.71Km², 인구 12 만의 행정구역으로 쌀과 화훼가 주산물이다.

사마나(Samana)

- 수도 : 사마나(Samana)
- 수도에서 북동쪽 245Km 지점에 위치한 사마나는 면적 853.74Km², 인구 7만의 행정구역으로 대리석 광산으로 유명하고 낚시가 일반화되어 있다.

쌀세도(Salcedo)

- 수도 : 쌀세도(Salcedo)
- 수도에서 북쪽 160Km 지점에 위치한 쌀세도는 면적 440.30Km², 인구 10만의 행정구역으로 커피와 카카오 플랜테이션 이 유명하다.

다하본(Dajabon)

- 수도 : 다하본(Dajabon)
- 수도에서 북동쪽 304Km 지점에 위치한 다하본은 면적 871.13Km², 인구 7만의 행정구역으로 인접 하이티로 향한 국경에 다하본다리(Puente Internacional de Dajabon)가 유명하다.
- 하이티와의 국경무역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이 참가하나 정상적인 거래보다는 밀무역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싼티아고로드리게스(Santiago Rodriguez)

- 수도 : 사바네타(Sabaneta)
- 수도에서 북동쪽 245Km 지점에 위치한 썬티아고로드리게스는 면적 1,081.21Km², 인구 6만의 행정구역으로 플라타노, 바나나, 유카가 주산물이다.

46. 대외관계

<외교노선>

외교정책의 기조는 전 정부의 고립적,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대외개방적인 정책으로 전환함을 천명하며, 연체된 국제기구 분담금의 지불과 아이티와의 협력관계 강화, 중미공동시장(CACM) 및 카리비안공동시장과(CARICOM)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실리적 차원에서의 중국 및 쿠바 등과의 외교 및 경제협력관계를 정상화하였다.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과는 뉴욕을 중심으로 약 160만여 명의 교민문제와 외채, 마약, 범죄인 인도 등의 정치문제와 최근 NAFTA의 발효 이후 멕시코에 대한 관세차별로 상대적으로 악화된 대미 섬유수출 경계 선을 위하여 NAFTA Parity범안의 미의회 통과, 지적소유권 보호 등이 주요 현안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04년 3월 14일 미국과 도미니카간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으나, 발효가 되지 않다가 중미 CAFTA 5개국과 연계하여 미국과 FTA를 8월 5일 체결, 미국대선을 거쳐 미국 의회 승인절차를 남겨 놓고 있던 중 도미니카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옥수수시럽에 대한 25% 관세부과 안을 통과시켜 미니카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다시 도미니카는 2004년 12월 28일 상원과 하원에서 관세부과 안을 철회한 상태에 있어 FTA 발효의 길을 터 놓았음.

과거 22년간 도미니카(공)을 지배하였던 이웃나라 아이티간에는 상호 반목의 관계가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LOME IV를 EU의 지원으로 국경지역 공동개발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을 계기로 양국간 관계정상화가 모색되고 있으며, '96.12월 양국정상의 마이애미 회동을 계기로 시작된 동. 식물검역위생에 관한 협정체결 및 이민과 교역 등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진행 중에 있다.

지난 59년 6.26일부로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근국 쿠바와는 '98년 1월7일 양국간 영사관 교환설치에 '98년 4월 16일부 양국간 외교관계 정상화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98년 3월 이후 주1회 정기항공노선 개설 등 양국간 교역, 관광, 문화교류가 확대 일로에 있다.

원유공급 시, 특별 가격조건과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원유도입 국에 경제발전 차관으로 공여한다는 산호세 협정에 따라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와는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가 지속되어 오다가, 최근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쿠데타 기도에 도미니카가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석유공급중단과 대사소환 조치를 취해 양국간 관계가 한때 악화되었으나, Leonei 대통령 집권 후 밀월관계를 보이다가 11월 들어 차베스 대통령과 석유공급협정을 체결하였음.

<지역협력체 참여정도>

(CARICOM)

'97.6월 파나마 중미정상회담 이후, CARICOM가입이 본격화되어, 현재 공동실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유무역거래 및 투자자유화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1998년에 협정에 사인하고

2001년도 시행되기 까지 17차례의 실무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0여개 시장개방 예외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역 대상품에 대해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게 되었음.

(CACM)

지난 '97년 5월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된 중미정상회담에 주재국의 레오넬페르난데스 대통령이 특별 초청자로 참석하면서 구체화된 중미공동시장(Mercado Comun Centroamericano; CACM) 가입협상에 서명한 이래, 7차례의 실무협상을 거쳐 2001년도에 FTA가 시행되었다.

(EU)

1989년 LOME IV가입 이후, CARICOM-EU와의 '98년도 LOME협상 회의를 유치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급속하게 높여가고 있으며, '99년 11월에는 제2차 LOME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Loenel 대통령은 2004년 8월 부임후 스페인에 2004년에 이어, 2005년 초에도 방문하여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있다.

47. 도량형

<도량형>

거리에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무게에는 파운드(현지어 Libra)를, 규격에는 인치(현지어 Pulgada)등 파운드법과 미터법을 혼용하고 있다.

<전기, 규격>

일반 소형 전기제품은 110-120V, 60Hz를 사용하며, 에어컨, 냉장고 등 전압 소비량이 큰 중대형 전기 제품은 220V, 60Hz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 110V의 경우에는 소켓은 II자형을 사용하고 있다.

48. 관공서 관행

<민원 처리기간>

처리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음 접촉하는 담당자의 성실도나 인간성 등이 처리 소요기간을 크게 좌우한다. 부하에 대해서 권한이 위임되는 경우가 상당히 제한(도미니카의 대표적 특징)되어 있으며, 행정의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아, 민원의 잘못된 처리나 과도한 지연 처리 등에 대한 사후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선입견으로 포기하는 대신에 현지의 법규 및 절차를

최대한 준수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최고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주변 인맥을 동원하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관공서 방문시 유의사항>

관공서는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시간약속을 갖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유선으로 약속을 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면담 요청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사전약속의 유무를 불문하고 약속시간을 무시하고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불편한 심정으로 면담을 갖는 경우, 목적을 달성하는데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후 면담을 재 요청 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면, 바로 응대 받는 경우도 있어서 좋고, 불필요한 감정의 여운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49. 국제공항 및 항구

<국제선 및 국내선 공항>

(산토도밍고)

공항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Las Americas	Santo Domingo	(1809) 549-0450/8	국제선
Herrera	Santo Domingo	(1809) 567-3900	국내선/국제선(아이티행)

(지방도시)

공항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Gral. Gregorio Luperon	Puerto Plata	(1809) 586-0219	국제/국내선
Punta Aguila	La Romana	(1809) 556-5565	국제/국내선
Cibao	Santiago	(1809) 582-4894	국제/국내선
Punta Cana	Higüey	(1809) 686-8790	국제/국내선
Maria Montes	Barahona	-	국내선

<국제 항구>

도미니카공화국은 14개 항구에서 수출입 화물과 사람들이 드나들

주요 항구는 다음과 같음

- Haina
- Andres Boca Chica
- Caucedo
- Santo Domingo
- La Romana
- Puerto Plata
- Samana

50. 매스미디어

<신문(조간 및 석간)>

신문명	Internet-Website	간별	창간년도	비고
Listin Diario	www.listin.com.do	조간	1889년	최대부수
Hoy	www.hoy.com.do	조간	1981년	
*El Nacional	-	석간	1966년	Hoy지와 동일신문사
El Caribe	www.elcaribe.com.do	조간	1948년	
La Informacion	-	조간	1915년	산티아고 지방신문
The Miami Herald	-	조간	1997년	영자지(El Siglo사에서 독점배포)
Diario Libre	-	조간	2000년	무가지
EL Expreso	-	조간	2001년	무가지
El Dia	-	조간	2002년	무가지

(주 : *표는 타블로이드판임)

(자료원 : 내무부 Secretaria de Estado de Interior y Policia, 2005년 6월 자료)

<잡지>

잡지명	간별	창간년도	비고
Mercado	월간	1994년	마케팅, 경영
Ahora	주간	1962년	시사 전문지

(자료원 : 내무부 Secretaria de Estado de Interior y Policia, 2004년 6월 자료)

51. 주한 주재국기관

주한 도미니카 대사관

- 대사 : Mr. Hector Galvan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니동 98-79 가든타워빌딩 1601호
- 전화 : (02)742-6867
- 팩스 : (02)744-1803

52. 현지화제 유머속담

<유머 속담>

El dinero hace poderoso pero no dichoso(엘 디네로 아세 뽀데로소, 뽀로 노 디쵸소)

‘돈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지만 행복은 주지 않는다’ 라는 말로 평소 사람들이 오직 돈만 추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돈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무시할 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로 사용되거나, 큰 부를 누리고 얻고자 했던 돈을 얻었을 때 오는 돈에 대한 허탈함을 느낄 때에도 사용한다.

Cada cabeza es un mundo(까다 까베사 에스 운 문도)

- '각각 머리속은 각각 다른 세상이다' 다른 뜻으로 사람들 각각의 생각이 저마다 달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양보나 배려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El que nace para ser coco no llega a pinonate(엘께나세 빠라 세르 꼬꼬 노 예가 아 뽀뇨나테)

- '꼬꼬로 태어난 것은 뽀뇨나테가 될 수 없다' 라는 뜻으로 코코넛은 열매를 말하고 뽀뇨나테는 코코넛을 가공한 상품으로, 대체로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설명을 해줘도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로 사용된다.

Me saco los pies(메 싸꼬 로스 뽀에스)

- '당신은 나에게서부터 발을 뺐다' 라는 뜻으로 의기투합하여 잘 지내던 사람들간에 갑자기 기대하던 사람으로부터의 비협조적인 결정으로 실망하는 경우에 서로간의 관계가 끝남을 확인하려는 뜻으로 사용된다.

Al arbol que da frutos es al que se le tira pierdras(알 아르볼 께 다 푸르또스 에스 알 께 세 레 띠라 뽀에드라스)

- ‘과실이 많이 열리는 나무가 돌은 많이 맞는다’ 라는 말로 성공하고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주위의 비난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53. 물가정보

<도시명 : 산토도밍고>

항 목	기준품목	금액(USD)	품목 내역
식 품 기호품	김치찌게	8.50	1인분
	햄버거	5.00	맥도날드 빅맥 1개
	수입담배	1.67	말보로라이트 1갑, 20개피
주 택 사무실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1,900.63	150m2/월, Semi-furnished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1,734.00	150m2/월, Semi-furnished

	사무실 임차료	2,590.00	150m2/월
교 통 차 량	자동차 2000cc	34,000.00	한국산, 오토, 에어컨
	시내버스 요금	0.33	1구간
	택시요금	3.00	기본요금
	택시요금	3.33	추가요금, Km당
통 신 전 기	공중전화요금	0.50	시내, 3분
	국제전화(할인)	1.50	현지-서울, 3분
	전기요금	0.16	가정용, 1Kwh
	인터넷 사용료	151.63	1개월 기본료
교 육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1,623.00	초등 1년간
	외국인 학교 수업료	10,123.00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레저.오락	골프장 그린피	56.00	비회원, 18홀 1라운드
	영화 관람료	6.66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의 료	병원진료비	66.67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과초진
호 텔	특급호텔 숙박료	181.44	할인, 싱글 1박
	중급호텔 숙박료	131.04	할인, 싱글 1박
임 금	사무실비서 월급여	266.67	초임, 학력불문
	사무실직원 월급여	433.33	대졸, 초임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자료, 2005년 6월)

54. 경제발전사

<신대륙 발견 이전>

- 1492년 콜롬부스의 아메리카대륙 발견이전까지, 도미니카공화국이 위치한 Hispanola(이스빠놀라)섬에는 남아메리카대륙에서 카리비안 도서국가를 경유하여 이주한 Taino(타이노)라는 원주민이 수렵과 사냥, 목축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였다.

<식민시대>

- 1492년 스페인의 통치로 시작된 이스빠놀라섬은 1795년 현재 Haiti(아이티)국이 차지하고 있는 동부지역을 프랑스에 할양되어 2개국으로 양분되는 운명을 맞았고, 이후 1804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아이티로부터 1822-1844(22년)간 지배를 받는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

- 아프리카로부터 강제 이주한 흑인노예를 노동력으로 활용하면서 농목축업은 사탕수수를 시작으로 커피, 카카오 등의 대농장 화가 진행되었으며, 유럽 및 본국과의 무역거래를 위하여 금.은 등 광물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 도미니카공화국의 국부로 칭송되는 Juan Pablo Duarte(후안 빠블로 두아르테)를 필두로 한 독립영웅의 활동으로 1844년 2월27일 아이티로부터 독립한 이후 1847년 Ramon Santana(라몬 산타나) 초대 대통령 취임으로 시작된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이후 지속되는 정정불안과 이를 우려한 미국은 군대를 파병하였고, 이후 미군은 1916년부터 1924년 Horacio Vazquez(오라시오 바스베스) 대통령의 집권시까지 군정을 펴게 되었다.
- 미국정부와 국제기구에 대한 채무감면의 혜택을 받아, 사탕수수 산업이 보다 발달하게 되었으며, 동기간 미국정부에 의하여 창설된 국방수비대(Guardia Nacional)은 추후 국군의 전신이 되었다.
- 1930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Rafael Trujillo(라파엘 트루히요)은 30여 년간의 독재정치가 지속되는 중, 1961년 군부내 반대 세력에 의한 피살되었으며, 동 시대 사유재산의 몰수와 수용, 행방불명 및 친정테러 및 살인 등으로 얼룩진 공포정치 기간이다.
- 대외 무역거래는 일체 중단시켰고 자급자족형 경제구조를 지향하는 정부는 강력한 정부의 힘으로 일사불란하게 추진하였으며, 개인 사유화한 기업의 독점화와 정경유착 등 파행적인 경제정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면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은 극히 위축되었다.
- 중앙은행(Banco Central), 산업은행(Banco de Reserva), 농업은행(Banco Agrícola) 등 경제관련 기구의 설립 등 경제제도의 마련되고 학교, 상하수도, 가로등, 통신설비 등의 확충과 현대화가 진행되었으며, 주변국 쿠바를 의식한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1941년에는 공화정사상 유일무이하게 재정의 균형과 무외채의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
- 독재정권 몰락이후 1962년 대통령선거 당선자인 Juan Bosch(후안 보쉬)는 집권 7개월만에 우익 군부의 쿠데타로 실각하고, 군부의 분열과 내란으로 정정은 극히 혼란해지게 되자, 1965년 미국은 제2의 쿠바화를 막기 위하여 군사를 파병하였으며, 이후 미주기구 평화유지군의 주둔과 안정회복으로 Hector Garcia(헥토르 가르시아)가 주도하는 과도정부를 구성하여 차기 대선을 치르게 되었다. 정치의 심각한 불안정으로 경제는 황폐화를 치달은 암흑의 시기였다.
- 과도정부하에서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Joaquin Balaguer(호아킨 발라게르)은, 이후 2회연속 재임에 성공하여 12년(1966년-1978년)을 집권하였으며, 이후 1978-1982년간 Antonio Guzman(안토니오 구스만)과 Jorge Blanco(호르헤 블랑코) 각각 4년간 집권한 시기로, 매 정부마다 사회질서의 공백 속에서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폐단이 답습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부문에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였다.

- 첫 12년간은 정치적인 안정을 기초로 사회 간접자본과 학교의 건설, 수출증진 등 대외무역의 촉진, 자유무역지대의 육성, 관광 및 자원개발 등에 관한 경제정책의 추진되었으나 과도한 차관의 도입은 향후 국가경제에 발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결국 IMF의 구제를 받아야 했다.
- 1986년 Joaquin Balaguer(호아킨 발라게르)의 10년 연속 재집권 이후 1996년에 취임한 Leonel Fernandez(레오넬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집권시기로 과거의 혼돈과 폐습이 정리되면서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개혁과 현대화가 진행된 시기이다.
- 계속된 저성장과 고인플레이, 외환의 부족, 물자부족, 재정적자, 만성적인 전력부족 등 누적된 경제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93년 6월 또다시 IMF로부터 STAND-BY 차관을 도입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보다 현실화되고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갔다.
- '94년 8월 국제채권단과의 상환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으며, 관세법을 포함한 금융과 외환, 세금제도의 꾸준한 개선노력의 결과 '92년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 3당제가 확립된 1996년 대통령 선거에서 소수당이면서 야당후보인 Leonel Fernandez(레오넬 페르난데스)는 1차투표에서 집권 당 후보인 Joaquin Balaguer(호아킨 발라게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한 뒤, 제1야당후보인 Pena Gomez(페냐 고메스)와의 2차 결선 에서 집권당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서 40 대통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 국내적으로는 개혁과 현대화를 도로건설 및 교통현대화, 항구 및 공항 증개축 등 인프라의 확충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공공부분의 개혁을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대외적 고립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주변국은 물론 남미, EU, 아프리카 등과의 정치 및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96년 다자간 투자보장 협정(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MIGA), LOME IV조약 가입, '97년 중미공동시장(MCCA), 리비안공동시장(CARICOM)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03년의 미주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2003. 8.1-8.17일간 치러진 동 대회를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리에 개최한바 있다.
- '96년이래 4년 연속 7% 이상의 GDP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은 2003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시현했다.
- 2000년 8월 16일 집권한 이보리토 메히야 대통령은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으로 전 레오넬 대통령 정부의 경제정책을 큰 변화 없이 추진해 나갔으며 한편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관세인하와 부가가치세 인상, 특별소비세 조정 등을 통해 정부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조세형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2003년과 2004년을 걸치면서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실패(실업을 상승, 환율불안, 대외부채 증가)로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중 하류계층의 민심이반현상이 나타난 가운데Hipolito 대통령은 2004년 대선출마까지 무리하게 선언하여 IMF 관리체제로 전략 등 경제를 비롯한 정국

전반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다가, 2004년 5월 16일 대선에서 일반적인 예상대로 제 1야당인 PLD당의 Leonel Fernandez 후보가 당시 집권여당인 PRD당의 Hipolito Mejia 현 대통령을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어 8월 16일 정권을 인수받아 강력한 개혁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55. 경제정책/경제무역정책 및 제도(2005년)

<경제무역정책 및 제도>

가. 개요

도미니카(공)은 1995년 WTO 에 가입한 이후, 외무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다자간 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통상관련 규범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CARICOM 및 중미자유무역지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시장개방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도미니카(공)은 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GSP, CBI 등 다양한 일방적 지원제도에 의해 특혜 혜택을 받고 있으며 반면, WTO 상 최혜국대우(MFN)를 교역 대상국에 부여하고 있음. 아울러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CARICOM, 중미자유무역 지대, 미국(미 발효상태-미국 의회계류중)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통한 특혜관세를 실시하고 있기도 함

나. 수입관련 정책

1) 수입관련 규정

도미니카(공)은 대외 수입정책과 관련 WTO 상 최혜국대우를 교역대상국에 부여하고 있으며 2001년 7월 1일부 WTO 관세협정에 일치하는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시장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등 24개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WTO 의 양허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2000년 12월 27일 법률 제146-00호로 실시된 관세인하에 따라 평균 MFN 관세는 8.6%로 도미니카(공)의 주요 수입규제 방안임

수입상품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ITBIS(부가가치세 16%)가 부여되며 알코올 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등에는 15-80%에 달하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음.

또한 안전과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수입관세쿼터 등 다양한 관세, 비관세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987년 9월 29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 512-87호에 의거 수출상은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영사송장을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미화 1,000불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화 34\$, 1,000불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82\$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동 영사송장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중임

다. 수출관련 정책

1) 수출촉진 정책

도미니카(공)은 수출촉진을 위해 현재 59개 FTZs 를 통해 입주기업(2004년 말 현재 582개사)에 세금 및 관세혜택 등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FTZs 에서의 수출은

1990년대 도미니카(공) 전체수출의 52%에서 2004년 현재에는 80%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로도 도미니카(공) 수출촉진에 건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FTZs 이외 일반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세환급제도를 1999년 도입하였으나 일부 분야에 한해 실시되고 있으며 일부 광산물, 어류 및 감각류에 대해서는 수출세가 부과되고 있음.

2) 정부보조

2001년 도미니카(공)은 WTO 에 FTZs 지원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며 관련 내역을 보고하였으며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동 지원제도의 연장을 요청한 바 있음.

3) 수출금지

환경과 공중보건을 위해, 호박(amber), 혈액 및 추출물, 모래, 자갈, 토양 등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1992년에 수출허가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코코아, 커피, 섬유제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 수출승인이 필요함.

4) 기타

기타 제 3국과 자발적 수출규제에 관한 협정은 체결한 사실이 없음.

라. 여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1) 금융제도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환전소의 3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21%-30%에 이르는 고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대외교역과 관련해 1991년 1월 환전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외환구입시 4.75%의 수수료를 부과하다가 10%로 대폭 인상하고, 다시 2004년 12월 28일에 13%로 인상하였음. 환전소는 환전 시, 외환의 원활한 공급을 이유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음.

2) 지적재산권

도미니카(공)은 2000년 6월 WIPO 에 가입하였으며 1996년 제 1차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저작권, 산업재산권에 대한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2000년 5월 10일 법률 제 20-00호에 의거 산업재산권법을 제정 관련사항을 보호하고 있음.

3) 분쟁해결

1996년 제 1차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아직 법적인 제도완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WTO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위원회에 관련 조치를 보고한 적이 없음. 불공정 무역관행 및 긴급수입제한과 관해서는 2001년 12월 11일 관련 협정을 비준하였으나 국내 법규는 완비하지 못하였음

4) 정부조달

정부조달과 관련해서는 다자간 협상 참가국이 아니며 전체 정부조달 규모는 '95년 55억 페소에서 '99년 100억 페소로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관련 국내법규는 1966년 6월 30일 제정된 법률 제 295호와 정부조달 및 계약관련 대통령령 제 262-98, 2001년 2월 제정된 법률 제 27-01호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내기업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라. Leonel Fernandez 대통령(당선자)의 경제정책 기조

2004년 8월 16일 정권을 인수받게 되어 있는 Leonel Frenandez 대통령(당선자)는 우선 Hipolito 대통령의 경제실정을 바로 잡기 위해, 경제안정과 성장의 회복" 이라는 경제정책 기조 위에 물가안정, 환율안정, 전력안정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음.

56. 금융통화제도

<은행제도>

은행제도 관련 중앙기구로는 중앙은행(Banco Central), 금융위원회(Comision Monetaria), 은행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 등이 있다.

중앙은행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목표로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 화폐 발행, 자국화 평가조정 등을 담당하며, 중앙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위원회는 중앙은행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외환 시장, 환율, 신용카드 발급, 구좌개설, 은행의 영업 활동 관리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은행감독원은 국내에 설립된 모든 은행을 감독하고 정책을 집행한다.

은행은 설립목적과 영업활동의 범위에 따라 상업은행, 개발은행, 저당은행, 신용금고 등 특수목적은행과 영업활동 분야가 가장 광범위한 복합서비스 은행(Multiples servicios) 등의 2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92년 복합서비스 은행제도가 시행된 이후 많은 상업은행이 복합은행으로 전환하였다.

2003년 Baninter은행의 대규모 부도사태이후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관에서 도미니카의 불건전한 은행시스템을 개선하려고 권고하고 있고, Leonel 대통령도 금융제도 개혁을 대선공약으로 내놓고 집권 후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감독기능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타 신용기관>

특별금융기관으로서는 개발은행을 들 수 있는데 이 은행은 농업, 관광 및 공업, 서비스 및 교통산업 등에 대해 중장기 융자를 취급하고 있다.

다만 외국회사들의 경우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 없이는 1년 이상기간의 신용을 제공받지

못하며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 등을 통해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다.

<증권시장>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유무역지대 기업은 은행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뒤 일반인에게 채권 및 주식 판매가 가능하다.

증권시장은 1991년에 운영을 시작한 Bolsa de Valores de Santo Domingo(BVSD)의 17개 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된다. 중개인은 관계법에 따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BVSD 이외의 다른 미등록 중개인들도 거래할 수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상법은 주식의 발행 및 판매만을 규정하며, 상법상 기업들은 채권이나 기타 증권 등을 자유로이 발행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제도들이 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 중에 있다.

57. 주요산업동향/광업

<개요>

스페인의 식민지 시절인 1905년 'Pueblo viejo y Buenaventura 금광'으로부터 시작된 도미니카공화국의 광산개발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Rosario Dominicana 광산, Falconbridge Dominicana 광산개발로 최고의 호황을 맞이하여 1977년에는 2억불 수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4.5%를 정점으로 쇠퇴기에 접어들었음.

그러나 2000년에는 주력 수출상품인 페로니켈의 수출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전체 광업성장률은 9.2%에 달하였다.

전반적인 생산량 감소와 국제시세 하락으로 '99년중 마이너스 1.5%의 성장률을 보인 광업부문은 Rosario Dominicana사가 폐업하면서 금과 은이 '98년대비 50%이상의 생산량 감소를 나타냈으며, 니켈은 국제원자재 시세하락과 운영비 부담으로 Falconbridge Dominicana사가 '99년 1-2월 조업을 중단하면서 '98년대비 3%의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나 2000년 들어 수출이 237.4백만불로 전년대비 65%증가하면서 활황세를 나타냈으며, 2003년과 2004년에는 폐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단가인하 효과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

반면 석회석과 모래는 현지의 건축경기 호황과 생산설비 근대화를 통해 90년대 후반부터 생산이 증가되었다.

<자원개발 현황>

지난 '80년대 이후로 대리석과 석회석을 중심으로 많은 광산개발이 있었으며, 현재 개발 및 탐사가 진행되거나 예정된 건은 290건이다.

개발자원은 금속의 경우 금, 은, 니켈 등이, 비금속은 대리석, 규조토 등이 주종을 이룬다.

<자원개발 절차>

법률146-71호(광산법)과 시행령 262.99에 근거하는 자원개발 절차상, 국토내 매장 광물은 국가의 소유로서 양허계약을 통해 서 자원의 개발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며, 토지에 대한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의 남부지방에 노천광과 미개발된 광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누구도 광원을 발견하여 신고하면 탐 사 및 개발을 위한 양허신청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자원개발은 특정지역 지층에 대한 기술적 과학적 조사를 수행하는 탐사(Exploration)와 자원의 개발과 제련 및 추출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Exploitation)로 구분되며, 탐사와 개발에 대한 양허기간과 면적은 각각 최장 3개년과 75년, 최고 30,000헥타아르와 최고 20,000헥타아르로 제한하여 상공부 광물청에서 승인하고 관리한다.

자원개발권 자에 부과되는 제세금은 개발로알티(연1회 개발면적 기준), 수출세(FOB기준 5%), 소득세(연1회, 순수익의 40%) 등이다.

외국인 기업이 자원의 개발과 설비의 양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으로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탐사를 위해서는 광물청에 정관 등 법인등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영기업 현황과 우리기업 참여가능성>

현재 국영기업 전반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중에 있어 탐사를 완료하고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광산에 대한 양허권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자원개발 참여가 가능하다.

58. 주요산업동향/교통,관광업

<교통>

도미니카(공)은 2000년대를 대비하여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원으로 'concho'라고 불리는 택시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열악한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현대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0년 후의 도시교통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연차 별 조치를 제시하고 있는 동 계획에 의하면, 교통행정, 대중교통수단, 도로관리, 조직정비 등의 부문별로 세부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다.

추진과제는 교통 및 운수관련 조직 및 정책부문과 대중교통 관련 수단 및 도로정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운수업자의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정부의 세금감면 조치와 버스도입(Rutas troncales de Metrobuses)의 도입과 버스전용차선(Canales Exclusivos de autobuses)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2000년8월16일 출범한 Hipolito 정부는 대중교통 근대화를 위해 대형버스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스페인 경험자금을 활용해 노후택시 교체를 위해 2천대의 신규택시를 도입한 바 있다.

고속도로는 산토도밍고시를 중심으로 '⌒'자 형태로 북쪽 과 동쪽, 서쪽으로 3개 노선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간을 연결하는 노선의 부족으로 수도권 지역의 병목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기존 고속도로에 대한 보수와 확장공사와 함께 장기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남북종단 고속화도로의 건설을 구상 중에 있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는 전무하며, 산토도밍고 수도와 지방도시간, 지방도시간에는 시외버스 노선이 마련되어 있으며, 도로는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총 연장 28,000km의 도로가 전국에 연결되어 있다.

항만시설은 전국에 13개 항구가 있으나, 현재 3개소만이 적정수준으로 가동 중이며 수도인 산토도밍고에 위치한 HAINA 항구에 물동량이 집중되어 해운의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항은 전국적으로 28개(포장 13, 비포장 15)가 있으며 최근 국제공항 근대화의 일환으로 LAS AMERICAS공항을 민영화하여 2001년 중 확장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관광업>

태양, 해변, 자연 등 카리브의 천혜적인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93년 이후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관광산업은 태풍의 피해로 인하여 '98년도에 4.7%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그쳤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외화수입액이 30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총 수출액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카리브연안국에서 관광호텔 객실이 가장 많은 도미니카(공)은 2004년 말 현재 52,412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약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4개국으로부터의 관광객이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59. 주요산업동향/농림수산업

<개요>

도미니카공화국의 농축산업은 중미·카리브 연안국중 가장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기계화와 현대화가 더디게 이루어짐에 따라 최근에는 중미공동시장과의 자유무역 거래를 앞두고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개발은행의 영농지원 자금이 고갈 등 정부의 지원부족이 계속되어 온 탓에 상품의 분류와 포장, 운송 등의 과정의 합리 화가 진행되지 못하던 농축산업은 '98년 9월의 태풍 죠지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겪으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었다.

정부에서는 농축수산부문 육성을 위하여, 산동물을 포함한 동식물 생산품과 조제식료품, 화학공업 및 연관생산물, 포장용 플라스틱 및 지와 판지류, 비금속제 농기구와 기계류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0'세화(법률 150-97, '95.21)한 바 있다.

특히 2000년 취임한 이보리도 메히야 대통령이 농업분야 전문가로 향후 정부의 농업분야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시켰으며, 2004년 취임한 레오넬 대통령도 지속 농수산분야를 육성중에 있다.

98년 태풍 조지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1.5%성장을 보인 농업부문으로 인해 전체 성장이 1.1%에 머물렀던 농축수산업은 '99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면서 농업 5.2%, 축산업 8.8%, 임업 및 수산업 4.5% 등 전체적으로 평균 6.8%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2000년대 들어서도 보이고 있으며 2004년도에도 농업은 지속 안정세에 있다.

<농업>

주 농산물은 사탕수수과 카카오, 커피, 담배 등이 전통적인 수출농산물로 자리를 잡아 왔으나, 최근에는 플라타노, 코코넛, 쌀, 화훼 및 채소 등 비 전통적 농산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서부 시바오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담배산업으로 '97년 이후 제1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으나 '99년 국제시세의 급락과 국내사정으로 62%의 생산액 감소를 가져왔다. 산업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사탕수수 산업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운송 인프라의 부족, 노동력 부족에 따른 수확의 지연 등으로 '99년에도 전년대비 11.6%의 생산감소를 가져왔으며 정책자금의 지원부족으로 체계적인 합리화가 진행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유기농을 중심으로 농업이 활성화를 보여 2004년도에는 10% 이상의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축산업>

소, 돼지, 닭을 중심으로 하는 축산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며 '99년에도 돼지고기의 22.6% 생산증가를 비롯해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다. 쇠고기는 가뭄과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로 1995년 이후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양계산업은 설비의 확장과 과학화로 생산 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99년도 돼지는 수년 전 돼지콜레라 병의 전염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 추세는 2000년대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다.

<수산업>

다양한 어종의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공처리를 위한 산업화가 매우 부진하고 정부의 지원이 가장 취약한 부문이나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 증가세를 나타내 '98년에는 4.5%, '99년에는 5.0%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동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3.4%의 성장세를 보였다.

60. 주요산업동향/에너지산업

<개요>

35년간 도미니카공화국의 가장 큰 문제로서 날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도미니카(공)의 전력 수요는 현재 피크타임기준으로 1,150MW이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가정할 경우 전력소비는 매년 10%씩 증가하고 2005년에는 2,800 Mw의 전력소비가 예상되고 있다.

만성적인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전력산업은 국영전력공사인 CDE의 3.0%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발전회사로부터의 전력구입이 26.8% 증가하여 10.7%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발전 부문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Destec, Grupo Ysabe la de Puerto Plata, Smith & Enron 등 3개 회사는 동기간 각각 74.7%, 55.7%, 19.0%의 발전량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 동안 국영전력공사의 발전설비 가동률은 평균 44%를 밑도는 가운데 사설전력회사(IPP)에 의존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만성적인 전력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국영전력공사(Corporacion Dominicana de Electricidad)를 발전 3개사, 송전 1개사, 배전 3개사, 기술지원 1개사 등 8개사로 분리하여, 발전 2개사, 배전 3개사 등 총 5개사 주식의 50%를 국내외 민간투자자에 판매하고 경영권을 이양하는 국영전력공사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발전과 전력수급>

현재 발전설비는 화력 1,908MW, 수력 399MW로 총 2,307MW로 발전용량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 발전량은 화력 848MW, 수력 388 MW 수준으로 각각의 설비 가동률은 44.4%, 97.2%에 머무른다.

피크시 전력수요는 1,450MW이나 공급량은 1,158MW로서 79.9%의 공급률에 그치며, 용도별로는 가정용이 가장 많은 38%이며, 그 다음이 산업용, 상업용, 공공기관의 순으로 각각 35%, 20%, 7% 등이다. 발전 연료로는 디젤(41.4%)과 증기발전(33.9%)이 주종을 이룬다.

발전부문의 민영화는 '99년 5월의 국제입찰을 통하여 설비보수를 위한 투자부족으로 전체 가동률이 78%에 그치던 화력발전소 31개소가운데 Seaboard사가 17개 발전소의 총 설비능력 583메가와트의 이타보(ITABO)발전소를, New Caribbean Investment사는 14개소의 총 설비능력 663메가와트의 하이나(HAINA) 발전소로 구분, 각각 경영권을 이양하였다.

발전 2개사는 향후 3개년간 매년 100메가와트의 발전량 증가를 조건으로 하여, 총 금액 291.6백만불은 전액 설비교체 및 보수에 사용될 예정으로 있다.

도미니카는 2004년부터 고유가시대를 맞아 2005년 6월에 대체에너지 개발 및 전기절약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풍력발전 및 태양열 에너지 개발 추진 및 에탄올과 알코올을 혼합한 가솔린 사용 등을 추진중에 있다.

<발전 플랜트 도입현황>

도미니카(공)의 대형 발전설비 시장은 핀란드계 바질라와 독일계 만, 지멘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특히 대형 디젤발전은 바질라와 만이 그리고 스팀터빈 발전은 지멘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한국은 하도급 형태로 국내의 H 중공업이 보일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디젤발전부문에서 푸에르토리코에 지사를 두고 있는 바필라는 도미니카(공)내에 Work Shop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부품 및 A/S를 추진하고 있으며 1억불 이상의 대형발전소 설립 입찰의 경우 발주초기단계에서 도면작성을 위해 30만불 정도를 미리 수수할 정도로 강한 경쟁력과 현지 인식 도를 가지고 있다.

대형발전기 부문에서 현지에서 선호하는 스펙은 오리물전 오일을 사용하고 Slow 스피드의 300 Revulsion/Unit 엔진에 관심이 많다. 아울러 현지의 열악한 전력사정에 의거 일반 상가나 대형 사무건물, 호텔의 경우는 최소한 1MW에서 10MW정도의 자가발전설비의 도입이 필수적인 바 표준모델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현지 마케팅을 추진하면 발전기 부문의 진출이 유망 시 된다.

<송전과 배전>

현재 송배전 설비현황은 송전선 138kv급과 69kv급이 각각 456Km, 1,419Km가 각각 설치(총 투자규모 1억5천만불)되어 있으며, 716.7Km, 12Km가 추가(총 투자규모 8천7백만불)로 설치되어야 한다.

월 전기소비량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남부 및 동부는 약 219MW, 북부는 159MW 수준이나, 송배전시 전력의 손실과 가입자의 불법 도전행위 등으로 인하여 요금 징수율은 지역별로 남부와 동부 120MW, 북부는 87MW수준에 그친다.

국영전력공사에서 분리된 NORTE, ESTE, SUR사등 배전 3개사는 '98.4.17일 본입찰 결과, 기준가격 2억6천5백만불을 21.43% 상회하는 3억2천1백만불에, Union Fenosa(북부), AES Distribucion Dominicana(남부, 동부) 등 2개사에 낙찰되어 경영권을 이양한 바 있다.

배전 2개사는 향후 4개년간 전기료 인상이 동결된 조건에서 배전 효율성 제고와 도전 방지 및 요금체계 개선을 위하여 총 32 1.2백만불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 송배전용 전선, 철탑, 계량기 등에 대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61. 주요산업동향/의약품 시장동향

의약품 시장동향

1. 수요동향

도미니카(공) 의약품 시장은 연간 총 규모가 약 2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중 약 75%가 수입품으로 구성되어있고 약 85개에 달하는 국내생산 업체가 100% 원료수입을 통해 의약품을 제조 공급하고 있음

가장 수요가 많은 의약품은 Antibiotics(항생제) 와 Anti-inflammatory (항염증제) 계통으로 병원, 약국 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수입수요도 가장 많음

도미니카(공) 보건부에 의하면 현재 주재국에는 일반인들에게 직접 약품을 판매하는 2,226개의 약국과 727개의 공립병원 및 150개의 민간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의약분업 실시로 의사는 수술용 의료용품 및 의약품 이외에는 처방만하고 환자는 약국을 별도 방문하여 의약품을 구입함

이에 라 정부조달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의약품 판매상은 각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을 순회하며 관련 제품을 홍보 및 샘플을 제공하고 있음

2. 수입동향

도미니카(공) 의약품 수입은 2004년 중 US\$170,809,877에 달하였으며 동 금액은 순수한 의약품만 포함된 것으로 국내업체의 의약품 생산을 위한 의약품 원료를 포함하면 수입실적은 크게 확대됨

현재 도미니카(공) 의약품 시장의 주요 공급국은 미국이며 다음으로 독일, 프랑스, 파나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엘살바돌, 벨리스 등이 주요 수입국임

한편 국내 제약회사에 의해 100% 수입되고 있는 의약품 원료는 주요 공급 국이 미국, 유럽, 아시아(중국, 인도) 순이며 50%이상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음

3. 생산동향

도미니카(공) 보건부에 의하면 현재 85개의 의약품 제조업체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원료의 100%, 반제품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현재 8,000종의 13,000여 등록제품이 국내 생산업체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INFADOMI(의약산업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국내 총 소비의약품의 50%선을 제조 공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아울러 도미니카(공)에는 다국적 제약업체의 진출이 없으며 지사형태로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제조보다는 직수입을 통한 판매에 치중하고 있음

4. 유통동향

모든 의약품은 수입자 및 제조사에서부터 정부조달 및 일반판매의 두 가지 채널을 거쳐 일반인에게 약품이 공급되고 있음

정부조달의 경우는 PROMESE(Programa Medicamentos Esenciales)라는 의약품 조달기관을 통해 공공병원 및 약국으로 의약품을 공급

- Programa Medicamentos Esenciales (PROMESE)
- Contact Person: Mr. Modesto Antonio Sanchez
- Add: Calle H #15, Zona Industrial de Herrera
- Phone: 1-809-518-1313
- Fax: 1-809-534-0820
- 일반판매의 경우는 수입상이나 제조사가 직접 외판원 등을 통해 약국이나 일반병원을 방문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제조사 및 수입상의 마진율은 약 35-43%선에 달하며 일반 약국이나 병원의 경우 약 30%의 마진율을 책정하고 있음

5. 수입관리제도

도미니카(공)은 마취제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보건부 의약품 등록절차 및 상공부 상표등록을 마치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음

- 마취제등 일부 의약품은 별도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매번 수입시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함

- 의약품 등록관련 비용 : 7,000페소 (1불=28.6페소내외)
- 등록소요기간 : 약 90일 내외 (실제로 약 6개월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한편 수입등록을 취득한 일반 의약품은 수입시마다 상업송장 사본을 보건부에 제출하고 수입신고 후 세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제품을 통관함
의약품 수입허가 및 등록과 관련해서는 보건부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상공부가 상표등록관련 업무를 맡고 있음

- Secretaria de Estado de Salud Publica (보건부)
- Contact Person: Mr. Joaquin Rodriguez, General Dir.
- Phone: 1-809-541-3121 / 565-2251
- Fax: 1-809-544-4337
- Add: Av. Tiradentes esq. San Cristobal, Santo Domingo
- E-mail: sespas@codetel.net.do

6. 주요 수입업체 리스트

1) Alter, S.A.

Contact Person: Iltania Sosa, General Manager

Add: Calle Felix Evaristo Mejia #243

Phone: 1-809-565-8802

Fax: 1-809-563-3937

동사는 30년 경력으로 대부분의 의약품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수입하고 있음. 일부 유아용 식품류도 수입 판매하고 있음

2) Chemicals Laboratorios. S.A.

Contact Person: Mr. Nelson Francisco Peralta, General Manager

Add: Calle Restauracion #53, La Vega

Phone: 1-809-573-1518

Fax: 1-809-573-6180

동사는 25년 경력으로 연간 약 백만불의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음. 대부분의 의약품을 스페인에서 수입하며 일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3) Contifarma C. x A.

Contact Person: Mr. German Polanco, President

Add: Calle Jacinto Ma?n #8, Urbanizaci? Para?o

Phone: 1-809-565-3761

Fax: 1-809-541-6484

동사는 5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재국 의약품 조달청인 PROMESE에 vitamins A, B, Cod-liver Oil 등을 납품하며 대만에서도 상당량의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음. 연간 컨테이너 40-50개를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 이태리, 영국 등지에서도 수입하고 있음. 한국기업과 거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4) Dr. Manelic Gasso Pereyra C. x A.

Contact Person: Mr. Jordy Gasso, General Manager

Add: Avenida Luperon No. 80, Apdo. 1671, Herrera

Phone: 1-809-530-3340

Fax: 1-809-530-3395

20년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cancer, antibiotics, neurologist, diabetes, vitamins 제품을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태리, 멕시코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5) Empresa Medica, S.A.

Contact Person: Mrs. Patricia Lopez, General Manager

Add: Eugenio Deschamps No. 35, Los Prados

Phone: 1-809-227-8806

Fax: 1-809-334-1211

동 사는 20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유럽, 미국, 멕시코로부터 다양한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일부 아시아산 제품을 파나마를 통해 수입하고 있음

6) F. Reyes & Co. C.x A.

Contact Person: Lic. Freddy Reyes, President

Add: Juan Sanchez Ramirez No. 37, Apdo. 2035

Phone: 1-809-689-7895

Fax: 1-809-686-5098

동사는 30년의 경력으로 일본으로부터 Vitamins A, B, E, Iron, antibiotics, pediatrics 등을 수입하고 있음. 한국업체와의 거래를 희망함

7) J. Bono Bono, C. por A.

Contact Person: Mr. Jose Bono, General Manager

Add: Av. Pasteur No. 254, Apdo. 4551, Gazcue

Phone: 1-809-688-0339 / 685-3888

Fax: 1-809-685-3989

22년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의약품을 미국, 멕시코, 스페인, 독일, 이태리 및 파나마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음

8) Elipesa Pharmaceutica

Contact Person: Mr. Irving Perez, Executive Director

Add: Av. 27 de febrero casi esq. Av. Isabel Aguiar, Zona Ind. de Herrera

Phone: 1-809-530-5424

Fax: 1-809-531-1264

제조업체로 시작해 수입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로 40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약품을 스페인, 이태리, 에쿠아돌, 독일 등지에서 수입함

9) Gefarca C.x A.

Contact Person: Mr. Ivan Perez Espinosa, General Manager

Add: Av. 2da. #3, Las Caobas

Phone: 1-809-561-0475

Fax: 1-809-564-0527

12년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vitamins A, E, Iron, Antibiotics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음. 현재 이태리, 미국, 독일 등지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업체와의 거래를 희망하고 있음

10) Laboratorios Victoria, C. x A.

Contact Person: Mr. Raymundo Victor, General Manager

Add: Calle Pedro Franco Bono #34, Santiago

Phone: 1-809-582-4922

Fax: 1-809-583-9191

32년 경력의 도미니카(공) 북부지역 최대 의약품 수입상으로 주로 멕시코, 미국 스페인, 이태리 등지에서 다양한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음. 주 품목은 ophthalmologist medicines이며 한국기업과 거래하기를 희망함

62. 주요산업동향/자동차산업

도미니카 자동차 산업

도미니카, 자동차 판매 급증세

도미니카공화국은 그 동안 긴 경기침체에 벗어나 2005년 들어서 자동차판매량이 2004년 월 평균대비 30%나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미니카공화국 자동차수입에이전트협회(ACOFAVE)에 의하면, 이러한 자동차 판매 급증추세는 달러가치의 하락 때문이라고 밝히고, 1만 달러에서 2만5000달러 사이에 공급되는 영업용 및 가정용 승용차와 소형트럭이 소비자의 주요 수요 대상이 되고 있다고 알렸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최근 3개년간 극심한 환율불안에 기인한 경기침체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했었으나, 2004년 8월 정권 교체 이후 달러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한 것에 판매량 급증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동차 판매량은 2002년에 2만4457대, 2003년에 1만3064대, 그리고 2004년에는 1만2032대로 판매량이 계속 감소했었으나, 달러가치의 하향안정세를 바탕으로 2005년에는 1만4000대 이상의 판매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자동차 수요증가로 인해, 현재 도미니카에서는 신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주문해야만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며, 한국산 현대, 기아, 쌍용, 대우자동차도 모두 예외 없이 주문이 밀려 있는 상황이다.

한국산 자동차 수요 급증

도미니카공화국은 2003~2004년간의 극심한 경기침체를 벗어나 전반적인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구매력이 되살아 나고 있다. 이러한 경기회복의 신호탄으로 2004년 8월 정권 교체된 이후 하반기부터 그 동안 억제돼 있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미니카공화국 자동차수입유통협회(ANADIVE)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부터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5년 6월 현재까지 급증했다고 밝혔으며, 한국무역통계 기준으로도 5월 현재까지 무려 763.3%가 증가한 13,662천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이 현대자동차 수입에이전트인 Magna Motors, 기아자동차 수입에이전트인 Viamar사, 대우 및 쌍용자동차 수입에이전트인 Avelino Abreu사를 접촉한 결과,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수입량을 증가시키고 있고,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임을 확인해 줬다.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중에서 Terrakan, Santa Fe, Carnival, Rexton, Tucson 등 레저용 지프형 차량이 인기가 가장 많은 상태이며,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수입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금년도 우리나라의 대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에 청신호를 밝혀 주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 도미니카 자동차 수출통계>

(단위 : US\$천)

연도	2003년 (증감률)	2004년 (증감률)	2005년 1~5월 (증감률)
금액	20,887 (-79.0%)	14,963 (-28.4%)	13,662 (763.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통계 2005년5월 통계)

63. 주요산업동향/정보통신산업 현황

<도미니카 전화보급률 중미 최고수준>

회선수 340만 상회

도미니카공화국은 중미·카리브 국가 가운데 가장 전화보급률이 높은 국가중 하나로 부상했다. 즉 국민의 38.8%가 전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사용 중인 유선 및 무선을 포함한 회선수가 340만을 상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미니카국가통신위원회(INDOTEL)의 Jose Rafael Vargas가 밝힌 통계자료에 의하면, 유무선 통신분야는 도미니카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며, 국내 총생산의 9.6%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선전화는 93만7천 회선으로 2004년도는 2003년 12월 대비 3.1%에 해당하는 2만8562대가 증가한 셈이다. 무선전화의 경우도 동기 대비 15.9%에 해당하는 33만7424대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전화의 경우 주택용은 2만7590 회선이 증가하여 현재 63만1527 회선이 서비스되고 있으며, 상업용은 2004년도에 2003년 12월 대비 2.9%가 증가한 1251회선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도미니카는 유선전화만의 보급률은 현재 10.7%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무선전화의 경우 디지털 무선전화의 성장과 대비하여 아날로그 방식은 8만567 회선이

감소했다. 무선전화 전체적으로는 2004년 3/4분기까지 45만1710라인의 신규 회선이 증설돼 2003년말 대비 24.2%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미니카는 현재에도 VERIZON, TRICOM, ORANGE, CENTENNIAL사 등 통신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경쟁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정전사태로 대변되는 전기사정은 중미·카리브국가중 가장 열악한 반면, 통신사정은 중미 국가중 앞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도미니카, 인터넷 사용인구 급증>

도미니카국가통신위원회(INDOTEL)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833,91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위원회의 Jose Rafael Vargas 위원장은 최근 2년간에 등록된 인터넷망 사용자가 60%가 증가한 도미니카 인구의 5.6%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인구 100명당 환산할 경우 9.5명꼴로 인터넷망 접속을 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전세계의 인터넷망 사용자 가운데 중남미지역의 인터넷망 사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이며, 최근 2년간을 놓고 볼 때 수치상 70%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중남미 지역도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계은행과 국제통신연합(UIT)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은 중남미국가 중에서 휴대전화 보급률 면에서 멕시코와 자메이카보다 앞서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와 동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과 무선전화 등 통신분야는 중남미에서 최상 수준의 국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도미니카의 이러한 통신분야의 성장은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후 외국계 자본의 투자가 급속히 증가해 기반시설 확충 및 사용인구 저변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64. 주요산업동향/제조업 일반

<제조업 기반 취약, 대부분 공산품 수입에 의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식음료나 일부 내수 위주의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96년에 자유무역지대의 성장부진으로 3.7%의 성장에 그쳤던 제조업은 '97년에는 제조업에 대한 금융확대, 전력공급의 확대 등과 함께 사탕수수, 일반제조업, 자유무역지대 부문 등 고른 성장에 힘입어 7.9%의 성장율을 보였다.

'98년에는 자유무역지대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해로서 생산량, 수출액 등에서 각각 전년대비 7.6%, 14.0%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임주업체도 67%가 증가하고, 특히 원부자재의 국내소싱 증가율이 18.1%로 나타났다.

지난 '98년에는 태풍 조지로 인한 피해로 사탕수수 가공산업이 전년대비 생산량이 22% 내외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생필품과 식음료 중심의 내수업종과 자유무역지대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5.0%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2004년도에는 전년대비 5.6%가 증가했으며, 제조업 수출품목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다.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자유무역지대 수출도 작년 동기대비 2004년에 3.96%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2003년에 이어 2004년도에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부문을 제외한 내수부문은 30-50%나 수요 및 생산이 감소한 상태이다.

2005년 들어서는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에 따라 제조업이 경기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5. 주요산업동향/중고자동차 시장동향

중고자동차 시장동향

1. 시장개요

도미니카(공)은 최근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사업의 활성화로 건축자재 운송과 근로자들의 교통수단으로 필수적인 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하여 최근 자동차 판매 업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현지 자동차 시장은 일본 자동차 40%, 유럽 자동차 30%, 미국 자동차 16%, 한국 자동차 6%, 기타 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 자동차는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나, 현지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큰 이유는, 고장이 없고 부품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임.

지난 97년 도미니카(공) 정부가 관광 택시로 현대 소나타3와 그레이스를 대량 수입하였고, 또한 한 고속버스 회사에선 현대 브랜드 고속버스를 수입, 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에 대중교통 근대화 플랜의 일환으로 약 8천만 불 가량의 한국산 차량이 추가 도입되었음. 또한 한국 자동차의 기술력 향상과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마케팅 전략, TV광고 효과를 인하여 한국 자동차의 선호도가 차츰 향상되고 있고, 현대, 기아 부품 전문 수입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시장성이 확대되고 있음.

현지 중고자동차 수입업체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정비소가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이유로 많은 중고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수입 즉시 판매가 가능한 A급 상태 중고자동차를 수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또한 기타 남미국가들의 중고 자동차 시장 보다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으로, 현재 다수의 한국 중고차수출업체들이 활동을 하고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업체들간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2005년 들어서는 그간 억제되었던 수요가 급증하여 중고자동차 수입도 6월 현재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수입 및 판매동향

가. 중고차 수입현황

현지 중고차 판매의 대부분은 일제자동차로 동 일제자동차는 크게 일본에서 직수입 (오른쪽 핸들)하는 경우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로 대별되며 최근 미국을 통해 수입되는

분량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01.1.1일부터 5년 이상 된 중고자동차의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물량이 충분치 못한 일제 중고자동차의 수입이 상당부분 감소될 전망이며 이를 대신해 많은 수입상들이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4-5년 지속된 거품경기가 최근 들어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고 할부금 납부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 나면서 신차 및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가 진정되고 있는 점이 한국산 중고 자동차 진출확대의 제한요인임

2003년도 들어 환율불안 등 경기침체 영향으로 신차에 대한 판매가 80%정도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었으나, 큰 증가를 시현하지는 못했지만, 2004년 5월 16일 대선을 전후해서는 고가의 일본산 중고 자동차보다는 한국산 중고자동차로 수입선을 전환하려는 현지 자동차 수입상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음. 실제로 도미니카중고자동차수입협회(ANAMARA)에 의하면, 2005년 6월 현재 회원사중 대부분이 한국산 중고차 수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음.

나. 중고자동차 판매관련 유통

현지의 중고차 판매 딜러들이 새차는 현지 공식 수입딜러에서 구입하고 중고차의 경우는 규모가 작은 딜러들도 대부분 직수입하고 있음. 현재 구색을 맞추기 위해 중고차와 새차를 함께 판매하는 딜러들이 늘어나고 있음

할부금융

아울러 현지 중고자동차 판매업체들은 대부분 30개월 등 할부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지은행등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거나 자체 금융지원을 하고 있음

3. 수입 규제 관련

현재 도미니카(공)은 2000년 말 공표된 법 제 147-00 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중고 자동차는 수입을 금하고 있음. 중고 자동차 수입 협회인 ANADIVE는 2000년도까지 5년 이후의 중고 자동차 수입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중고차 수입 제한으로 중산층이 원하는 중고 자동차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보고 정부에 147-00 법조 항을 기존의 5년 이하 수입규제에서 최고 7년 이하로 변경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사고 차량과 상태가 나쁜 차량에 대해 수입을 법적으로 규제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음

4. 중고자동차 수입판매관련 제세금

가. 중고자동차 수입통관시 세금

- 1) 수입관세 20%외 부가가치세 16% (CIF가격기준)와 13 % 환전세 및 특별소비세가 부과됨(부가가치세 및 환전세는 2004년중 대폭 인상됨)
- 2) 중고차의 경우 세관내부의 연식별 감가상각 과표기준액을 기준으로 수입가를 책정하며 2001년 7월 1일부터는 인보이스 금액과 비교해 과세함

나. 통관후 현지 판매시 부과되는 세금 (부가세 차액 및 소득세 납부)

중고차 판매시 소비자에게 16%의 부가가치세를 징수. 수입상이 통관시 세관에 지불한 16%의 부가세와의 차액을 매달 29일에 국세청에 납부. 그 외 판매총액의 1.5%를 소득세로 매달 국세청에 선지불 연말에는 일년 INCOME TAX 25%를 기준으로 12개월간 지불한 소득세 선납분 1.5%와의 차액을 납세

66. 주요산업동향/철강,금속산업

<철강산업 수준 낙후>

1960년대 국영철강회사인 Metales Dominicanos(METALDOM)을 설립하면서 활성화된 도미니카공화국의 금속가공산업은 1970년대 정부의 수입대체 정책에 힘입어 기반을 갖추어 1980년대에 발전을 계속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대외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상품의 범람으로 국내 철강산업은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Wire Rod를 사용하여 철망이나 못 등을 생산하는 선재가공산업은 국내 건설업의 호조세가 지속됨에 따라 Acero en General, S.A.(Acerotec), Acero del Cibao, S.A.(Acisa), Alambre Liso y de Pua(Alipu), Industrias Nacionales, C. por A.(Inca), Materias Primas, C. por A.(Maprica) 등 국내 5개사가 설비의 현대화, 해외 원자재 공급선 확보,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의 활동을 계속하여 중미카리브지역의 주요 선재제품 공급국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판재가공산업은 건축용 양철지붕과 철재가구용으로 아연도금 강판을 생산하고 있으나, 그 외 석도강판이나 전기강판, 기타도 금강판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기업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금속가공산업은 프레스용 금형과 기계 및 공구와 부품, 차량용 샤시부품 일부 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장비의 노후화와 기술축적의 부족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수준이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상품 규격 등에 대한 Know-how가 결여된 실정이다.

67. 주요산업동향/휴대폰 액세서리 시장

<도미니카(공), 휴대폰 액세서리시장 형성>

휴대폰은 급격히 늘어나나, 액세서리 시장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현재 도미니카(공)은 휴대폰 사용자가 약 10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지의 VERIZON, TRICOM, ORANGE, CENTENIAL사 등 유력 통신사들이 휴대폰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어 앞으로 핸드폰 사용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004년 기준 인구 100명당 27명꼴로 핸드폰 사용

그러나 이렇게 매년 늘어나고 있는 휴대폰 사용자에 비해 액세서리 시장은 활성화 되지 못하다가, 신세대층의 중심으로 휴대폰이 생활화되자 휴대폰을 차별화시키고 특색있게 꾸밀려는 경향이 나타나 액세서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도 발생하여 별도의 액세서리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휴대폰 액세서리 종류는 배터리, 안테나, 핸드폰 케이스, 핸드프리킷 등으로 한국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핸드폰 목걸이, 스티커, 미니 인형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5개 수입상이 미국으로부터 소량 수입중

현지에서 휴대폰 액세서리를 취급하는 수입상은 20여개 업체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ALI Cellular사가 규모가 제일 크며 다른 업체들은 소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새로운 핸드폰 모델이 출시 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액세서리를 빠른 시일내에 구입하고 있어 모든 모델의 액세서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소량씩 수입하고 있으며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경우에는 인근한 마이아미를 방문하여 직접 운반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가 미미하나 잠재시장성은 아주 높아

한국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핸드폰 목걸이, 핸드폰줄 등은 현지 마켓 테스트 결과 가장 대중화 되어있는 MOTOROLA, NOKIA등 모든 모델에 줄을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없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한 핸드폰 목걸이는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구형으로 크기도 크고 무게가 많아 목에 걸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시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산의 핸드폰 액세서리중 독특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인 프리킷에 대해서는 바이어들이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 신모델의 핸드폰이 현지에서 활발히 판매되기 시작하면 동반하여 액세서리 시장도 시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68. 주요산업동향/건축자재산업

< 건축자재 품목별 진출전략 >

세라믹 타일

우선 가장 많이 판매, 소비되고 있는 세라믹 타일은 FOB가격으로 1 평방미터당 미화 약 6 -7불 정도의 가격을 제시 할 수 있는 업체라면 도미니카로의 수출이 가능하다.

현재 도미니카(공)의 타일 판매업체들은 대부분 유럽과 중미에서 수입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과 품질 면에서 한국업체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PVC 천장재

PVC 천장재와 몰딩은 한국업체들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품목 중 하나이다. 최근 지난 3년 동안 PVC 천장재의 시장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실용성 또한 인정받아 많은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다.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PVC천장재를 보면 흰색과 베이지 단색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고 아울러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어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양한 색상의 PVC천장재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한국 PVC 천장재 생산업체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PVC 창틀

창틀의 경우 도미니카(공) 건축물의 약 90%가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고 약 8%가 나무 그리고 약 2%가 그 외로 되어있다. 알루미늄 샤시의 경우 한국업체의 수출이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ALUMINIUM DOMINICANA가 있고 그 업체의 컨소시엄인 CIMA라는 대형 창호제작 업체가 도미니카(공) 창호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 경쟁사인 INDUCA 역시 ALUMINIUM DOMINICANA로부터 프로파일을 공급받아 창호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 업체 또한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창호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롤라나 잠금쇠 등은 미국과 타이완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창호자재를 취급하는 한국업체에게는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하다.

PVC 창틀의 경우는 아직 현지시장에 소개가 충분히 제대로 되지 않아 시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제품이다. 현재 PVC 창틀 공급업체를 국가별로 보면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그리고 미국 등이 있다.

그러나 유럽과 북미에서 공급되는 이들 업체의 PVC 창틀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편이어서 도미니카 창호시장에서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대부분 이들 업체의 공급 창문이 시스템 창문 이어서 공급업체 또한 가격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미니카(공) 창호시장은 주로 한국과 유사한 슬라이드형 창문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업체에게는 기본적인 수출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며 더욱이 유럽과 북미업체보다 한국업체가 PVC 제품에 대해 관련하여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는 바 도미니카으로의 PVC샤시 수출이 적극 권장된다.

아울러 현재 도미니카에 플라스틱 샤시를 제작하고 가공할 수 있는 기계설비 또한 존재하고 있지 않아 플라스틱 용접 기계설비 수출상당도 시도해 볼만하다.

화장실 악세사리

화장실 악세사리의 경우 현지에서 대부분 유럽 물건을 수입해 오고 있어 국내업체의 수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품목 중 하나인데 그 동안 무역관의 상담경험으로 보아 많은 도미니카(공) 화장실 악세사리용품 취급 업체들은 한국업체에 대한 제품과 가격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나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중남미 시장에 진출경험이 있는 한국업체라면 시장진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문 시건장치

잠금쇠와 문고리 같은 경우는 제품 품질을 가격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최근 들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 동안 중국제품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가운데 많은 소비자들이 중국제품의 질과 디자인에 실망하고 점차 유럽산, 미국산 그리고 일본산 상품을 선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품질과 가격 면에서 선진국 제품과 경쟁 가능한 한국업체가 있다면 도미니카(공) 대형 철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수출 상담을 진행해 나갈 경우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방용 싱크대

최근 들어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싱크대 디자인이 구매를 결정하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공급시장이 소비자의 구미를 맞추주지 못해 한국업체의 시장진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과 미국제품은 디자인과 품질 면에서 우수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러우며 중국제와 중남미제의 가격은 좋으나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너무 낙후되어 있어 적절한 품질과 디자인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한국업체의 수출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69. 지적재산권

도미니카공화국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the Universal Convention on Copyrights, Geneva 1952), 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약(the 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y of Trademark(Madrid, 1891) 등 주요 국제협약 가입국이다.

현행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상표 및 상호법(법률 1450), 발명특허법(법률 4994), 외국인투자법(법률 16-95) 등이 적용되며, 상공부에서는 UN의 지적소유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분산된 법률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법률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발명특허권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법률4994호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술의 발명이나 발견, 새로운 물질의 제조방법과 생산 장비, 생산물 등을 개발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소유권으로서, 도미니카공화국내에서 특정기간(5, 10, 15년) 생산, 사용, 판매 등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가 보호된다.

단, 순수하게 새롭게 않는 경우와 새 발명이 공중질서나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는 무효이며, 도미니카공화국내에서 5년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3년 연속 사용이 중단된 경우, 그리고 특허권자가 발명품과 유사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는 특허권이 상실된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가진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의 발명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해외에서의 보호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상표 및 상호명 등록에 관한 법률 1450호는 상표는 유사한 특성의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하여 독특한 단어, 조건,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거나 제3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현행법상 정의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마크, 로고, 슬로건 등에 대해서는 판례를 근거로 이를 보호한다.

상표 등록은 상표의 소유권한을 부여하는 외에 첫 1년 동안의 효력을 보호하는 것이나, 첫 1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권리는 무효화된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률 32-86호는 모든 형태의 저술, 예술작품과 모든 창작품에 대한 저자의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한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건설통신부 산하의 통신국(General Telecommunication Office)는 케이블 신호와 비디오의 불법 복사, 판매, 방송에 관한 단속기구로 위반물의 압수나 영업정지 명령권을 행사한다.

70. 소비자보호

도미니카공화국은 상공부 산하 품질표준관리청의 공산품 품질관리 규정(DIGENOR) 외에 아직까지도 소비자 보호에 관해 도미니카는 특별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에 의회에서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에 있다.

71. 수입관리제도/영사송장제도

<도미니카(공)으로 수출시 영사송장 반드시 첨부>

새로운 관세평가제도로 영사송장 없이는 통관이 어려워

도미니카(공) 세관은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WTO 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관세 평가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여 2004년 6월말 현재까지 수출시 영사송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간 시행돼오던 세관 인정관세 부가가 폐지되고 수입상의 수입가격에 의해

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WTO 회원 각국간의 정보교류로 수입신고 가격의 타당성을 검증하게 됐다.

그간 도미니카(공)은 관세제도의 낙후로 수입상 단체나 세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표준에 의거 수입관세를 부과해왔으나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7월 1일부터 수입상의 송장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그러나 이 신관세평가제도의 도입으로 그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던 영사 송장(Factura Consular)에 대한 논란이 새로 재기됐는데, 2001년 7월초 산체스 도미니카(공) 관세청장은 앞으로 영사송장이 없는 통관서류는 접수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국내 수출상이 다소 불편을 겪고 있다.

영사송장(Factura Consular)은 대 도미니카(공) 수출시 통관서류에 첨부하게 돼있는 수출국 주재 도미니카(공) 대사관의 수출품 확인 영사서류이다. 그 동안 이 영사송장은 재외 도미니카(공) 대사관의 서류절차 지연 및 과도한 영사송장 수수료 징구로 많은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물품이 영사송장 없이 400달러 내외의 벌금만 현지에서 수입상이 부과하고 통관해 왔으며 도미니카(공) 정부에서도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지 세관의 관세부과가 인보이스 가격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수출물품 확인 및 언더밸류 방지를 위해 세관에서 이 영사송장을 반드시 필요로 함에 따라 외국수출기업들의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현지 외무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영사송장 발급기일은 요구서류만 갖추면 1~2일내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수출가격이 1천달러 이상인 경우 82달러, 1천달러 미만인 경우는 34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영사송장이 첨부돼 있지 않은 통관서류는 접수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대 도미니카(공) 수출서류 작성시에는 반드시 주한 도미니카(공) 대사관에서 발급한 영사송장을 첨부하기 바라며, 이 영사송장과 관련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장기간이 걸리는 등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무역관 이메일(sdqktc@verizon.net.do)로 지금 연락 바란다.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대사관이 서울에 있어 영사송장 발급을 위해 내왕이 불편한 만큼 사전에 주한 대사관으로 전화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갖춘 다음 신청당일 아침에 서류를 접수시켜 오후정도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W

2005년도에는 중미 CAFTA-미국과의 FTA 체결과 관련해서, 대 도미니카 수출기업들의 폐지 요구의 강도가 높아 FTA가 비준되면 동 제도의 폐지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 도미니카(공) 대사관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9 가든타워빌딩 1601호
- 전화 : 02-742-6867
- 팩스 : 02-744-1803
- 대사 : Mr. Hector Galvan

72. 수입관리제도/도미니카 수입관련 정책

<도미니카 수입관련 정책>

도미니카(공)은 대외 수입정책과 관련 WTO상 최혜국 대우를 교역대상국에 부여하고 있으며 2001년 7월 1일부 WTO 관세협정에 일치하는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시장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등 24개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WTO의 양허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2000년 12월 27일 법률 제146-00호로 실시된 관세인하에 따라 평균 MFN 관세는 8.6%로 도미니카(공)의 주요 수입규제 방안임.

수입상품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ITBIS(부가가치세 16%)가 부여되며 알콜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등에는 15-80%에 달하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음. 또한 환전세도 2004년 12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존 10%에서 13%로 인상을 승인했음.

또한 안전과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수입관세쿼터 등 다양한 관세, 비관세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987년 9월 29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 512-87호에 의거 수출상은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영사송장을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미화 1,000불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화 34\$, 1,000불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82\$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동 영사송장을 폐지하는 것을 지속 검토했으나, 2005년 현재까지도 계속 시행되고 있음.

2003년도는 이라크 전쟁에 따른 도미니카 폐소화의 평가절하 영향으로 2003.2.17-5.17일간 수입품에 대한 임시 수입관세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동 조치는 종료되었음. 그러나 8.29일 IMF 관리체제하에서 IMF측이 동 조치 부활을 주장하여 2003년 11월부터 다시 수입세를 고정적으로 2%을 2004년 12월말까지 부과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상태임.

73. 관세제도

관세법(법률 14-93, '93.8.4, Arancel de Aduana de la Republica Dominicana)상 세번분류는 Harmonized System 8단위를 사용하며, 첫 4단위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4단위는 자국 자체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과세기준은 수입자가 신고하는 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가격의 Undervalue를 통한 관세포탈을 막기 위해 관세청에서 보유하는 과표기준가격(Listado de Valores de Aduana)을 우선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자동차수입업자협회에서 사전제출한 모델별 연식별 기준가격을 표준으로 하고, 일반상품은 주요국의 물가정보를 기초로 산출하되, 리스트 외 상품에 첫 수입신고 가격이 기준으로 사용된다.

수입관세율은 3/5/10/15/20/25/30/35% 등 가공단계별로 8가지로 차등 적용하며, 서민생활 안정 및 정책적 진흥의 필요성이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3-15%의 저율의 종가세를 적용하고 환전세를 면제한다.(단 의약품에 대해서는 빈민층의 고통을 덜어줄 목적으로

관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을 2003.11.14일자로 철폐시킴)

- 3% : 농업용 필수원자재 및 기계류, 공공통신, 출판산업용 필수원자재 및 장비, 기계류, 비디오생산용 장비 및 기계
- 10%: 의약품생산용 장비 및 기계
- 15%: 알루미늄, 철, 강철 재질의 우유수송용 용기

특정산업에 대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관세 '0'세화하여 섬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원자재, 장비, 기계류 등 HS CODE 4단 위 기준 87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관세 '0'세화 (Decree366-97, '97.8.29)하였다.

- 50류 : 5001-5007 (7개 품목) 51류 : 5101-5113 (13개 품목)
- 52류 : 5201-5212 (12개 품목) 53류 : 5301-5311 (11개 품목)
- 54류 : 5401-5408 (7개 품목, 5405제외) 55류 : 5501-5516 (16개 품목)
- 56류 : 5601-5607 (6개 품목, 5603제외) 58류 : 5806-5808 (3개 품목)
- 60류 : 6001-6002 (2개 품목) 73류 : 7319 (1개 품목)
- 84류 : 8444-8452 (7개 품목, 8448, 8449제외) 96류 : 9606-9607 (2개 품목)

농축수산물부문 육성을 위하여, 산동물을 포함한 동식물 생산품과 조제식료품, 화학공업 및 연관생산물, 포장용 플라스틱 및 지와 판지류, 비금속제 농기구와 기계류에 대해서도 수입관세 '0'세화하였다. (법률 150-97, '95.21)

수입관련 제세는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환전세 등 4개 종목이며 3-35%의 관세와 8-60%의 특별소비세, 13%의 환전세 등은 각각 CIF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16%의 부가가치세는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74. 관세제도/관세평가 예외품목

<수입품 관세평가시 최저가격제 적용대상 품목 운영>

도미니카(공)세관은 2001년 7월1일부터 WTO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관세 평가제도를 운영한다고 발표하고 2004년 12월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관세평가제도에 맞추어 그간 세관에서 운영하던 인정 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통관서류상의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상의 언더밸류를 방지하기 위해 영사송장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도미니카(공)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WTO에 일부 품목에 대해 최저가격제 운영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최종 승인을 획득하였다.

세관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국제유관기관 및 수출 주요단체에서 책정한 기준가격으로 최저가격을 책정하고 이 가격보다 낮게 신고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인정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HS 코드	품 명
0402 21 10	우유, 크림제품
1006 30 00	쌀
2523 10 00	시멘트 클링크
2523 29 00	포클랜트 시멘트 기타
2710 00 79	윤활유
3923 90 00	플라스틱 용기 기타
3926 90 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4012 20 00	중고 타이어
4818 40 90	화장지, 기저귀, 기타위생용품
6908 10 00	타일, 큐브 7센티 미만
8415 81 00	에어컨
8450 11 00	완전자동 세탁기
8517 11 00	유선 전화기
8528 12 00	컬러 텔레비전
8703 22 99	중고자동차 1,000-1,500cc
8703 23 19	중고자동차 1,500-1,800cc
8703 23 98	중고자동차 1,800-3,000cc
8703 24 99	중고자동차 3,000cc 이상
8703 31 99	중고 디젤 자동차 1,500cc 이하
8704 21 10	5톤이하 중고 덤프화물차
8704 22 90	5톤이상 20톤이하 중고 덤프화물차
8703 31 10	5톤이하 중고 일반화물차
8704 32 20	5톤이상 중고 화물차
8711 20 19	50-150cc 중고 오토바이

75. 통관절차

<제출서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는 상업송장(Factura Comercia)사본, 영사송장(Factura Consular)원본, 선하증권(Bill of Lading) 및 선적확인서(Conocimiento de Embarque) 원본, 포장명세서(Packing List)원본, 보험료 납입증명서(Copia del Recibo de Pago del Seguro) 사본과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do de Origen) 등이다.

<통관요령>

개인, 법인 등이 직접 통관을 하거나 통관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관세청 소장 세관신고서(Formulario 1131)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은 물품명세, 물품가격, 중량, 세번 분류 등에 관한 서류심사, 선적물품에 대한 실제검사, 과표 설정 및 제세 부과, 세금 납부, 항만 창고료 납부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형식 및 규격검사>

NORDAM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국산 및 수입 공산품에 대한 표준규격으로서 DIGENOR(Dirección General de Normas y Sistemas de Calidad, 상공부 산하)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검사 시설의 미비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ISO나 원산지(또는 경유국) 자체의 품질규격 및 인증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별도의 검사를 생략한다.

76. 통관절차/수입통관시 영사송장 필요

<도미니카(공)으로 수출시 영사송장 반드시 첨부>

새로운 관세평가제도로 영사송장 없이는 통관이 안됨

도미니카(공) 세관은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WTO 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관세 평가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이후 2004년 6월말 현재까지 영사송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간 시행돼오던 세관 인정관세 부가가 폐지되고 수입상의 수입가격에 의해 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WTO 회원 각국간의 정보 교류로 수입신고 가격의 타당성을 검증하게 됐다.

그간 도미니카(공)은 관세제도의 낙후로 수입상 단체나 세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표준에 의거 수입관세를 부과해왔으나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7월 1일부터 수입상의 송장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그러나 이 신관세평가제도의 도입으로 그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던 영사 송장(Factura Consular)에 대한 논란이 새로 재기됐는데, 지난 7월초 산체스 도미니카(공) 관세청장은 앞으로 영사송장이 없는 통관서류는 접수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국내 수출상이 다소 불편을 겪고 있다.

영사송장(Factura Consular)은 대 도미니카(공) 수출시 통관서류에 첨부하게 돼있는 수출국 주재 도미니카(공) 대사관의 수출품 확인 영사서류이다. 그 동안 이 영사송장은 재외 도미니카(공) 대사관의 서류절차 지연 및 과도한 영사송장 수수료 징구로 많은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물품이 영사송장 없이 400달러 내외의 벌금만 현지에서 수입상이 부과하고 통관해 왔으며 도미니카(공) 정부에서도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지 세관의 관세부과가 인보이스 가격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수출물품 확인 및 언더밸류 방지를 위해 세관에서 이 영사송장을 반드시 필요로 함에 따라 외국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현지 외무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영사송장 발급기일은 요구서류만 갖추면 1~2일내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수출가격이 1천달러 이상인 경우 82달러, 1천달러 미만인 경우는 34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영사송장이 첨부돼 있지 않은 통관서류는 접수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대

도미니카(공) 수출서류 작성시에는 반드시 주한 도미니카(공) 대사관에서 발급한 영사송장을 첨부하기 바라며, 이 영사송장과 관련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장기간이 걸리는 등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무역관 이메일(sdqktc@verizon.net.do)로 지급 연락 바란다.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대사관이 서울에 있어 영사송장 발급을 위해 내용이 불편한 만큼 사전에 주한 대사관으로 전화문의를 해 필요한 서류를 갖춘 다음 신청당일 아침에 서류를 접수시켜 오후정도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 도미니카(공) 대사관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9 가든타워빌딩 1601호
- 전화 : 02-742-6867
- 팩스 : 02-744-1803
- 대사 : Mr. Hector Galvan

77. 유통구조

<유통구조 : 다품종 소량위주의 수입유통체제>

다품종 소량거래 위주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구매패턴으로 통상적으로 은행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무역 거래보다는 마이애미, 뉴욕, 파나마 등 인근 대도시 시장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현찰로 직접 구매하는 통한 보따리 장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소량 주문을 콘솔하는 에이전트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

주재국의 대리점계약법은 기간 만료시 계약이 자동 갱신됨을 규정하고 있어, 많은 수입업자들이 동종 업종의 많은 국내외 공급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신규 거래시 시장 독점을 위하여 대리점권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대형 수입업자는 적게는 5개사에서 많게는 30여개사의 대리점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

유통단계를 보면 일반소비재는 수입·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로, 자본재나 원자재는 수입업자-실수요자로, 내구성 소비재는 Dealer-Subdealer-소비자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입규제가 전무한 주재국에서는 컨테이너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입상이나 대형 유통업체, 도매상은 물론 일부 소매상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많다.

유통단계별 마진율은 비교적 높아 수입업자 30-50%, 도매업자 25-40%, 소매업자 30-50% 수준이며, 거래대금 지불은 일반적으로 30-60일간의 신용이 제공되며, 대량구매 또는 현금 지불시에는 최고 40%의 가격 할인이 일반화되어 있다.

도미니카(공)의 특징적인 유통업체로서 Ferreteria라는 대형유통점이 있다. 일반 식품과 가정용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Supermercado와 대별되는 형태로서 철물, 전기, 플라스틱, 공구, 의약품 등의 거의 모든 상품을 코너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수입 및 도소매하는 패턴도 다품종 소량구매가 일반화되어 있어, 이들 Ferreteria를 통한 시장촉진 활동을 위해서 는 부문별로 종합 카탈로그를 준비하여 상담하는 Package Deal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기계류 실수요자들은 수요 주기가 일반적으로 길고 거래단위가 비교적 커서, 신규 거래선보다는 제품과 A/S에 대한 신뢰가 쌓인 고정 거래선과의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별 방문 판매능력이 있는 전문 딜러를 선정,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의 관건이 된다.

78. 국제입찰제도

국제입찰제도 : 외국기업의 단독참여 제한, 내국기업에 유리

법률322호('81.7.2)과 동 시행령 578-86('86.7.15)에 의하면,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술이전을 촉진을 위하여, 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물품구입과 용역계약시 외국인(기업)의 단독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입찰참가는 내국인이 최소한 50%이상 참여한 혼합자본 기업인 경우로 제한하며, 내국기업이 외국인과의 합작기업인 경우에는 총 내국인 참여 자본비율이 30%이상 이어야 하며, 입찰 주관기관에서는 내국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Pre-Qualification 심사시 내국인 참여비율을 확인하고, 합작 내외국인 기업간 사업영역 분리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는 10,000달러(US\$357-상당) 이상의 건설공사는 입찰에 부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 공고기간은 별도의 규정없이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Comision de Aprovevisionamiento del Gobierno)의 감독을 받아 결정되나 통상 1개월인 것이 보통이다. 교량 및 도로건설, 발전소 건설 등 대형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해외의 유력업체에 대해 입찰의향서를 요청하거나, 입찰공고에 앞서 '건설통신부' 등록 내국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일반물자 구매는 1,000달러(US\$37-상당) 이상의 것이 해당되며, 발주기관, 입찰식 장소 및 시간, 응찰방법, 발주품목, 입찰 서류 판매 및 제출기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찰공고를 30일 내외의 기간을 두고 주요 일간지에 공고한다.

입찰공고가 통상 30일간의 여유를 두고 이루어짐에 따라, 입찰공고 후 내국 합작 선을 발굴하여 참가하려는 경우 입찰서류 및 샘플의 제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정기적으로 입찰을 개최하는 PROMESE(필수의약품 공급청), CAASD(상하수도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지 파트너기업을 발굴하여 정보교환과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 자체예산을 사용하는 입찰은 건설용역이나 물자구매 등이 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울러 정부의 조달물품 대금 미지급금이 1천만 불 규모에 육박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기업의 입찰참가는 실효성이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00년부터 일부 의약품을 중심으로 소량 다품종 입찰참가가 이루어 지고 있다.

공급자가 자체 금융을 지원하는 국영기업 민영화 대규모 항만 및 도로건설 사업의 경우 금융지원내용의 경쟁력이 중요 결정 요소이며, IBRD, WORLD BANK 등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차관을 재원으로 하는 입찰에서는 외국기업은 차관공여국, 내국기업, 일반 외국기업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사실상 제3국 기업의 단독입찰시 낙찰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아국기업의 현지 대형 프로젝트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경험자금의 지원이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전대자금의 확대지원이 필요하다.

79. 외환관리제도

<외환관리제도: 중앙은행 공식환율 및 민간 외환시장으로 2분화>

도미니카공화국의 법정 화폐단위는 도미니칸페소(Dominican Peso: RD\$)이며, 외환의 거래는 중앙은행에서 공식 환율로 교환되는 공공외환시장과 시중은행에서 시장환율로 교환되는 민간 외환시장 등으로 2분화되어 있다.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Official Market의 매입매도 취급분야

- 매입: 수출대금, 원조 및 니켈, 철 광산 수입 등의 각종용역 제공 등
- 매도: 산업용 광물자원수입, 정부 대외 채무 지불, 군장비 수입, 해외주재 외교관 급여

일반 상업은행이 관리하는 Free Market의 매입매도 취급분야

- 매입: 해외교포송금, 산업자유지대용역제공, Casio수입을 제외한 관광수입, Agent수입, 국내근무 외국인 급여, 기타 은행창구 거래수입 등
- 매도: Official Market에서 통제되는 수입 및 외화매도 내용을 제외한 각종 수입 및 대외지불 등

물품 및 용역수입에 따른 대금지불은 국제적으로 용인된 지불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 상업은행만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입통관은 상업은행의 외화지불을 통해 이루어진 수입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중앙은행은 수입신청서만을 검토하여 외화를 배정한다.

무역대금 결제를 위해서 수입상은 상업은행에 대해서 Pro-forma Invoice와 중앙은행에 대한 수입승인 신청서(Formulario DI 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의 외환매도 승인을 득하여 L/C, 전신환, 외상(DA, DP) 등의 수단으로 대금을 지불한다.

중앙은행의 외환매도 승인은 통상 24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와 관련 상업은행은 200페소(US\$7내외), 중앙은행은 CIF금 액의 13%(환전세)를 각각 수수료로 징수한다.

외환매도가 승인되면, 상업은행은 거래금액의 100%를 예치 받고, 지불수단별로 L/C 1.5%, 전신환 0.75%, 외상거래 0.25% 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외환송금이 가능하며, 총 투자금액은 물론 당기 배당금 총액은 물론, 일반회계원칙에 따라 처리되어 회계장부상에 나타난 자본이익 등은 소득세납부 이전이라도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자는 자산매각 및 기업청산 등을 통해서 투자원금의 본국회수가 가능한데, 중앙은행에 등록된 투자원금에서 순손실 및 세금을 공제한 액수의 송금이 허용되며, 자본소득은 매년 투자 등록액의 2% 범위 내에서 송금이 허용된다.

외국인투자자는 연간 순이익 중 중앙은행에 투자자본으로서 등록된 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실송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세납부

여부 및 순이익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다.

80.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시장규모

도미니카(공)의 시장규모는 인구 887만명, 1인당 GDP US\$2,102수준에 그치나, 경제규모에 비해 수입비중이 높은 편으로 '04년 기준 총 수입액이 54억불 수준(자유무역지대의 수출용 원부자재 28억불 제외)이며 매년 평균 8-10%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IMF 관리체제로 전락한 2003년 이후는 구매력 약화로 수입도 급감했음.

FOB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관세청 수입통계는 자체에서 조사한 과표기준 액을 근거로 하며, 통상 과표 액이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거나, 과표가 미비된 품목은 수입업자가 Sub-Valuation을 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제 수입규모는 약 40% 이상 클 것으로 추정된다.

다품종 소량거래 위주로 수입이 이루어져 은행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정상적인 무역거래보다는 마이애미, 뉴욕, 파나마 등 인근 대도시 시장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현찰로 직접 구매하는 통한 보따리 장사나 소량주문을 콘솔하는 에이전트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

시장규모가 작고 유통업체의 취급품목이 매우 다양하여 상품판매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유통구조가 전문화되거나 계열화되지 못하며, 전문 도매업자는 외판원을 고용, 전국 각지의 소매상에 견본을 제시하고 수주를 받는 주문 판매제도가 성행한다.

식품은 물론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취향이나 수요보다는 수입상이나 유통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시장에 판매되는 상품은 규격이나 디자인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계절적으로도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지역적으로는 상공업 기반이 밀집되어 있는 산토도밍고에는 총 인구의 30%내외인 20만여 명이 거주하고 특히 구매력을 가진 중상류층이 집중되어 있어 전체 소비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이상에 달하며, 산티아고는 제2의 도시로서 서북부 시바오지역의 상공활동 중심지이다.

시장특성

미국의 TV광고가 케이블 TV로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유명 브랜드이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품질이나 원산지에 관계없이 브랜드와 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전기 및 철물제품이나 섬유원단 등 각종 일상생활 관련 소비재는 소비자들의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하여 가격이 가장 중요한 구매의사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담당자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여부가 구매의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판매 후 사후관리가 보다 중요한 서비스나 내구성 소비재 등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관계와 함께 A/S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판매 Networking의 구성여부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계절적으로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서부터 1월6일 Dia de Reyes를 전후로 한 1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기업체 및 정부기관의 연말 법정 보너스 지급, 해외거주 자국민의 외화송금 등으로 약 2개월여 동안 최고의 성수기를 이루며, 어머니날인 마지막 일요일이 있는 5월중에는 내구성 소비재는 물론 가정용품과 의류, 식음료 등 전 품목의 소비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기이며, 이밖에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 7월 마지막 일요일 아버지날, 9월의 신학기초를 전후로 한 2-3주간은 의류, 문구류, 완구 등 선물용 상품의 소비가 급증한다.

유통채널로서는 식품류를 주로 취급하는 대형 슈퍼마켓, 의류 및 가정용품 중심의 대형 쇼핑센터와 쇼핑몰, 전기 및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대형 철물점 등과 차량이나 기계, 발전기 등을 취급하는 전문판매장 등이 있다.

유통단계는 일반소비재는 수입·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로, 자본재나 원자재는 수입업자-실수요자로, 내구성 소비재는 Dealer-Subdealer-소비자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수입규제가 전무한 주재국에서는 컨테이너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입상이나 대형 유통업체, 도매상은 물론 일부 소매상에서도 직접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유통단계별 마진율은 비교적 높아 수입업자 30-50%, 도매업자 25-40%, 소매업자 30-50% 수준이며, 거래대금 지불은 일반적으로 30-60일간의 신용이 제공되며, 대량구매 또는 현금 지불 시에는 최고 40%의 가격할인이 일반화 되어있다.

다수의 국내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주로 국내 소비자들 대상으로 직판이나 홍보를 목적으로 약 50-100개사가 참가하는 소규모로 개최되고 있으며, 외국기업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나, 내수판매를 위한 유효한 판촉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81. 시장특성/시장특성 및 참고사항

도미니카(공) 시장특성 및 참고사항

1. 소비특성

○ 브랜드 및 가격위주 소비

- 미국의 TV광고가 케이블 TV로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유명 브랜드이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제품을 선호

○ 계절적으로 차이가 큰 소비규모

-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서부터 1월6일 Dia de Reyes를 전후로 약 2개월여 동안 최고의 성수기를 이루며 어머니날인 마지막 일요일이 있는 5월 중에는 내구성 소비재는 물론 가정용품과 의류, 식음료 등 전 품목의 소비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기임
- 이밖에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 7월 마지막 일요일 아버지날, 9월의 신학기 초를 전후로 한 2-3주간은 의류, 문구류, 완구 등 선물용 상품의 소비가 급증함

2. 시장구조

- 수도 등 주요 도시에 시장이 집중
 - 상공업 기반이 밀집되어 있는 산토도밍고에는 총 인구의 30%내외인 220만여 명이 거주하고 특히 구매력을 가진 중상류층이 집중되어 있어 전체 소비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이상에 달하며, 산티아고는 제2의 도시로서 서북부지역의 상공활동 중심지임
- 전문 유통업 중심 대형매장이 주도
 - 주요 유통업체의 형태로서는 식품류를 주로 취급하는 대형 슈퍼마켓, 의류 및 가정용품 중심의 대형 쇼핑센터와 쇼핑몰, 전기 및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대형 철물점 등과 차량이나 기계, 발전기 등을 취급하는 전문판매장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공급자 중심의 시장형태
 - 식품은 물론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취향이나 수요보다는 수입상이나 유통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시장에 판매되는 상품은 규격이나 디자인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계절적으로도 많은 차이를 보임

3. 광고 및 판촉활동

- TV, 라디오, 신문 등이 매우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약 20%에 달하는 높은 문맹률로 사회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활동은 TV나 라디오가 주로 사용됨

4. 수입상품 유통구조

- 다품종 소량거래 위주로 수입이 이루어져 은행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정상적인 무역거래보다는 마이애미, 뉴욕, 파나마 등 인근 대도시 시장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현찰로 직접 구매하는 통한 보따리 장사나 소량주문을 콘솔하는 에이전트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음
- 유통단계는 일반소비재는 수입·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로, 자본재나 원자재는 수입업자-실수요자로, 내구성 소비재는 Dealer-Subdealer-소비자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입규제가 전무한 주재국에서는 컨테이너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입상이나 대형 유통업체, 도매상은 물론 일부 소매상에서도 직접 수입하는 경우가 많음
- 유통단계별 마진율은 비교적 높아 수입업자 30-50%, 도매업자 25-40%, 소매업자 30-50% 수준이며, 거래대금 지불은 일반적으로 30-60일간의 신용이 제공되며, 대량구매 또는 현금 지불 시에는 최고 40%의 가격할인이 일반화됨

5. 수입관리제도

- 수입업은 국세청에 등록된 주재국 국민이면 개인이나 법인에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 -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대한 사전등록과 통관시 검사 및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WTO협정상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물량 할당이나 수입허가 등의 비관세 장벽은 없음

6. 수입관련 제세제도

- 관세법(법률 14-93)상 세번분류는 Harmonized System 8단위를 사용
 - 첫 4단위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4단위는 자국의 분류기준을 사용
- 과세기준은 WTO 시스템을 2001년 7월1일부로 채택 수입상의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관리를 위해 최저가격제를 운영하고 있음
- 관세 외 수입관련 제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환전세 등 3종이 있으며 각각의 세율은 부가가치세 16%, 특별소비세 5-80%, 환전세 13% 등임
- 특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 al Consumo)는 국내상품과 수입물품, 서비스 등에 대하여 품목별로 CIF가격을 기준으로 5-80%가 차등 부과되며,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비영리 기관으로서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샘플용(관세는 부과) 수입 및 임시수입의 경우에는 면제됨
- 수입물품 대금지불을 위한 외환배정 신청시 중앙은행에서는 모든 수입 거래에 대해서 CIF금액의 13%를 환전세로 부과함(2004.12.28 기준 10%에서 13%로 인상)

수입관련 제세 산정 사례

- CIF가격 US\$100, 관세 20%, 특소세 30%인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 현지화 CIF가격 US\$ 100x 공식환율 16.45(가정) = 1,645페소임,

○ 제세금은

- 환전세 $1,605 \times 0.13 = 208.65$ 페소
- 관세 $1,605 \times 0.2 = 321.00$ 페소
- 특별소비세 $1,605 \times 0.3 = 481.50$ 페소
- 부가가치세 $(1,605 + 321.00 + 481.50) \times 0.16 = 385.20$ 페소
- 총 세금은 1,396.35페소로 CIF가격의 84.9% 수준임

82. 시장특성/시장개척시 유의사항

<시장개척시 유의사항>

1. 거래관행과 상관습

- 아시아 경제권에 대한 관심 증대
 - 주재국에 4만여 교민이 거주하는 대만 및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동남아국과의 거래경험이 있는 수입업자는 극히 드물었으나, 최근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으로 아시아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T/T 또는 D/A 선호

- 수입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미화수표 또는 미국내 은행을 통한 T/T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럽 및 미국의 거래선과 오랜 동안 외상거래를 해온 관습으로 소량 오다 수주를 기피하거나, 대금지불 수단으로 신용장을 고집하는 경우 상담 추진이 중단될 위험이 높음.

○ 보수적인 거래성향

- 현지의 수입업자들은 도미니카인, 레바논계, 스페인계 등이 많아 거래내용에 대한 대외공개를 기피하여, 거래선 전환에 매우 보수적인 경향이 남아 있고 사무실이나 공장의 간판사용이 매우 제한적임.

○ 문화.경제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개인주의적이며 자존심이 강한 반면에 합리적인 사고도 갖고 있으며 대체로 친절하고 말하기를 매우 좋아하며 상담 시 자기주장만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이 들어주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자발적인 동의를 유도하도록 상담을 진행하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음.

2. 주의법규 및 규정

○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로 포함되어야 하는 영사송장은 재외영사관 운영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과도한 수수료(건당 미화200-500불)를 부과함.

○ 국제간 물품거래에 관한 제도의 미비로 상사분쟁 사항을 일반 사설변호사가 처리하고 있고 공식적인 상사분쟁 해결기관과 제도가 없음.

3. 한국상품에 대한 인식 증대

○ 버스, 중장비, 가전제품 등 대기업 제품이 대리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광고활동을 하여 한국상품에 대해서 경쟁국인 일본대비 가격 및 품질 면에서 동등한 수준의 인지도 형성하고 있음.

○ 미국이나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등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산을 취급한 경험이 있는 수입상과 도.소매상을 중심으로 한국기업과의 직수입 거래에 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음.

4.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

- 도미니카(공)은 Ferreteria라는 대형유통점(일반 식품을 제외하고 철물, 전기, 플라스틱, 공구, 의약품 등의 거의 모든 상품을 코너별로 구분하여 운영)이 슈퍼마켓과 함께 유통을 주도
- 이들이 수입 및 도소매하는 패턴도 다품종 소량구매가 일반화되어 있어, 이들 Ferreteria를 통한 시장촉진활동을 위해서는 부문별로 종합 카탈로그를 준비하여 상담하는 Package Deal이 필요

- 기계류 실수요자들은 수요주기가 일반적으로 길고 거래단위가 비교적 커서, 신규 거래선보다는 제품과 A/S에 대한 신뢰가 쌓인 고정 거래선과의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별 방문 판매능력이 있는 전문 딜러를 선정,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상품 발표회' 개최 등의 활동이 수출촉진에 매우 주효
- 일반 소비재의 경우에는 미국 브랜드에 대한 Loyalty가 매우 높아 미국의 거래선과 공동으로 중미, 카리브지역 진출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개발 및 판촉 활동 전개로 중고가 시장창조 및 진출확대 기대

83. 시장특성/통상투자환경

<통상.투자환경>

수입정책상의 장벽

1) 개요

주재국은 대외 수입정책과 관련해 교역대상국에 WTO상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 CARICOM, 중미자유무역지대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미국과 2004년 3월 14일 FTA를 체결했으나 미 발효되었고, 다시 중미 CAFTA 5개국과 연계하여 2004.8.5일 미국과 FTA를 체결했으나, 최종 발효여부는 2005년 6월 현재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미국 부시대통령의 추진의지가 강하고 중미 5개국과 도미니카 대통령 또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높음.

2000년 12월 27일 법률 제146-00호로 실시된 관세인하에 따라 평균 MFN 관세는 8.6%로 주재국의 주요 수입규제 방안임

그러나 지속적인 시장개방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관절차, 금융시스템, 분쟁해결, 정부조달 여러 분야에서 대외교역증진 및 시장개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분야가 여전히 많음

2) 관세장벽

주재국은 1995년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01년 7월 1일부로 관세협정에 일치하는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있으며 관세율 체계는 HS체제(Nomenclature of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을 사용하고 있음

수입관련 제세는 0-20%의 관세, 알콜제품, 가전제품, 승용차등에 15-80%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16%의 부가가치세(ITBIS), 13%의 환전세 등 4개 종류임

그러나 임시수입, 수출자유공단지대 투자기업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가전제품 등 24개 특별 품목에 대해서는 WTO의 양허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동 특별관리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인정가격 기준은 세관당국의 자료미비와 절차 비투명성으로 인해 신규제품 및 모델 수입시 과다한 관세가 부과되는 등 관련 품목의 교역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수입부가금

상기 수입관련 제세외에 기타 수입부가금은 없음
통관절차상의 장벽

주재국 통관은 개인, 법인 등이 직접 통관하거나 통관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관세청의 소정 통관신고서 (Form 1131) 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통관세 제출되는 서류는 상업송장사본, 영사송장원본,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본, 보험료 납입증명서사본과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 등임

특히 1987년 9월 29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 512-87호에 의거 수출상은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영사송장을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미화 1,000불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화 34\$, 1,000불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2\$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영사송장의 경우, 과다한 비용 (한국의 경우 38만원내외, 서류비 61천원, 영사확인비 32만원내외) 징구와 시일(통상 1박2일)이 소요돼 소액 수출기업의 비용상승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4)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CARICOM과 중미자유 무역지대와는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원산지 규정상 특혜를 위해서는 HS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거나 비원산지 제품가격이 전체 가격의 7%를 넘지 않아야 함

5) 수입규제

주재국은 안전과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국내관련법과 국제협약에 의거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법 제147-00에 의거 제조 후 5년 이상 된 중고차와 오토바이의 수입과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가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1998년 3월 16일 대통령령 제 114-98호에 의거 일반적인 수입허가제는 폐지되었으나 일부 농산물, 무기, 화약류, 육류, 약품류, 설탕등의 수입시에는 관련부서의 허가가 필요함

또한 2003년 2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추가 수입관세를 10% 부과했었으나, 현재는 기간만료로 없어졌으나, 최근 극심한 환율불안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로 IMF 관리체제가 임박하면서 IMF가 도미니카 정부에 2% 추가 수입관세를 요구하여 2003년 11월부터 고정적으로 수입세 2%를 부과하기 시작하여 2004년 12월말까지

시행해 오다가, 2005년 들어 폐지되었음.

6) 덤핑 및 상계관세

불공정 무역관행 및 긴급수입제한과 관련해서는 2001년 12월 11일 관련 법규를 채택하였으나 이에 의거한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

상공부 관리하에 국회의 승인을 받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무역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WTO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위원회에 관련 조치 실시를 보고한 적이 없음

7)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1998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 114-98호로 일반적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바 있음

표준과 기술장벽 관련 WTO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차별은 없음

주재국은 식품류와 의약품에 관한 두 가지 라벨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포장과 관련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음

또한 2001년 2월 7일 제정된 건강법 제 112조에 의거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료용품, 의료기기, 담배 등 인체 보건과 관련되는 제품과 기기는 스페인어 라벨로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명기해야 함

8) 환경관련 규제

주재국은 환경보호를 위해 1984년 5월 22일 법률 제 218호를 통해 인간, 동물, 산업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8년 8월 27일 법률 제 4990호를 통해 침엽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1988년 5월 30일 법률 제 50-88호를 통해 항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 6775를 통해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73년 1월 3일 법률 458호를 통해 중고의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이외에도 주재국내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씨 등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

9) 품목별 장벽

광범위한 비관세 수입장벽이 폐지되었으나 2000년 8월 18일 제정된 법 제 64-00호(환경 및 자연자원법)등 관련 특별규정에 의거 폭발물, 유해물질, 화염물질, 방사성물질 등 본질적으로 위험한 물질은 국방부등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함

10)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2001년 주재국은 WTO에 자유무역지대(FTZs) 지원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며 관련 내역을 보고한바 있으며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동 지원제도의 연장시행에 대해

승인을 요청한 바 있음.

11)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조달과 관련해서 주재국은 WTO 다자간 협상 참가국이 아니며 전체 정부조달 규모는 '95년 55억 페소에서 '99년 100억 페소로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정부조달 관련 국내법규는 1966년 6월 30일 제정된 법률 제 295호와 정부조달 및 계약관련 대통령령 제 262-98, 2001년 2월 제정된 법률 제 27-01호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내기업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법률 제 295호에 의거 3백만페소 이상의 구매에는 공개입찰, 10만페소 이상의 구매에는 10개기업 이상의 초청입찰, 10만페소 미만에는 5개 기업이상의 제한 입찰, 그 이하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지적소유권 보호

도미니카(공)은 2000년 6월 WIP0에 가입하였으며 1996년 제 1차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저작권, 산업재산권에 대한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2000년 5월 10일 법률 제 20-00호에 의거 산업재산권법을 제정 관련사항을 보호하고 있음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련 법규는 있으나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이 철저하지 않아 지적재산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지적재산권 협회 및 미국은 의약품 등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심각함을 경고하고 관련법의 개정 등 주재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13) 서비스 장벽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환전소의 3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21%-30%에 이르는 고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대외교역과 관련해 1991년 1월 환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외환구입시 1-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현재 13%의 환전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일반 환전소는 환전시 외환의 원활한 공급을 이유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음. 동 수수료는 2001년 10월 폐지를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폐지가 유예되고 있음

아울러 현지 거래관행상 광범위한 D/A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등을 통한 적절한 지불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대금 미지불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분쟁해결과 관련해서는 아직 법적인 제도완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 대외교역증진 및 시장개방을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분야임

투자장벽

1) 개요

1995년 11월 20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법16-95)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인 투자개방 및 외국투자기업의 내국민 대우에 기여를 함으로써 '95년부터 2001년까지 총 47억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고 2001년에만 13억불의 투자를 유치하였음(2002년 9억6천만불,

2003년에는 10억불 유치, 2004년도는 6억5천만불 유치)

특히, 도미니카(공)은 FTZs(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수출증진 및 고용확대를 위해 세금 및 관세혜택 등으로 입주기업에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이 결과 FTZs에서의 수출은 1990년대 도미니카(공) 전체수출의 52%에서 2001년에는 85%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7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 109-97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OPI-RD(투자진흥청)가 설립되면서 제도적인 기반도 완비하였음

2) 투자진출제한분야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음

이밖에 공공서비스, 광산, 매스컴, 산림개발 등은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여 사전 투자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업, 광업, 어업, 기타 금융업, 보험업 등은 외국인의 주식보유지분을 최대 49%로 제한하고 있음

3) 지적소유권 제한 및 투자절차상 제한

현행 외국인 투자법은 과거의 사전 투자심사 허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통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 등록제를 채택함으로써 투자절차를 간소화하였음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한,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하여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 후에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고로 투자절차가 완료됨

4)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의 외국인 투자는 현지법인의 절차를 준용하되, 외국기업의 현지지점(사무소)로서의 소재지 등록이 필요함

5) 국산화의무 부과

주재국은 국산화의무관련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자유무역지대 입주 투자기업이 생산품을 주재국 영토 내로 판매코자 할 때는 자유무역지대 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생산품의 20%까지는 관련제세를 납부한 후 국내판매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최소한 25%이상의 국산화의무를 충족시키거나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이 없어야 함

6)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이 주재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 관련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2,000\$/F이하의 토지구입, 국내영업이 허가된 외국금융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는 사전승인이 면제됨

임대의 경우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두계약도

가능하나 서면계약에 비해 법적 효력이 미흡함

대부분의 공단내 투자기업은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

7)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연간 순수익 중 중앙은행에 투자자본으로 등록된 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실송금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세납부여부 및 순이익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음

외국투자기업의 현지 금융조달은 이자율이 높고 주재국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 없이 1년 이상의 현지금융을 조달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한국투자기업이 현지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자유무역지대 투자업체는 모든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집중제도가 면제돼 사실상 모기업을 통해 외국은행에 입금시킴으로써 현지금융의 필요성이 없음

8)세제상의 제한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나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외국기업은 소득세는 물론 제세일체가 15년간 면제됨. 아울러 하이티 국경지대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투자기업은 20년간 면제됨

현행 조세법에 규정하는 연방세로서는 소득세, 공산품과 서비스의 유통세(ITBIS), 특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는 건축세, 회사설립 및 증자세, 특허세, 영사확인 수수료등이 있으나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세를 면제함

경쟁정책

주재국내에서는 관련 경쟁정책이 다양한 법규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등)에 표 되어 있으나 경쟁정책만을 위한 법규는 완비되어있지 않음

금융, 정보통신, 전력 등은 각 관련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헌법 제8조는 일반기업의 독점금지,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법규에 의거 공기업의 독점은 인정하고 있음

형법은 민간기업의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3년 4월 27일 법 제 13호는 기본 생필품 및 서비스의 가격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2000년 11월 1일 제정된 법 제 112-00호는 상공부로 하여금 석유류 제품의 주별 소매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설탕가격 역시 통제 대상임

소비자 보호 및 경쟁정책 법안이 1998년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하였고, 최근 다시 관련법안이 상정 준비 중에 있음

기타 장벽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3개월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나 장기체류사증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의 서류심사 지연으로 최저 6개월에서 최장 2년 간 시일이 소요되기도 함

통상투자환경 개선현황

장기체류비자 취득의 애로 및 이로 인한 투자기업의 영업활동상 제약사항을 주재국 유관기관 및 OPI-RD(투자진흥청)에 건의한 결과 2001년 9월 20일 대통령령 제950-01호로 외국인 투자기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45일 내외의 간소한 차로 특별 영주권을 발급받게 함으로써 국내 투자기업의 영업활동 기반을 구축하였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주재국 운전면허로 갱신해오던 절차를 개선하여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간소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곧바로 주재국 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기업 임직원의 현지활동 여건을 개선하였음

84.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문화적 금기사항>

인종적인 차별을 나타내는 어휘 또는 농담을 삼가는 것이 좋음.

수입업자성향

- 현지의 수입업자들은 출신성분으로 분류하면 도미니카인, 레바논계, 스페인계로 나눌 수 있는데, 도미니카인의 경우 제조업에 많이 투자해 원자재 및 기자재의 수입이 많으나 레바논계 및 스페인계 수입상은 완제품 수입판매에 치중하고 있으며 자기이익 보호에 끈질긴 측면이 있음.

<수입관행>

4만여 교민이 거주하는 대만 및 중국교포를 제외하고는 미국 및 EU와 주로 거래를 해온 탓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동남아국과의 거래경험이 있는 수입업자는 극히 드물었으나, 최근 주재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으로 수입업자의 아시아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대금 결재와 관련하여 관세청의 과표액이 실제 수입가격보다 일반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수입통관 서류중 Invoice상 금액을 과표액으로 조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대금지불도 차액만큼은 대금지불을 미화수표 또는 미국내 은행을 통하여 T/T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럽 및 미국의 거래선과 오랜동안 외상거래를 하여온 관습으로 소량 오다 수주를 기피하거나, 대금지불 수단으로 일람불 신용장을 고집하는 경우 상담추진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

<거래시 유의사항>

도미니카(공)의 대리점계약법은 기간만료시 계약이 자동 갱신됨을 규정하고 있어, 많은 수입업자들이 동종 업종의 많은 국내외 공급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신규거래시 시장독점을 위하여 대리점권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단 체결되어 등록된 대리점 계약은 계약사항의 구체적인 위반이나 공급자에 대한 불이익 야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되며, 계약의 해지는 물론 갱신은 계약서 조항에 별도 명기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계약기간에 비례한 영업수익과 투자자본 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도미니카(공)은 Ferreteria라는 대형유통점(일반 식품을 제외하고 철물, 전기, 플라스틱, 공구, 의약품 등의 거의 모든 상품을 코너별로 구분하여 운영)이 슈퍼마켓과 함께 유통을 주도하여, 이들이 수입 및 도소매하는 패턴도 다품종 소량구매가 일반화되어 있어, 이들 Ferreteria를 통한 시장촉진활동을 위해서는 부문별로 종합 카탈로그를 준비하여 상담하는 Package Deal이 필요하다.

기계류 실수요자들은 수요주기가 일반적으로 길고 거래단위가 비교적 커서, 신규 거래선보다는 제품과 A/S에 대한 신뢰가 쌓인 고정 거래선과의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별 방문 판매능력이 있는 전문 딜러를 선정,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상품 발표회' 개최 등의 활동이 수출촉진에 매우 주효할 것이며, 일반 소비재의 경우에는 미국 브랜드에 대한 Loyalty가 매우 높아 미국의 거래선과 공동으로 중미카리브지역 진출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개발 및 판촉활동 전개로 중고가 시장창조 및 진출확대가 기대된다.

<비즈니스 에티켓>

현지의 수입업자들은 과거 30여년간 군부통치 시절(1930-1961)의 정부에 대한 피해의식이 남아있어 거래내용에 대한 대외공개를 기피하여, 거래선 전환에 매우 보수적인 경향이 남아있어, 사무실이나 공장의 간판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첫 상담시 명함제시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바이어와는 사전약속을 하여 상담을 갖고 시간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심적인 대비를 하여, 첫 대면시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한 카탈로그 등 상담자료는 물론 오파를 충분히 준비하여 현장에서 카탈로그와 오파를 제공함으로써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상담시 유의사항>

문화·경제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개인주의적이며 자존심이 강한 반면에 합리적인 사고도 갖고 있으며 대체로 친절한 편이나 순박하기 보다는 다소 약삭 빠른 면도 있고, 대체로 말하기를 매우 좋아하며 상담시 자기주장만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이 들어주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자발적인 동의를 유도하도록 상담을 진행하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로 포함되어야 하는 영사송장은 재외영사관 운영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과도한 수수료(건당 미화200-500불)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수출입상의 경우에는 영사송장 없이 물품 송부하고 현지에서 통관시 수입상이 세관에 400불 상당의 벌금을 납부토록 하기도하나 일반적으로 영사송장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제도가 없이 일반 사설변호사가 처리하고 있어 신속한 상사분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미니카(공)은 심각한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한 잦은 정전으로 통신중 장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수입상과의 교신은 주재국의 일과시간(한국시간21:00-07:00)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85. 상거래시유의사항/시장개척활동 참고사항

시장개척활동 참고사항

1) 거래관행과 상관습

아시아 경제권에 대한 관심 증대

- 주재국에 4만여 교민이 거주하는 대만 및 중국교포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및 동남아국과 거래경험이 있는 수입업자는 극히 드물었으나, 최근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으로 아시아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T/T 또는 D/A 선호

- 수입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미화수표 또는 미국내 은행을 통한 T/T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유럽 및 미국의 거래선과 오랫동안 외상거래를 해온 관습으로 소량 오다 수주를 기피하거나, 대금지불 수단으로 신용장을 고집하는 경우 상담 추진이 중단될 위험이 높음

보수적인 거래성향

- 현지의 수입업자들은 레바논계, 스페인계 등이 많아 거래선 전환에 매우 보수적인 경향이 남아 있음

2) 주의 법규 및 규정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로 포함되어야 하는 영사송장은 재외영사관 운영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과도한 수수료(건당 미화200-500불)를 부과함

최근 들어 동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2005년 6월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음

국제간 물품거래에 관한 제도의 미비로 상사분쟁 사항을 일반 사설변호사가 처리하고 있고 공식적인 상사분쟁 해결기관과 제도가 없음

3) 한국상품에 대한 인식

버스, 중장비, 가전제품 등 대기업 제품이 대리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광고활동을 하여 한국상품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미국이나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등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산을 취급한 경험이 있는 수입상과 도.소매상을 중심으로 한국기업과의 직수입 거래에 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음

86.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투자매력도>

도미니카(공)은 교통, 물류, 통신, 노동력, 공장부지 등 객관적인 투자여건 면에서 매우 양호한 지역이며, 특히 외국인투자 및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정책과 관심은 생산 및 영업활동에 매우 큰 잇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84년부터 카리브연안 27개국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대미 수출시 관세면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국정부의 대외정책인 CBI가 발효됨으로써, 대미 우회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각광을 받아 왔으나, 최근 NAFTA 발효이후 멕시코 대비 투자 여건이 상대적인 열세에 놓인 실정이다.

지리적으로 도미니카(공)은 카리브해의 중심에 위치하여 카리브연안국은 물론 북미와 중남미 시장접근에 가장 용이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항만설비, 해상운송서비스 등의 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세금감면의 경우 일반지역은 법인소득세를 15년간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으며, 특히 자유무역지대는 무기한으로 법인소득세, 부가세, 수입관세 등 각종 세금이 전면 면제되고 있어 세금감면 효과외에도 세무신고 등의 부담이 없어 이 부문은 여타국에 비해서 가장 강점이 있다고 하겠다.

공장부지는 중남미국가중에서 운영 및 지원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자유무역지대에는 공장건물을 포함한 임차료가 평균 US\$ 1.50-5.50 수준으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통관절차는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업체가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 늦어도 2일 이내 목적지에 도착하고 있어, 멕시코의 5일 등에 비해 매우 경쟁적인 조건인 것으로 평가된다.

과실금 송금이나 투자자본 회수에 관하여 사전승인 절차 없이 가능하며, 과실금은 송금후에 중앙은행에 사실신고 및 증빙서를 제출하며, 투자자본 회수는 60일전에 중앙은행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정도>

도미니카(공)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 및 과실금 송금제한의 철폐를 위한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개정('95.12)과, 세계은행의 다자간 투자보장 기구인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가입('96.10)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95년 NAFTA 발효이후 멕시코의 대미수출 확대는 곧바로 도미니카(공)의 수출 신장율 감소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신장율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2000년10월1일부터 Parity법안을 발효하여 도미니카(공)내 기업들이 미국산 원사 및 원단을 사용할 경우 무관세, 무쿼터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내기업들의 대미수출이 신장될되었으나, 투자기업을 통해 한국산 원부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가격경쟁력면에서 장점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국내시장의 협소로 제3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밖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점과 극심한 전력공급 부족,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인프라 미흡, 그리고 규제제도의 투명성 결여 및 관료주의 행정 등이 사전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2004년 8월 5일 중미 CAFTA 5개국과 연계하여 체결된 미국과의 FTA가 최종 의회인준을 받을 시는 투자여건이 전반적으로 보다 호전될 전망이다.

87.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여건 개요

< 투자진출여건 개요 >

가. 외국인 투자 정책 및 제도

1) 투자정책 현황 개요

도미니카(공)정부는 국내 산업발전과 실업의 해소, 외화수입의 증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 및 과실금 송금 제한의 철폐를 위한 외국인투자법 개정('95.12), 세계은행의 다자간 투자 보장기구인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가입('96.10)과 전력, 항만, 교통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신규설비 확충 및 노후설비 교체를 위한 개혁과 현대화(Modernization) 계획을 적극 추진중이다.

2) 투자유치법

현행 도미니카(공) 외국인투자법(법률 16-95, '95.12.)은 중앙은행(Banco Central)에서 IDB(Inter-American Bank)와 IIC(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의 자문으로

'90년부터 5년여 간에 걸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노력과 연구를 기초로 개정된 것으로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한을 철폐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 외국인투자법(법률 16-95, '95.11.20)과 동 시행령(대통령령 380-96호, '96년 8월)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는

첫째, 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는 필수적이라는 인식과,
둘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3) 과실송금보장제도

외국인투자기업은 연간 순이익중 중앙은행에 투자자본으로서 등록된 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실송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세 납부여부 및 순이익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다.

나. 투자인센티브개요

1) 수출자유공단을 통한 투자유치 및 인센티브 제공

도미니카(공)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한을 철폐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외국인 투자법 뿐만 아니라 1967년부터 수출자유공단(Free Zone) 육성 정책을 통해 동 공단내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전면 면제하는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수출자유공단에 입주하는 투자업체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주식 배당세 등을 제외한 법인소득세 일체를 면제하고, 법인설립관련 제세와 공장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기자재 및 건축 자재 등의 수입관세, 수출세, 상표등록세, 영사수수료 등도 면제된다.

2) 투자진흥청 (OPI-DR)을 통한 투자기업지원

한편, 도미니카(공)정부는 외국인의 현지투자지원을 전담하는 투자진흥청 운영을 통해 현지 투자여건 및 동향자료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 공단입주등과 관련한 법률, 행정, 세무, 노무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진흥청 (OPI-RD) 연락처(*최근 투자업무와 수출진흥업무를 합쳐 CEI-RD로 통합됨)

주소 : Av.Tiradentes #14, Edif. Alfonso Comercial, 7mo. Piso Santo Domingo,R.D.

Tel : (1-809) 683-6633

Fax : (1-809) 683-6641

<http://www.dr-opin.com> 또는 www.cei-rd.com

이메일: info@dr-opin.com

88.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절차 개요

< 투자진출절차 개요 >

1) 개요

현행 외국인투자법(법률 16-95)은 과거의 사전심사 허가제를 없애는 대신 통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등록제를 채택함으로써 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하여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 후에 중앙은행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고로 투자절차가 완료된다.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의 외국인투자는 현지법인의 절차를 준용하되, 외국기업의 현지 지점(사무소)로서의 소재지 등록이 필수 절차이다.

2) 회사 종류 및 설립절차

가) 회사 종류

도미니카(공)에서의 회사는 설립위치 및 활동내용에 따라 크게 현지회사, 외국인 지사, 연락사무소, 수출자유공단내 회사등 3가지로 나누어 진다

나) 현지회사 내용 및 설립절차 개요

도미니카공화국 상법(제19조 및 47조)상 영리목적의 회사형태는 합명회사, 특수합자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C.por A.(Compania por Acciones) 또는 S.A.(Sociedad Anonima)등으로 표기되는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개인회사 : 3백만 페소이하의 자본금으로 대표 한명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

Sociedad Anonima(S.A.): 자본금 한도없이 한명이상이 자본금을 합하여 회사설립

Compania por Acciones (C por A) : 자본금의 한도없이 7명 이상의 주주가 모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이상의 현지회사는 상공부의 설립허가와 국세청의 등록, 신문 공고, 관련서류 법원제출로 회사설립이 완료된다.

다) 외국인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외국인 지사등 설립은 상공부 설립허가를 생략하고 국세청의 회사 설립허가 취득 및 신문공고, 관련서류 법원 제출로 설립절차가 완료된다.

라) 수출자유공단 입주 및 회사설립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관세 및 부가세 등의 제세가 면제되는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에는 상공부 설립허가 대신 적정 입주대상 공단 물색하고 공장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출자유공단심의회에 대한 입주를 신청으로 설립허가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설립허가 취득 후에는 국세청 허가취득, 신문광고, 관련서류 법원 제출 등 일반절차와 동일하다.

3)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실제 투자자본이 유입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대위원회(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on;CNZF)에 대한 입주심사 신청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 신고를 행하면, 동 위원회에서 이를 중앙은행에 통보한다.

89. 전반적 투자여건/법인설립, 공장설립 및 청산절차

< 법인설립, 공장설립 및 청산 >

1. 법인설립

가. 수출자유공단내 법인설립

현지기업의 법인설립은 크게 일반지역과 수출자유공단지역으로 대별되며 수출자유공단내 법인설립은 수출자유공단 심의회에 법인설립 신청 및 국세청 납세신고, 설립결과 신문광고 및 법원에 관련 서류 제출로 완결된다.

1) 수출자유공단 심의회 법인설립 신청

<구비서류>

- 수출자유공단내 회사 설립 허가 신청서
- 토지 임대계약서 사본 및 공장설치 계획안 설명서
- 회사 설립 서류 및 주주리스트
- 행정수수료 및 현지 신문 광고료등 RD\$ 20,000.00지불
- 생산품목 샘플
- 투자자 지불 능력 평가 서류나 투자자 신분증

<처리절차>

매달 개최되는 심의회에서 회의를 통해 승인 결정하여 Resolucion de Consejo Nacional de Zona Franca de Exportacion 발급

1) 국세청 (Direccion General de Impuesto Interno) 납세 신청

<구비서류>

- 회사 설립 허가 신청 레터 (원본 1장, 사본 2장)
- 서반어 번역 및 英사확인 받은 회사 내규 사본

- 3267 Form (납세증 ID 신청서)
- 회사 대표 신분증이나 여권 사본
- Resolucion de Consejo Nacional de Zona Franca de Exportacion

<관련경비 및 처리기간>

- 인지대 RD\$ 4.55
- 행정처리에 5일 ~ 7일 소요되며 최종적으로 회사 설립 허가증, 회사설립 등록번호, 납세 ID카드를 발급 받는다.

3) 신문광고

국세청 납세신고가 완료되면 현지 언론사에 국세청에서 발급한 회사 설립 허가증 공고한다.

4) 관할법원 (Tribunal del Primer Instacia y Juzgado de la Paz) 서류 제출

상기절차가 완료되면 국세청에 제출한 모든 서류 사본을 법정에 제출하고 서류 접수증발부받음으로써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된다.

나.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 한편 도미니카(공) 외국인투자법은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실제 투자자본이 유입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수출자유공단지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수출자유공단관리청 (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on;CNZF)에 대한 입주심사 신청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 기업 신고를 행하면, 동 위원회에서 이를 중앙은행에 통보한다.
- 신청기관 : 중앙은행 국제부 Departamento Internacional Banco Central de la Republica Dominicana
- 제출서류
 - . 투자 금액과 지역, 업종 및 품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 공문 (수출자유공단 입주업체는 외국투자 기업 등록신청서 사용)
 - . 외환 또는 유형자산 등의 형태로 투자자본이 유입되었음을 증빙 하는 서류
 -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서류 등이다.
- 기타
 - . 소요비용은 없으며, 근무일수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확인증을 발급한다.

다. 기업활동을 위한 각종 인허가

1) 상호 및 상표 등록(Registro del Nombre de la Compania y/o Marca)

- 신청 : 상공부(Secretaria de Estado de Industria y Comercio) 산토도밍고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y Produccion de Santo Domingo)
- 신청서류
 - 상호 및 상표 등록 신청공문(별도양식 없음)
 - 신청인 인적사항
 - 상호 및 상표 설명서 및 샘플 4점이상

- 사용업종 및 품목
- 등록희망 기간
- 소요비용
 - 상호 및 상표 중복여부 조사 : RD\$1.25(인지대)+RD\$300(수수료)
 - 상호 및 상표등록 신청 : RD\$59.25(인지대)+RD\$300(수수료)+RD\$170(일간지광고 광고비)
- 처리절차 및 기간
 - 상공부는 신청인의 상호 및 상표 중복여부 확인후,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 30일 이내에 산토도밍고 상공회의소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정식 등록신청서 제출
 - 신청인의 상호 및 상표를 일간지에 공고후 4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채택 및 등록

2) 사업자등록(Iniciacion de Actividades)

- 신청 : 상공부(Secretaria de Estado de Industria y Comercio)
- 신청서류 : 소정양식
- 소요비용 : RD\$1.25(인지대)+RD\$150(수수료)
-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서 접수후 1주

3) 제조업자등록(Inscripcion Industrial)

- 신청 : 상공부(Secretaria de Estado de Industria y Comercio)
- 신청서류 : 소정양식
- 소요비용 : RD\$300(기본) + 가산금 RD100/자본금 1백만배소당
-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서 접수후 1주
- 공산품 제조업자 확인서 발급으로 원산지표시 (Hecho en la Republica Dominicana 사용

4) 상공인등록(Registro Mercantil)

- 신청 : 산토도밍고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y Produccion de Santo Domingo)
- 신청서류
 - .상공인등록신청서
 - .상공부 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발생 확인서
- 소요비용 : 인지대 및 수수료(자본금에 비례)
-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접수후 10-15일내에 상공업자로 등록증 발급 및 상공회의소 BUSINESS DIRECTORY에 등록

5) 수출업자등록

- 신청 : 수출진흥청(Centro Dominicano de Exportaciones)
- 신청서류 : 수출업자 등록신청서(수출자유공단내 입주업체는 별도 등록 불요)
- 소요비용 : 없음
- 처리절차 및 기간 : 수출자유공단 입주허가를 수출업자 등록으로 간주

2. 공장설립

가. 공장 설립 절차

- 도미니카(공) 수출자유공단은 정부 및 민간에서 조성하고 건물을 건축한후 임대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전력, 수도, 도로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대료가 싸다는 장점으로 제조업 부문의 투자자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 동 공단에 입주하는 것이 보통이다.
- 동 수출자유공단 입주 및 공장설립은 통상 공단내 법인설립과 동시에 이루어 지며 적정 입주대상 공단을 물색한 후에 수출자유공단 심의회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 관련기관 : 수출자유공단 심의회 (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on) (홈페이지 : www.cnzfe.gov.do)

나. 공장임대절차

- 도미니카(공)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서의 사전승인을 요건으로 하나,
 - 1) 2,000s/f이하의 토지구입
 - 2) 국내에 거주한지 5년이상인 지났거나 도미니카 시민과 결혼하여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외국인의 부동산투자,
 - 3) 국내영업이 허가된 금융기관의 부동산 투자,
 - 4) 내국인이 51%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국내기업의 부동산투자,
 - 5) 교회 또는 국내에 설립 허가된 비영리 조합의 부동산투자 등은 제외된다.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는
 - 1) 서면 신청서 제출
 - 2) 내무부장관의 검토와 대통령에 대한 송부,
 - 3) 법률자문을 통한 국가 이익에 부합여부 확인을 통한 대통령 허가,
 - 4) 매매거래 완료 및 세금납부후 등기소(Register of Titles) 등록의 순으로 이루어 진다.
- 부동산의 임대 에 관한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두계약도 인정되나 서면계약에 비하여 법적효력이 미흡하다. 특히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당사자간에 합의하지 않으면 원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기간동안 계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종료의 사유로서는
 - 1) 계약기간의 만료,
 - 2) 계약물건의 불가항력적인 파손,
 - 3)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
 - 4) 상호합의 등이 해당된다.

다. 임대 및 구입비용

- 현지 수출자유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관련 건물 및 공장을 구입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고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 임대비용은 국영공단, 사설공단 및 시설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통상 s/f당 0.5불에서 5불선에 달하고있고 사설공단 임대가격이 국영공단 임대가격의 2.5배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 공업진흥청(FOMENTO)이 운영하는 국영공단은 s/f당 1불내외의 임대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많은 외국투자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
- 임대관련 계약관행은 5년이상 20년정도까지 장기 임차계약을 관행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통상 임대초기에 3개월치 정도의 보증금을 선불로 지급하고 있다
- 임대절차는 국영공단의 경우 공업진흥청(FOMENTO)와 직접 계약하면 되고 특별한 절차는 없으며 일반 부동산 임대절차와 동일하다.
 - 공업진흥청 (Corporacion de Fomento Industrial)
 - . 주소 : Av. 27 de Fedrero, Plaza de la Bandera, Santo Domingo
 - . 전화 : 1-809-530-0010
 - . 홈페이지 : <http://www.dominican-investment.com>
 - . 이메일 : corp.fomento2@verizon.net.do

3. 현지기업의 청산

가. 청산절차

1) 청산절차 개요

- 청산은 우선 노동청에 청산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 취득후 현지 국세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이후 현지 신문에 청산 공고를 하고 관련 모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2) 청산관련 세부절차

- 노동청 청산 승인 신청
 - 퇴직금 및 보너스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청산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련경비 지불 능력이 있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만하고 청산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
- 국세청 (Direccion General de Impuesto Interno)에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류 리스트
 - . 청산 승인신청 레터 (1원본, 2사본)
 - . 주주들의 청산동의장
 - . 현재 직원 임금 지불표
 - . 회사 대표자 보증서
 - . 법정 청산 판결서 (파산 했을 경우)
 - . 최종 세금납부 증명서
 - . 국세청 납세증 반납
 - . 수입인지 구입RD\$ 100.25
 - 국세청 승인 소요기간은 약 10일 ~ 15일

- 국세청의 승인을 취득한 후 현지 언론에 기업청산 공고
- 상기 모든 서류를 지방법원 (Tribunal del Primer Instancia y Juzgado de la Paz)에 접수하고 청산절차 완료

3) 청산관련 주요기관

- 국세청 (Direccion General de Impuesto Interno)
 - 담당부서: Departamento de Compania
 - 주소: Av. Mexico No. 48, Santo Domingo.
 - 전화: (1809) 689-2181
 - 홈페이지: www.dgii.gov.do
- 노동청 (Secretaria de Estados de Trabajo)
 - 담당부서: Departamento de Direccion general de Trabajo
 - 담당자: Dr. Washington Gonzalez Nina (Director)
 - 전화 : (1809) 535-4404
 - 팩스 : (1809) 535-7990
 - 주소: Av. Jimenez Moya Centro de los Heroes, Santo Domingo.

나. 청산시 유의사항

- 청산시 현지기업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주요 업무를 추진하며 관련 경비는 미불 1,000에서 1,500정도 소요되고 있다.
- 청산관련 특별한 유의사항은 없으며 현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영세성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청산하는 경우는 드물고 정식절차를 밟아 청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변호사를 통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90.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유망공단 현황

<투자진출 유망공단 현황>

1) 공단명 ZONA FRANCA BANI

소재지 : Matanzas, Bani

부지면적 : 419,156 m2

구성 주체 : 사설공단

주요 입주업종 : 섬유, 가구, 주방기기

입주 유망업종 : 섬유, 가구류 등

입주비용 : 월 임대료 US\$2.40/m2, 임대료는 매월 선납

- 월 공동관리비 : 용수포함 1개공장당 약 US\$300 이상

- 임대보증금 2개월분 임대료 예치

구성현황, 입주가능시기 : 조성 기완료 상태, 계약후 즉시 입주 가능

교통

- 항 만 : 카리브해 하이나 항구에서 1시간 거리(58KM)

- 철 도 : 없음
- 공 항 : Las Americas 국제공항에서 92Km 거리, 약 2시간 소요
- 도 로 : 도미니카(공) 남부고속도로 인접

전력 공급 : 전압 110V - 400V, 요금 U\$0.15/KWH

용수 : 충분, 요금 관리비에 포함

통신 : 전화라인 충분, 전화가설비 U\$200/라인, 기본요금 U\$18.8/월(200분)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주변도시 Matanzas, Bani로부터 인력 조달 용이
- 월인건비(봉제 기술자 기준) : 약 U\$350 수준

외국기업 입주현황 약 11개 외국기업체 활동중

한국기업 기업명단 한국기업 2개사 활동중

- Will-bes S.A. (봉제)
- HanChang (봉제)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부지 임대계약 체결업체는 입주가능, 특별 제한 없음
- 우대조치
- 생산활동에 사용할 기계류, 장비, 공구류, 원부자재, 반제품, 포장재료 등의 수입시 관세 및 제세 면제
- 수출자유공단내 생산.판매 활동으로 인한 제세 면제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 주요 항구와 산토도밍고시 인접으로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풍부한 인력, 인력확보로 섬유관련 업종 입지 양호

공단 연락처

- 전 화 : (1-809) 522-0464
- 팩 스 (1-809) 522-0466

2) 공단명 ZONA FRANCA LOS ALCARRIZOS

소재지 : Los Alcarrizos, Santo Domingo

부지면적 : 482,462 m2

조성 주체 : FOMENTO

주요 입주업종 : 섬유

입주 유망업종 : 섬유, 기타 기계류 등

입주비용 : 월 임대료 U\$0.70/m2, 임대료는 매월 선납

- 월 공동관리비 : 용수포함 공장당 약 U\$250 내외
- 임대보증금 2개월분 임대료 예치

조성현황, 입주가능 시기 : 조성 기완료 상태, 계약후 즉시 입주 가능

교통

- 항 만 : 카리브해 하이나 항구에서 20분 거리(10KM)
- 철 도 : 없음
- 공 항 : LasAmericas 국제공항에서 45Km 거리, 약 1시간 소요
- 도 로 : 두아르떼 고속도로 인접

전력 공급 : 전압 110V - 400V, 요금 U\$0.15/KWH

용수 : 충분, 요금 관리비에 포함

통신 : 전화라인 충분, 전화가설비 U\$200/라인, 기본요금 U\$18.8/월(200분)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주변도시 Santo Domingo 등지로부터 인력 조달 매우 용이
 - 월인건비(봉제 기술자 기준) : 약 U\$380 수준
- 외국기업 입주현황 약 17개 외국기업체 활동중
한국기업 입주 기업명단 한국기업 1개사 활동중
- Technotek (기타)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공진청과 부지 임대계약 체결업체는 입주가능, 특별 제한 없음
- 우대조치
- 생산활동에 사용할 기계류, 장비, 공구류, 원부자재, 반제품, 포장재료 등의 수입시 관세 및 제세 면제
 - 수출자유공단내 생산.판매 활동으로 인한 제세 면제
-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 주요 항구와 산토도밍고시 인접으로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풍부한 인력, 인력확보로 섬유관련 업종 입지 양호
- 공단연락처
- 전 화 : (1-809) 530-0010
 - 팩 스 : (1-809) 530-1303

3) 공단명 ZONA FRANCA SANTIAGO

- 소재지 : Av. Mirador del Yaque, Santiago
부지면적 : 3,595,618 m²
조성 주체 : 국영,사설 혼합
주요 입주업종 : 섬유, 담배, 신발
입주 유망업종 : 섬유, 기타 서비스 등
입주비용 : 월 임대료 U\$0.70/m², 임대료는 매월 선납
- 월 공동관리비 : 용수포함 1개공장당 약 U\$300 이상
 - 임대보증금 3개월분 임대료 예치
- 조성현황, 입주가능 시기 : 조성 기완료 상태, 계약후 즉시 입주 가능
- 교통
- 항 만 : 대서양 부에르토플라타 항구에서 1시간 거리(50KM)
 - 철 도 : 없음
 - 공 항 : Puerto Plata 국제공항에서 55Km 거리, 약 1시간 소요
 - 도 로 : 두아르떼 고속도로
- 전력 공급 : 전압 110V - 400V, 요금 U\$0.15/KWH
용수 : 충분, 요금 관리비에 포함
통신 : 전화라인 충분, 전화가설비 U\$200/라인, 기본요금 U\$18.8/월(200분)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주변도시 산티아고로부터 인력 조달 매우 용이
 - 월인건비(봉제 기술자 기준) : 약 U\$440 수준
- 외국기업 입주현황 약 85개 외국기업체 활동중
한국기업 입주 기업명단 한국기업 2개사 활동중
- Brentwood (봉제)
 - High Grade (봉제)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부지 임대계약 체결업체는 입주가능, 특별제한 없음

- 우대조치
- 생산활동에 사용할 기계류, 장비, 공구류, 원부자재, 반제품, 포장재료 등의 수입시 관세 및 제세 면제
- 수출자유공단내 생산.판매 활동으로 인한 제세 면제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 산티아고 시내 소재로 풍부한 인력 인력확보로 섬유관련 업종 입지 양호

공단연락처

- 전 화 : (1-809) 575-1290
- 팩 스 : (1-809) 575-1778

4) 공단명 ZONA FRANCA SAN PEDRO de MACORIS

소재지 : San Pedro de Macoris

부지면적 : 2,439,826 m²

조성 주체 : FOMENTO (공진청, 국영)

주요 입주업종 : 섬유, 플라스틱, 담배, 신발류 등

입주 유망업종 : 섬유 등

입주비용 : 월 임대료 U\$1.0/m², 임대료는 매월 선납

- 월 공동관리비 : 용수포함 1개공장당 약 U\$300 이상
- 임대보증금 2개월분 임대료 예치

조성현황, 입주가능 시기 : 조성 기완료 상태, 계약후 즉시 입주 가능

교통

- 항 만 : 카리브해 산페드로 항구에서 20분 거리(1KM)
- 철 도 : 사탕수수 수송용만 있음
- 공 항 : LasAmericas 국제공항에서 약 1시간 30분 소요
- 도 로 : 도미니카(공) 남부고속도로 인접

전력 공급 : 전압 110V - 400V, 요금 U\$0.15/KWH

용수 : 충분, 요금 관리비에 포함

통신 : 전화라인 충분, 전화가설비 U\$200/라인, 기본요금 U\$18.8/월(200분)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주변도시 산페드로로부터 인력 조달 용이
- 월임건비(봉제 기술자 기준) : 약 U\$360 수준

외국기업 입주현황 약 51개 외국기업체 활동중

한국입주 기업명단 한국기업 2개사 활동중

- Duck-Jin (봉제, 2001년 11월 철수)
- Maxxen (봉제)
- Acoiris (원사)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부지 임대계약 체결업체는 입주가능, 특별제한 없음

우대조치

- 생산활동에 사용할 기계류, 장비, 공구류, 원부자재, 반제품, 포장재료 등의 수입시 관세 및 제세 면제
- 수출자유공단내 생산.판매활동으로 인한 제세 면제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 주요 항구와 산페드로시 인접으로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풍부한 인력, 인력확보로 섬유관련 업종 입지 양호

공단연락처

- 전 화 : (1-809) 530-0010
- 팩 스 : (1-809) 530-1303

5) 공단명 ZONA FRANCA BONA0

소재지 : Provincia Monsenor Nouel

부지면적 : 390,593 m2

조성 주체 : FOMENTO (공진청, 국영)

주요 입주업종 : 섬유, 담배, 신발류 등

입주 유망업종 : 섬유 등

입주비용 : 월 임대료 U\$1.0/m2, 임대료는 매월 선납

- 월 공동관리비 : 용수포함 1개공장당 약 U\$300 이상
- 임대보증금 2개월분 임대료 예치

조성현황, 입주가능 시기 : 조성 기완료 상태, 계약후 즉시 입주 가능

교통

- 항 만 : 카리브해 산토도밍고 하이나 항구에서 1시간 30분 거리(75KM)
- 철 도 : 없음
- 공 항 : LasAmericas 국제공항에서 약 1시간 30분 소요
- 도 로 : 두아르테 고속도로 인접

전력 공급 : 전압 110V - 400V, 요금 U\$0.15/KWH

용수 : 충분, 요금 관리비에 포함

통신 : 전화라인 충분, 전화가설비 U\$200/라인, 기본요금 U\$18.8/월(200분)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주변도시 보나오로부터 인력 조달 용이
- 월인건비(봉제 기술자 기준) : 약 U\$280 수준

외국기업 입주현황 약 9개 외국기업체 활동중

한국입주 기업명단 한국기업 4개사 활동중

- BIBONG (봉제)
- LOADWAY (봉제)
- BONAHAH (봉제)
- UPI (박스)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부지 임대계약 체결업체는 입주가능, 특별제한 없음

우대조치

- 생산활동에 사용할 기계류, 장비,공구류, 원부자재, 반제품,포장재료 등의 수입시 관세 및 제세 면제
- 수출자유공단내 생산.판매 활동으로 인한 제세 면제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 두아르테 고속도로 인접으로 교통여건이 양호

공단연락처

- 전 화 : (1-809) 530-0010
- 팩 스 : (1-809) 530-1303

91.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관련 주요 컨설팅 및 부동산 업체

< 투자관련 컨설팅업체 및 부동산업체 >

가. 법인설립 및 공장설립 지원업체 (주요 법률사무소)

- Columna y Asociados C X A.
 - 담당자 : Dr. Carlos Almonte
 - 주소 : C/C #9, Ensanche Pianteni, Santo Domingo
 - 전화 : 1-809-502-1947
 - 팩스 : 1-809-562-2694
 - 이메일 : oficolumna@codetel.net.do
- Gomez & Ciccone
 - 담당자 : Fernando Ciccone Perez
 - 주소 : Ave. 29 de Febrero 266, Santo Domingo
 - 전화 : 1-809-732-2600
 - 팩스 : 1-809-732-2595
 - 이메일 : racigo@codetel.net.do
- Pellerano & Herrera
 - 담당자 : Dra. Flavia Baez
 - 주소 : Ave. John F. Kennedy 10. Santo Domingo
 - 전화 : 1-809-541-5200
 - 팩스 : 1-809-567-0773
 - 이메일 : ph@phlaw.com

나. 부동산 알선업체

- Centurt 21
 - 담당자 : Fernando Bonelly, Sales Manager
 - 주소 : Ave. Bolivar No. 203-A, Suite 1-A1, Santo Domingo
 - 전화 : 1-809-472-2121
 - 팩스 : 1-809-566-4778
 - 이메일 : century21aut@codetel.net.do
 - 홈페이지 : century 21.com.do
- Era 2000 Realty
 - 담당자 : Lilliana Raco, Sales Manager
 - 주소 : Fabio Mota No. 31, Ens. Naco, Santo Domingo
 - 전화 : 1-809-472-2000
 - 팩스 : 1-809-565-7528
 - 이메일 : era2000@codetel.net.do

92.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전략

< 투자진출 전략 >

가. 투자시 애로 및 유의사항

1)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개요

- 도미니카(공)으로의 투자진출은 주재국 시장의 협소로 제3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밖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점과 심각한 전력공급 부족, 교통체제 및 상하수도 등 인프라 미흡, 그리고 규제제도의 투명성 결여 및 관료주의 행정 등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 아울러 최근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단순한 인건비만을 고려한 현지 투자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2) 유의해야할 자유무역협정 및 관련 법안

- '95년 NAFTA 발효이후 멕시코의 대미수출 확대는 곧바로 도미니카(공)의 수출 신장율 감소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수출신장율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수출자유공단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카리브 및 중미국가에 대해 추가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2000년 10월 1일부터 Parity법안을 발효하여 도미니카(공) 기업들이 미국산 원사 및 원단을 사용할 경우 무관세, 무쿼터 혜택을 부여하면서 현지 봉제투자기업들의 대미수출이 신장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지에 투자진출한 한국기업들은 현재까지 한국 및 아시아산 봉제 원부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향후로 가격경쟁력 면에서 장점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 특히 200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는 섬유쿼터제의 영향으로 현지 진출 봉제업체의 경쟁력이 약화가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또한 2004년 8월 5일 중미 CAFTA 5개국과 연계하여 체결된 미국과의 FTA 체결이 양국 의회승인을 받아 발효된다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3) 전력난 등 인프라 부족도 유의해야 할 사항

- 도미니카(공)은 현재 발전설비는 화력 1,908MW, 수력 399MW 등 총 2,307MW의 용량을 갖추고는 있으나, 화력과 수력 발전소의 가동율이 각각 44.4%, 97.2%로 피크시 전력수요량인 1,450MW의 80%인 1,158MW를 공급하는데 그쳐 만성적인 전력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 30여년 이상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같은 전력 부족현상은 국민생활은 물론 산업활동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간 10%이상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전력가격도 중남미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초기 투자시 자체 발전설비가 필요하는 등 추가경비 수요가 있어 유의해야 사항이다.

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조언

1) 현지 문화 및 언어에 대한 사전 충분한 이해 필요

- 대부분의 현지 투자진출기업들이 초기투자시에 현지 문화 및 언어에 대한 미숙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점을 볼 때 신규투자 진출에 있어 국내기업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파견직원들의 충분한 언어 구사 능력과 노동법 등 현지 제도 및 문화에 대한 사전교육인 것으로 보인다.

2) 현지 인센티브의 적극적인 활용

- 아울러 초기 진출시 수출투자청(CEI-RO, 과거 OPI)등 주재국이 제공하고 있는 투자지원 제도를 심분 활용하여 현지투자와 관련한 초기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 특히 투자청은 투자 희망 기업에 대해 현지 투자진출과 관련한 법률, 노동, 공단선정, 세무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사전 접촉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3) 현지 주재관련 준비

- 현지 주재활동과 관련 도미니카(공)은 영주권 미취득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고 비자갱신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까다로와 가능하면 한국내에서 비자 취득시 3년 이상 장기비자의 취득과 국제운전면허의 준비 등 원활한 현지 주재준비가 필요하다.

4) 투자관련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

- 최근의 지속적인 임금상승과 켄터문제 등으로 인해 80년대 후반과 같이 단순히 낮은 인건비 및 지리적인 인센티브만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없으며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또는 강화 CBI법안 활용을 위한 미국산 원부자재 사용가능성, 수출자유공단의 인센티브 등 다양한 투자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93.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투자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1.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 업체 일반현황
업체명 The Will-bes Dominicana Inc.

대표자 대표이사 전병현
주소 Zona Franca de Barahona, P.O.Box 37. R.D.
전화 1-809-524-2829
팩스 1-809-524-3688
이메일 Bara@willbes.com
홈페이지 <http://www.willbes.com/index.htm>
주요생산품목 니트상의, 팬츠, 스커트, 드레스, 가디간 등
공장/건물규모 총 9동 건물
국내모기업 (주)미래와 사람들

○ 초기사업진출상의 문제점

- '86년 현지진출 이후 한국인 관리자들의 현지 관행 및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 미숙으로 현지 근로자와의 갈등이 확대되어가다가 '93년 사내 2개의 노조설립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음.
- 노조는 임금인상 및 출퇴근차량 무상지원 등 각종 복지수단 제공 등을 요구하면서 불규칙적으로 파업을 일삼아 회사 영업활동에 큰 위협 요인이 되었음
- 특히 언어에 취약한 한국인 근로자들이 현지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없어 지역주민 사이에 노조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전파되면서 지역당국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애로가 발생하고 회사 생산성 및 이윤 증대에도 상당한 타격을 보기 시작하였음

○ 초기투자 문제점 해결 및 성공적인 사업기반 구축 과정

- 상황이 어려워지자 본사 경영진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한국식 노무관리, 복지정책 부재, 지역사회활동의 부재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직접 인식하고 즉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하였음
- 우선 불법파업을 일삼는 노조 집행부를 현지 노동법에 따라 고발하고 정리하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노조원 및 일반 근로자를 위한 회사의 각종 복지정책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시작하였음. 이에 따라 출퇴근 차량제공, 용수 무상공급, 성과급 인센티브 제공 등 관련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회사에서 관련 복지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면서 근로자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갔음.
- 특히,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있던 한국인 관리자들의 인식변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우선, 한국직원 파견시 각종 소양 및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카톨릭 주교단과의 지역후원사업, 국민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지역 행사 지원사업, 경찰 군부대에 대한 의류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개선해 나갔음.
- 이와 같은 지역사회 협력사업 확대로 현지 주민들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종교, 정치, 사회등 각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는 카톨릭 주교단으로부터는 최대의 지지를 유도해냄으로써 최근의 사업성공에 대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음.
- 최초 투자시 겪었던 여러가지 어려움과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 꾸준히 개선하려고 노력한 결과 현지 투자 17년차인 현재, 카리브와 중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음.

나. 성공사례 (2)

○ 업체 일반현황

업체명 B J & B S.A.

대표자 조병우
주소 Zona Franca de Villa Altagracia, Rep. Dom.
전화 1-809-559-2588/2589/2590
팩스 1-809-559-2591/2147
주요생산품목 모자
투자금액 4000천\$
국내 모기업 유풍실업(주)

○ 초기사업진출상의 문제점

- 동사는 초기 현지투자진출시에 한국인 관리자들의 부족한 언어 능력, 노동법 미숙 등으로 현지 근로자들과의 갈등이 많았으며 아울러 발전설비 등 인프라 결핍으로 추가 발전설비 도입 및 자체적인 용수해결 필요 등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음.
- 특히 현지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완만하여 서류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투자진출 초기단계 문제점이 크게 발생하였음

○ 초기단계 문제점 해결 및 성공적 사업기반 구축

- 투자진출 초기단계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현지에 직원을 파견하기 전 최소한의 현지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남미 사람과 문화에 대한 특수성을 사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특히 파견대상직원에 대해 오너로부터 개별적인 교육 및 지침 접수를 통해 카톨릭 국가인 현지에서 어떤 마음자세로 일과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음. 즉, 한국인은 현지인을 도와 현지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파견되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현지인위에서 관리자의 권위로 군림하려고 파견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토록 하였음.
- 작업은 현지인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현지 근로자의 교육과 복지가 회사의 장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하에 기술, 보건위생, 안전교육과 더불어 무이자 대부실시, 인센티브 급여 지급, 체육행사, 연말 선물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해 나갔으며 작업장내 의료시설 및 의사, 간호사를 상시 근무토록 하면서 근로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 또한 전기, 용수 및 각종 간접시설 부족은 현지에 투자한 업체들의 공통적인 문제로 결국 추가비용을 원가개념으로 이해하고 관련 자구책을 수립해 나갔으며 현지의 완만한 행정절차 문제도 전화나 팩스보다는 직접 한국직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면서 해결해 나갔음
- 이와 같은 투자진출 초기단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의적절한 때에 현지투자를 결정하였고, 현지의 수출자유공단입주 등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 판매회사 설립 및 신규 디자인 개발과 세계적인 특허품 보유를 통해 최근까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였음

2. 실패사례

- 현지 투자진출 봉제업체중 인건비 상승 및 쿼터 확보애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나 이는 동종업체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며 특이한 실패사례는 없다. 특히 NAFTA 체결이후 대미수출 활성화를 위해 공장설비를 멕시코로 이전한 기업들이 있으며, 2005년들어서는 섬유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인건비 감축을 위해 생산설비를 중국 또는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지역으로 이전하였거나 하이티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있어 최근의 현지 투자진출은 침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 그러나 방만한 현지 경영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최근 영업활동이 중지상태에 있는 기업이 있어 현지 투자진출시에 유의점이 되고있다.
 - 현지의 가방류 봉제업체인 "M"사는 '87년경 기존 공장 확대 및 현지공장 인수를 통해 대규모 투자진출을 추진한 바 있다. 동사는 현지 확대 투자를 추진하면서 국내 원부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상당한 물량의 D/A 수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가방류 메이커인 "S"사 및 "A"사등 미국내 3대 가방류 메이저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확대를 추진하였다.
 - 그러나 '98년 현지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생산설비의 상당부분에 손실을 보았고 원부자재의 공급지연 및 제품불량 클레임으로 자금난 이 급격히 악화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 2000년 6월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 특히, 동사의 경영 정상화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경영주의 방만한 자금관리 및 구 부채에 대한 부담과 현지은행의 대출지원과 관련한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투자진출 희망업체에 유의사항이 되고 있다.

94. 전반적 투자여건/도미니카(공) 투자진출 장벽

<투자진출 장벽>

1) 개요

- 1995년 11월 20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법16-95)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인 투자개방 및 외국투자기업의 내국민 대우에 기여를 함으로써 '95년부터 2001년까지 총 47억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고 2001년에만 13억불의 투자를 유치하였음. (2002년 9억6천만불, 2003년 10억5백만불, 2004년 6억5천만불)
- 특히, 도미니카(공)은 FTZs(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수출증진 및 고용확대를 위해 세금 및 관세혜택 등으로 입주기업에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2004년말 기준 582개 기업입주)
- FTZs에서의 수출은 1990년대 도미니카(공) 전체수출의 52%에서 2004년에는 77%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7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 109-97 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OPI-RD(투자진흥청)가 설립되면서 제도적인 기반도 완비하였음. 2003년도에는 투자업무와 수출진흥업무를 합쳐서 수출투자센터(CEI-RD)를 설립해서 운영중임

2) 투자진출 제한분야

-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음
- 이밖에 공공서비스, 광산, 매스컴, 산림개발 등은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여 사전 투자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업 및 가금개발, 어업, 기타 금융업,

보험업 등은 외국인의 주식보유지분을 최대 49%로 제한하고 있음

3) 지적소유권 제한 및 투자절차상 제한

- 현행 외국인 투자법은 과거의 사전 투자심사 허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통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 등록제를 채택함으로써 투자절차를 간소화 하였음.
-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한,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하여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 후에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고로 투자절차가 완료됨

4)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의 외국인 투자는 현지법인의 절차를 준용하되, 외국기업의 현지지점(사무소)로서의 소재지 등록이 필요함

5) 국산화의무 부과

- 주재국은 국산화의무관련 별도 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나 자유무역지대 입주 투자기업이 생산품을 주재국 영토내로 판매코자 할때는 자유무역지대 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생산품의 20%까지는 관련제세를 납부한 후 국내판매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최소한 25% 이상의 국산화의무를 충족시키거나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이 없어야 함

6)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 외국인이 주재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 관련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2,000S/F이하의 토지구입, 국내영업이 허가된 외국금융기관, 비영리 단체등의 경우는 사전승인이 면제됨
- 임대의 경우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있으며 구두계약도 가능하나 서면계약에 비해 법적효력이 미흡함
- 대부분의 공단내 투자기업은 부동산을 구입하지않고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

7) 금융상의 제한

- 외국인 투자기업은 연간 순수익중 중앙은행에 투자자본으로 등록된 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실송금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세납부여부 및 순이익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음
- 외국투자기업의 현지 금융조달은 이자율이 높고 주재국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없이 1년이상의 현지금융을 조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투자기업이 현지 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자유무역지대 투자업체는 모든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집중제도가 면제되 사실상 모기업을 통해 외국은행에 입금시킴으로서 현지금융의 필요성이 없음

8) 세제상의 제한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나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외국기업은 소득세는 물론 제세일체가 15년간 면제됨. 아울러 하이티 국경지대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투자기업은 20년간 면제됨

○현행 조세법에 규정하는 연방세로서는 소득세, 공산품과 서비스의 유통세(ITBIS), 특별소비세 (Impuesto Selectivo),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는 건축세, 회사 설립 및 증자세, 특허세, 영사확인 수수료 등이 있으나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조세를 면제함

95. 투자유치정책

<투자유치정책>

도미니카(공)정부는 국내산업 발전과 실업의 해소, 외화수입의 증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 및 과실금 송금제한의 철폐를 위한 외국인투자법 개정('95.12), 세계은행의 다자간 투자보장 기구인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가입('96.10)과 전력, 항만, 교통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신규 설비 확충 및 노후설비 교체를 위한 개혁과 현대화(Modernization) 계획을 적극 추진중이다.

현행 외국인 투자법(법률 16-95, '95.12.)은 중앙은행(Banco Central)에서 IDB(Inter-American Bank)와 IIC(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의 자문으로 '90년부터 5년여간에 걸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노력과 연구를 기초로 개정된 것으로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한을 철폐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 외국인 투자법(법률 16-95, '95.11.20)과 동 시행령(대통령령 380-96호, '96년 8월)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는 첫째, 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는 필수적이라는 인식과, 둘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투자수단으로서 자본외에 생산설비, 기계장비 부품 및 부분품, 부동산, 무형 및 기술자산 등의 형태가 가능하나, 국내 금융 기관을 통하여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의 판매와 지원, 엔지니어링 계약 등 기술이전 계약은 내국인, 외국인, 외국기업간에 공히 허가된다.

1967년부터 시작된 Free Zone 육성정책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전면 면제하는 등 세제상 인센티브로 미국과 자국기업은 물론 미국시장 및 EU 시장진출을 위한 우회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2005년 6월말 기준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기업 24개사를 포함하여 582개사가 진출하여 있다.

자유무역지대내 투자업체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주식배당세 등을 제외한 법인소득세 일체를 면제하고, 법인 설립관련 제세와 공장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기자재 및 건축자재 등의 수입관세, 상표등록세, 영사수수료 등도 면제된다.

96. 외국인투자제한

<외국인 투자제한>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1)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2)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3)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한다.

이밖에 공공서비스, 광산, 매스컴, 산림개발 등은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여 사전 투자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업 및 가금개발, 어업, 기타 금융업, 보험업 등은 외국인의 주식보유 지분을 최대 49%로 제한한다.

도미니카공화국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서의 사전승인을 요건으로 하나, 1) 2,000 s/f이 하의 토지구입, 2) 국내에 거주한지 5년 이상이 지났거나 도미니카 시민과 결혼하여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외국인의 부동산투자, 3) 국내영업이 허가된 금융기관의 부동산 투자, 4) 내국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국내기업의 부동산 투자, 5) 교회 또는 국내에 설립 허가된 비영리조합의 부동산투자 등은 제외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는 1) 서면 신청서 제출, 2) 내무부 장관의 검토와 대통령에 대한 송부, 3) 법률자문을 통한 국가 이익에 부합여부 확인을 통한 대통령 허가, 4) 매매거래 완료 및 세금납부 후 등기소(Register of Titles) 등록의 순으로 이루어 진다.

부동산의 임대에 관련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두계약도 인정되나 서면계약에 비하여 법적 효력이 미흡하다. 특히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당사자간에 합의하지 않으면 원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기간동안 계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종료의 사유로서는 1) 계약기간의 만료, 2) 계약물건의 불가항력적인 파손, 3)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 4) 상호합의 등이 해당된다.

97. 투자진출절차

<투자진출 절차>

현행 외국인투자법(법률 16-95)은 과거의 사전심사 허가제를 없애는 대신 통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등록제를 채택함으로써 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하여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후에 중앙은행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고로 투자절차가 완료된다.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의 외국인 투자는 현지법인의 절차를 준용하되, 외국기업의 현지 지점(사무소)로서의 소재지 등록이 필수 절차이다.

○ 도미니카공화국 상법(제19조 및 47조)상 영리목적의 회사형태는 합명회사, 특수합자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C.por A.(Compania por Acciones) 또는 S.A.(Sociedad Anonima)등으로 표기되는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 이다.

○ 회사설립 절차는,

1. 회사설립에 관한 정관 등 서류작성
2. 회사정관 등기
3. 국세청 등록 및 법원제출 허가 취득
4. 납세자 신고 및 등록
5. 회사설립 서류의 관할법원 등록
6. 회사설립에 관한 일간지 공고
7. 주식발행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회사설립 상담대행

- 법률 사무소 Pellerano & Herrera

Add : Av. John F. Kennedy #10, Apartado Postal 20682, Santo Domingo, Rep.Dominicana

Tel : (1809)541-5200

Fax : (1809)567-0773

E-mail : lpellerano@verizon.net.do

- 소요비용 : RD\$15,000

- 처리기간 : 근무일수 기준 15일 내외

수입관세 및 부가세 등의 제세가 면제되는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적정 입주대상 공단을 물색한 후에 자유무역지대심의회에 대한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지역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부지매입과 공장건설 등의 별도절차를 따라야 한다.

* 관련 기관 : 자유무역지대심의회(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on)

제출서류는 1. 자유무역지대입주신청서, 2. 공단 입주계약서 또는 입주 의향서, 3. 회사설립에 관한 서류, 4. 일간지 공고를 위한 광고문안, 5. 잔고증명, 6. 제조물품 견본 등이다.

소요비용은 RD\$10,000 + 일간지 공고를 위한 광고비이며,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 익월 15-20일 내외이다.

외국인투자법은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실제 투자자본이 유입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대위원회(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on;CNZF)에 대한 입주심사 신청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 신고를 행하면, 동

위원회에서 이를 중앙은행에 통보한다.

* 신청기관 : 중앙은행 국제부 Departamento Internacional/ Banco Central de la Republica Dominicana

제출서류는,

1. 투자 금액과 지역, 업종 및 품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공문
* 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사용
2. 외환 또는 유형자산 등의 형태로 투자자본이 유입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설립 또는 현지지점의 주소지 설정허가와 지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서류 등이다.

소요비용은 없으며, 근무일수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확인증을 발급한다.

1) 상호 및 상표 등록(Registro del Nombre de la Compania y/o Marca)

신청기관 : 상공부(Secretaria de Estado de Industria y Comercio), 산토도밍고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y Produccion de Santo Domingo)

신청서류는 1. 상호 및 상표 등록 신청공문(별도양식 없음), 2. 신청인 인적사항, 3. 상호 및 상표 설명서 및 샘플 4점이상, 4. 사용업종 및 품목, 5. 등록희망 기간 등이다.

소요비용

- 상호 및 상표 중복여부 조사 : RD\$1.25(인지대)+RD\$300(수수료)
- 정식 상호 및 상표등록 신청 : RD\$59.25(인지대)+RD\$300(수수료)+RD\$170(일간지광고 광고비)

처리절차 및 기간

- 상공부는 신청인의 상호 및 상표 중복여부 확인후,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 30일 이내에 산토도밍고상공회의소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정식 등록 신청서 제출
- 신청인의 상호 및 상표를 일간지에 공고후 4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채택 및 등록

2) 납세자 등록(Registro Nacional de Contribuyentes)

신청기관 : 국세청 전산처리과

Division de Procesamiento Electronico de la Direccio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신청서류는 1. 납세자 등록신청서, 2. 정관사본, 3. 주주 및 이사회 명단, 4. 세금납부 영수증, 5. 지점등록 확인서 또는 대리점 계약서 사본 등이다.

소요비용 : RD\$100(양식구입)+RD\$4.55(인지대)

처리절차 및 기간

신청접수후 2-3일내에 납세자 성명과 주소, 납세번호, 발급일자 등이 기재된 RNC 등록카드를 발급한다.

3) 사업자등록(Iniciacion de Actividades)

신청기관 : 상공부(Secretaria de Estado de Industria y Comercio)

신청서류 : 소정양식

소요비용 : RD\$1.25(인지대)+RD\$150(수수료)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서 접수후 1주

* 모회사와 이사진이 동일한 지점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4) 제조업자등록(Inscripcion Industrial)

신청기관 : 상공부(Secretaria de Estado de Industria y Comercio)

신청서류 : 소정양식

소요비용 : RD\$300(기본) + 가산금 RD100/자본금 1백만페소당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서 접수후 1주

공산품 제조업자 확인서 발급으로 원산지표시 (Hecho en la Republica Dominicana)사용

모회사와 이사진이 동일한 지점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5) 상공인등록(Registro Mercantil)

신청기관 : 산토도밍고 상공 회의소(Camarade Comercio y Produccion de Santo Domingo)

신청서류는 1. 상공인등록신청서, 2. 상공부 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외국기업의 지점인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한 지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임장, 4. 국세청 발행 자본금확인서 등이다.

소요비용 : 인지대 및 수수료(자본금에 비례)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접수후 10-15일내에 상공업자로 등록증 발급 및 상공회의소 BUSINESS DIRECTORY에 등록

6) 수출업자등록

신청기관 : 수출진흥청(Centro Dominicano de Exportaciones)

신청서류 : 수출업자 등록신청서

(수출자유공단내 입주업체는 별도 등록불요)

소요비용 : 없음

처리절차 및 기간 : 수출자유공단 입주허가를 수출업자 등록으로 간주

98.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지사 설립>

(입국 및 체류)

외국인의 체류는 비자, 1년만기 단기체류허가, 3년만기 장기체류허가 등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90일간 단기체류에 관한 상호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즉시 입국이 가능하다.

체류허가는 입국후 이민청에 단기체류 허가를 신청하여 득한 후에 하고, 장기체류 허가를 신청한다. 장기체류허가의 경우 3년 만기로 되어 있어, 매3년마다 확인 및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시 거주지와 주택임차)

지사설치를 위한 3개월 미만의 거주는 아파트호텔이나 일반호텔의 장기투숙이 가능하며, 최근 산토도밍고 중심가에 건축된 오피스텔도 이용할 만하다.

주택은 심각한 전력공급 부족사정을 감안하여 발전기나 충전бат데리가 구비된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98 미국의 범죄인 본국 추방이 시작된 이후 각종 범죄가 빈발함을 고려 치안상태가 양호한 주택가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무실 임차)

일반호텔이나 아파트 호텔은 사무실 임차전 임시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무실은 통신 및 전력사정이 양호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산토도밍고시는 반경 15km내외로 비교적 작은 도시이나, 지역에 따라 교통체증이 매우 심하여 간선도로 현황 등을 고려하되, 가능한 은행이나 보험사 등 자체경비가 확실한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이 매우 취약하여 자가용이 없으면 현지활동이 매우 불편하므로 차량 렌트가 거의 필수적이다.

렌트 기간에 따라 요금이 다르나, 1개월 기준 소형차는 약 US\$50/일이며,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법인주소지 등록)

지사개설은 외국기업의 현지 지점(사무소)로서의 법인 주소지 등록이 필수 절차이며, 등록절차를 마치면 현지법인과 동등한 세제상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사설치 승인)

법인주소지 등록이 완료되면 내무부 경유 행정부 수신으로 지사설치 승인을 신청한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처리에는 약 2개월여가 소요된다.

1. 내무성, 경유 행정부 수신인 신청공문 (별도 양식 없음)
2. 스페인어로 번역 및 영사 확인된 정관사본
3. 영사확인된 지사설치 결정에 관한 의사록 및 잔고증명서
4. 소요비용 : 인지대 RD\$54 + 관보게재비(RD\$10)

(외국투자기업등록 및 사후등록)

외국인투자법은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실제 투자자본이 유입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타 기업활동을 위한 등록 및 신고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99. 공장설립

<자유무역지대 입주 및 공장설립>

수입관세 및 부가세 등의 제세가 면제되는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적정 입주대상 공단을 물색한 후에 자유무역지대심의회에 입주를 신청하면 된다.

* 관련기관 : 자유무역지대심의회(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on)
홈페이지 : www.cnzfe.gov.do

* 제출서류

1. 수출공단입주신청서, 2. 공단 입주계약서 또는 입주 의향서, 3. 회사설립에 관한 서류 4. 일간지 공고를 위한 광고 문안, 5. 잔고증명, 6. 제조물품 견본 등

도미니카공화국의 자유무역지대는 정부 및 민간에서 조성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임대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어, 전력, 수도, 도로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대료가 싸다는 장점으로 제조업 부문의 투자자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관련법에 따른 부지매입과 공장건설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00. 산업단지

<산업단지>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한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업단지는 업체들이 밀집하여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고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결성 되는 조합을 구성하고 단지의 공동관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사전에 계획적인 구획정리나 인프라 건설후 입주업체간의 수직적 분업관계를 통한 조업상 잇점을 기대하는 여타 산업단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주요 산업단지로서는 수도인 산토도밍고시 외곽에 위치한 HERRERA(에레라) 공단과 HAINA(하이나) 공단이 있는데, 입주업체수는 각각 약 200개사, 65개사로서 국내 유수의 철강 및 금속, 기계장비, 플라스틱, 섬유업체들이 입주하여 있다. 이들 2 개 공단은 단지의 공동관리를 위해서 조합(Asociacion)을 구성하여 단지내 경비, 미화 등은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2005년 6월 기준 현재 수출자유공단(Zona Franca)은 59개이며, 총 582개사 입주해 있으며, 그 중 40%는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101.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

도미니카공화국에는 미국과 EU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위해 2005년 6월 현재 전국에 59개 자유무역지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상공부 산하의 자유무역지대위원회 (Consejo Nacioal de Zona Francas de Exportacion ; CNZFE)에서 입주허가 및 외국인투자, 수출입허가 등을 관리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자유무역지대는 공단의 조성 및 건물의 건축,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장설립에 관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위한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초기의 투자부담이 경감, 저렴한 임대료, 외국인 투자신고 및 공장설립과 등록절차 간소화 등과 일체의 국세와 지방세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최적의 입주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통 및 재판매를 위한 Commercial Free Zone은 없이 54개 전 자유무역지대는 제조업을 위한 Industrial Free Zone이나, 최근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에서는 수도인 산토도밍고 인근의 Las Americas국제공항과 Boca Chica항을 포함하는 유통 및 산업 복합자유무역지대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2004년에 CNZFE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59개 자유무역지대에는 582개사가 입주하여 총 8억불 내외가 투자되어 있으며, 총 근로자 170,833명에 연간 수출실적은 전체 수출의 77%, 국내총생산의 3.5%를 점하고 있다.

운영형태별로는 공진청(Corporacion de Fomento Industrial: CFI)에서 운영하는 국립 41%,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53%, 기타 민관복합 6% 등이 있으며, 지역별로는 산토도밍고 인근

수도권 및 동부가 18%, 남부 13%, 북부 40%를 운영하고 있다.

입주업체의 업종은 투자금액 기준으로 섬유가 50.3%가 제1위를 차지하고 서비스(17%), 담배(5.26%), 전기전자(5%) 등이며, 입주업체의 투자국은 미국(49%), 도미니카공화국(34.2%), 한국(4.4%)등의 순이다.

그러나 지난 '92년 노동법 개정 이후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노조결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일부 지역의 경우 정치성 노조활동으로 인한 피해와, 지난 '96-'98년간 평균임금은 연평균 12%내외로 상승하는 반면에 명목환율은 동기간 8% 미만에 그치는 등 영업환경 악화되는 일부 업체가 폐업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특히 NAFTA이후 대미 수출시 멕시코 대비 경쟁여건 악화 등으로 일부 섬유업체가 멕시코로 이전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섬유쿼터제 폐지의 영향으로 입주업체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임.

자유무역지대법에 규정된 입주업체 및 운영자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 1) 1992년 5월 15일 제정된 법률 11-92가 규정한 소득세 면제
- 2) 등록, 계약체결, 건설, 부동산 이전에 관한 세금면제
- 3) 회사 설립시 부과되는 세금과 자본금 증액시 지불하는 세금면제
- 4) 자유무역지대내에서 사용되는 천연자원, 건설장비, 사무실장비, 빌딩 부속품 등에 대한 관세 등 제세 면제
- 5) 수출 및 재수출세 면제
- 6) 부가가치세, 재산세, 특허세 면제
- 7) 물품수입에 관한 영사송장수수료 면제
- 8)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용 설비 및 비품 수입에 대한 관세 등 제세 면제
- 9) 사업목적상 수입하는 차량수입에 대한 관세 등 제세 면제

102. 조세제도

<조세제도>

현행 조세법에 규정하는 연방세로서는 소득세, 공산품과 서비스의 유통세(부가가치세 성격, ITBIS), 특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 관세 등이 있다.

기타, 지방세로서는 건축세, 회사설립 및 증자세, 특허세, 영사확인 수수료 등이 있으나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한다.

도미니카공화국에 거주(reside)하거나 주소를 둔(domiciled) 모든 개인이나 법인은 국적에 불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해외 직·간접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회계연도는 개인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간이며 기업의 경우는 마감일자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되며, 반대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개인은 국내에 거주하기 시작한 3년째부터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한다.

세법(Fiscal Code)은 노동이나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기준은 비용과 회계법상 규정하는 감면액을 공제하며, 국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서는 과세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여 부과하며,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에 소재하거나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인 소유기업에 대해서 공히 25%를 부과한다.

RD\$60,000-100,000 소득개인 : 15%,

RD\$100,000-150,000 소득개인 : RD\$6,000과 RD\$100,000 초과분의 20%

RD\$150,000이상 소득개인 : RD\$16,000과 RD\$150,000 초과분의 25%

유통세는 8%이며 월별로 납부하여야 하며,

- 1) 수입 및 국산 공산품의 유통업,
- 2) 전화, 케이블, 텔렉스, CA TV, CC TV, Pager, 라디오 등 서비스업,
- 3) 식당, 찻집 등 요식업,
- 4) 숙박업,
- 5) 자동차 등 동산의 임대업,
- 6) 꽃꽂이업 등에 부과됨

유통업이나 과세대상 서비스업을 영위하거나 상품을 수입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유통세를 납부 하여야 하되, 평균 월수입 RD\$50,000 이하 또는 유통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고 월수입 RD\$30,000 이하인 개인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국산품이나 수입품으로서 일반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공되지 않거나 가공공정이 거의 없는 식품 등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세금을 면제하는 신문용지, 서적, 유류 및 관련제품, 비료, 씨앗, 살서제, 컨테이너 등과 공공기관, 농축산부문, 자유무역지대 등에서 사용될 기계와 장비 등은 유통세를 면제한다.

특정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에 대하여 제조와 수입단계에서 품목에 따라서 5-80%가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주류, 담배, 자동차, 장거리 전화, 항공권, 호텔객실료, 보험료 등과 보석, 금은제품, 요트 및 가정용품 등에 부과 되며, 회계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마지막 날로 하여 월별로 납부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며 다자간 협상의제 가입국으로서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관세제도를 합리화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관세율 체계는 Harmonized System(Nomenclature of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을 사용한다.

과세대상 수입가격을 기초로 하는 종가세를 원칙으로 하는 관세는 CIF금액을 통관시점의 공식환율(Official rate of Exchange)을 적용하여 현지화인 RD\$로 환산하여 부과하며, GATT규정을 준수하여 관세율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3%-35%의 관세가 적용되고 해당상품에 대해서는 유통세(부가가치세 성격, ITBIS)와 특별소비세(Selective Consumption Tax)를 부과한다.

임시수입, 자유무역지대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되며, 살서제, 제초제, 방충제 등 농축산업용 상품과 사회전체의 필요로 수입하는 의약품과 제약원료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한다.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으며 내국기업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외국기업은 소득세는 물론 제세가 일체 면제된다.

103. 사회간접자본

<전력>

도미니카(공)은 '03년말 기준 발전설비는 화력 2,433MW, 수력 449MW 등 총 2,822MW의 용량을 갖추고 있으나, 화력과 수력발전소의 가동율이 각각 44.4%, 97.2%로 피크시 전력수요량인 80% 정도만 공급되는데 그쳐 만성적인 전력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30여년 이상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같은 전력 부족현상은 국민생활은 물론 산업활동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앞으로 연간 10%이상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미니카(공) 정부에서는 지난 '99년 5월 발전(화력발전) 및 배전부문에 민간자본 유치와 경영권 이양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영전력공사 민영화를 완료한 바 있다.

국영전력공사(Corporacion Dominicana de Electricidad)를 발전 3개사, 송전 1개사, 배전 3개사, 기술지원 1개사 등 8개사로 분리하고, 발전 2개사, 배전 3개사 등 총 5개사를 대상으로 주식의 50%를 판매하기 위한 국제입찰을 완료한바 있다.

그러나 Hipolito Mejai 전대통령은 2003년9월 30일 IMF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시켰던 배전업체 Ednorte와 Edesur를 다시 국유화시키는 조치를 단행했으나, 국민들은 전력사정이 더 좋아지리라는 큰 기대는 안하는 분위기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8월 16일 집권한 Leonel 대통령도 제 1 우선 해결과제로 전력부족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약간 전력사정이 좋아지고는 있으나, 근원적인 해결은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황임.

<상하수도>

상하수도 보급률은 80%내외에 그치고 있으나,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자유무역지대에는 상하수도 설비가 완비되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교통>

도로는 산토도밍고와 지방 주요도시와의 도로는 포장화되어 대체로 잘 갖추어져 있으며, 도로의 총 연장은 17,645KM(포장:5,841KM, 비포장:11,844KM)이며 상품수송에 별 지장은 없다. 기타 산토도밍고와 지방도시간, 지방도시와 지방도시간에는 시외버스가 있어 이동시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항구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으며 수도인 산토도밍고에 인접한 Rio Haina항이 가장 대표적인 컨테이너 및 벌크물량 취급항이며, 그외 지역별로, La Romana, Puerto Plata, San Pedro de Macoris 항이 주로 이용된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는 전무하며 거의 전적으로 사탕수수 농장내에서 화물운송에만 이용된다.

국제공항은 수도인 산토도밍고에서 40킬로미터 지점의 Las Americas공항이 있으며, 그외 4개 주요도시에 공항이 설치되어 있다.

<통신>

통신부문은 일찍이 시장개방과 자율화를 통한 경쟁제도의 도입에 성공하여 가장 선진화된 부문으로서 앞선 장비와 기술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첨단 통신서비스를 위한 설비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통신부문 시장개방을 앞둔 중남미국들의 민영화 및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성공모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VERIZON과 국내 자본기업으로 최근 인터넷과 Cellular, Pager 부문에서 상당한 경쟁력으로 마켓셰어를 확대하고 있는 TRICOM사 등 2개 종합 통신사업자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한 국내 통신시장은 Cellular, Pager등 외에도 선불카드, Frame Relay, 무선 인터넷, TV인터넷, 데이터 및 영상전송, 영화회의 등 향후 첨단 통신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한 신규투자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549,000 회선과 3개 위성지구국을 보유하고 있는 VERIZON Dominicana사는 미국 VERIZON사의 투자진출 업체로서 통신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무선인터넷(Internet Inalambrico), TV인터넷, PCS 등 최첨단 서비스 시장선점을 위하여 '97년 5월부터 시작하여 5개년간 150억불의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아예 미국의 VERIZON사가 나머지 CODETEL지분을 다 사들여 이제는 CODETEL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VERIZON을 공식 사용하고 있다.

'91년 국내자본으로 통신사업에 진출한 TRICOM사는 '93년 10월 미국 Motorola사의 주식 40%를 매각 등 투자재원 조달로 유무선 통신망 확충을 통한 장기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와 2005년 현재 도미니카 2위의 통신회사로 자리잡았다.

현재 통신사업 주무기관인 Direccion de Telecomunicacion(통신청)에 등록된 사업자 10개사중 통신전문 사업체는 다음 4개사이며, Satel과 Transmisiones y Proyecciones등 2개사는 각각 채널5, 채널 13 TV방송사업을, 이밖에 Economitel, Iridium, Movicell, Servicios Globales de Telecomunicaciones 등 4개사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104. 노동여건

<고용계약>

고용계약은 4매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노동자와 고용주가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2부는 3일 내에 정부 노동국 또는 지방 당국에 발송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약으로 인정되며, 관계 법률 과 규정의 보호대상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현 노동법은 동 법률에 저촉되는 일체의 계약내용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함은 물론, 계약내용이나 관계 법률에 대한 해석상 차이로 인한 분쟁발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근로허가' 제도가 없이 체류비자, 임시체류증, 또는 영주권상에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목적을 명기하도록 하고 노동활동을 허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이 80%이상이어야 하거나 최소한 총 임금의 80%가 내국인에 지불되는 범위내에서야 하며, 이때 관리직 등 사용자측에 해당하는 인력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노동력>

도미니카공화국의 노동 인구는 3.3백만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제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1/3이 서비스업 그리고 그 나머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노동력 공급은 비교적 충분하나, 숙련된 노동자나 기술직 감독계층의 노동자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임금>

노동부에 설치된 임금위원회(Comite Nacional de Salarios)는 정기적으로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부문에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며, 2004년도 최저 임금은3,900페소이다.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주급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기타 수당 및 상여금>

주당 44시간을 초과에 대한 수당으로서, 24시간이내는 35%를, 24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00%를,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에 비해 15%를 추가로 지급한다.

상여금은 12개월간 지급된 총 급여의 1/12로서 매년 12월2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휴가는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일수 기준 14일을, 5년이상 근무자는 18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며, 1년미만 근무자는 근무개월수에 따라 각각 5개월이상 6일, 6개월이상 7일 등이 주어진다.

당기이윤 가운데 10%는 근로자들에 배분함을 규정하고 있어, 3년 미만 근무자는 정상급료의 45일분을, 3년 이상의 근로자는 60일분을 한도로 지급하되, 조업개시 최초 3년 동안이나, 자본금 RD\$1백만 미만의 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는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노조의 설립과 등록>

현행 노동법은 노조의 설립과 등록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하여, 노조설립 및 등록신청을 접수한 후 노동부가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동 기간 내에 결정이 없는 것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조합원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기업 단위노조(Sindicato), 연맹노조(Federacion), 전국노조(Confederacion) 등으로 구분하며, 단위노조는 최저 조합원을 20명으로 하되 상주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가입을, 연맹노조는 최소 4개의 단위노조를, 전국노조는 최소 2개의 연맹노조를 설립요건으로 한다.

노조집행부는 조합원수에 따라 200명 미만 5명, 200-400명 8명, 400명이상 10명으로 각각 구성하며,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나 면직에 관해서는 엄격한 조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노동부에 등록된 노조는 '04년 현재 약 4,0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조합원의 성격에 따라 직업노조, 기업노조, 사회운동단체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노조활동은 노동자의 권익보호 보다는 노조간부 개인이나 일개 정치단체의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않된다는 반성이 최근 노동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노조운동>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1919년 북부 해안도시인 푸에르토벨라타(Puerto Plata)에서 첫 노동자 단체가 결성되었고, 1920년 세계노동기구(ILO)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바 있으며, '30-'60년 투루히요(Trujillo) 집권기간 노조운동은 초기에는 1943년 노조 운동의 합법화, 1945년 노동부 신설과 노조의 전국적 조직결성 합법화 등 법률과 제도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란이후, 스페인 공화주의자들의 다수 이주하여 설탕산업 노동조합을 결성, 최초의 파업을 일으키며 따라 투루히요 정부는 노조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탄압을 시작하여 1961년 투루히요 사망시까지 도미니카공화국내에서의 노동운동은 완전히 중단된 바 있다.

이후 1961년 FOUPSA, 1962년 FENAMA, FENEPIA, CASC등 공공부문과 종교계의 노조결성 등으로 노조운동은 잠시 활기를 찾는 듯 하였으나, 1963년 보쉬(Bosch) 진보정권의 붕괴와 1965년 4월혁명과 미국의 침공 등에 이어 집권한 보수우익 발라게르(Balagu er)정부는 '66-'78년 집권기간 내내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 탄압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지하로 숨겨진 노동운동은 급진 좌경성향으로 발전하고, 여러 정치단체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1978년 도미니카혁명당(PRD) 집권이후, 집권당의 성향에 관계없이 노동운동은 자유롭게 보장되고 있다.

전국노동자연합(CNTD)는 '71년 설립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81개 연맹노조 총15만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현지 진출 우리기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자유무역지대근로자연맹(Federacion Nacional de Trabajadores de Zona Francas ; FENATRAZONAS)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CIOSL(Confederacion Internacional de Organizaciones sindicales Libres)과 미주지역 ORIT 등 국제연맹에도 가입하여 있다.

특히 전국 54개 단위노조 7,500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 근로자연맹(FENATRAZONAS)은 '91년도 8월에 설립된 이래 보나오, 산페드로데 마코리스, 산티아고 등 3개 자유무역지대에 지점을 운영하는 등 연맹노조 중 조합원 규모로서는 설탕 노조,

부두노동자노조 등 전통적인 대규모노조와 대등한 수준에 있으며, 특히 미국의 UNIFE, AFL-CIO등과 베네수엘라의 FITTVCC-ORI(Federacion Internacional de Trabajadoras del Textil, Vestido, Cuero y Calzado) 등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2003년12월까지 극심한 환율변동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47%나 감소하자 전국노동자연합(Confederacion Nacional de Trabajadores Dominicanos ; CNTD)과 단위노동자연합(Confederacion de Trabajadores Unitarios ; CTU), 노동자총연합(Confederacion General de Trabajadores ; CGT), 자유노조연합(Confederacion Autonoma Sindical Clasista ; CASC) 등 4개 전국노조는 회합을 갖고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국가급여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급여인상률을 25% 수준으로 결정한 상태이다.

105. 사회보장제도

<현지인 사회보장>

연금제도는 은행, 대학 등 공공부문이나 월급여 RD\$ 3,000이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사회보장제가 임의 규정으로 시행되고 있다.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부담의무는 없으며,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고용주의 소득세 유치의무는 급여에 포함 지불하여 피고용주가 전액 납부하는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연금금액이 매우 미미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에서는 노사합의로 선택적으로 합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민 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법안은 재원부족으로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다가 통과되었으나, 시행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밖에 고용주에 대하여, 기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고 4개월분 급여액을 노동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현금예치 보다는 통상 보험 가입으로 대신하고, 매1년마다 이를 갱신하고 있다.

피고용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고용주는 48시간 이내에 인접한 병원에 재해상황에 관한 통보를 해야 하며 의료 및 보상 조치를 완수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재해노출업무 종사자 전원을 재해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경우 보험비용 일체는 고용주의 부담이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가 없으며, 1년 단기체류 허가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내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가 준용된다.

106. 현지 생활여건

<생필품조달>

대부분의 생필품이 미국, 브라질,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지만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생필품은 쉽게 구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크게 늘어난 대형 슈퍼에서는 일상적인 생필품을 큰 불편 없이 구할 수 있으며, 주택가에 있는 구멍가게인(콜마도)에서는 웬만한 생필품은 배달까지 가능하다.

<한국식품 조달여건>

배추, 무우, 쌀 등 많은 농산물의 현지 조달이 가능하나 고추장, 된장, 김, 미역, 오징어포 등은 한국으로부터 조달해야 한다. 현지 한국식품가게는 산토도밍고 시내에 한국가게 1-2곳, 중국슈퍼1곳에서 구할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싼 편이다. 소, 돼지고기 등 육류가격이나 과일 등은 한국보다 저렴하나 수산물도 다소 비싼 편이다.

<레저여건>

현지의 열대성 기후 및 문화시설의 부족으로 다양한 레저활동은 즐길 수 없으나, 골프와 수영 및 해양스포츠가 주말 레저로 선호되고 있다. 시내에 있는 5-6개소의 헬스클럽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에서도 스포츠레저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비는 월 US\$30-100정도면 가능하다. 한편 산토도밍고에서 2-4시간 떨어진 휴양지에 위치한 레저호텔에서는 패키지로 주말 또는 휴가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1박당 1인당 100불 내외가 소요된다.

<치안상태>

지난 '30-'61년간의 군부 독재탓인지 중미.카리브지역에서는 비교적 치안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최근 미국정부의 범죄인 본국추방 정책으로 '98년이후 약 6000여명이 강제 송환 당하여, 강도사건발생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접국인 아이티의 정정 및 경제불안으로 많은 불법입국자가 발생하면서 점차적으로 치안이 불안정해지는 추세에 있다.

<병원, 약국>

출산 또는 일반적 외과수술은 현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약품은 구입 가능하다.

<한국인에 대한 인식>

현지 말단조직에서 현지인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생활하는 중국인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FREE ZONE 공장의 책임자, 기술자로서 경제협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현지인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우호적인 편이다.

<한인회, 한국학교>

거주 한국인은 약 400명 내외이며 산토도밍고시를 비롯하여 전국에 산재한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투자진출 우리 기업의 공장 책임자 및 기술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주말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는 산토도밍고 시내의 본교와 산티아고, 라로마나 등 2개 지방도시에 분교를 운영하고 있다.

107.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이주 정착 가이드>

산토도밍고 시내에서 주택을 구하려면, 먼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냐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치안상태를 고려하여 중산층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월임차료 US\$700-2,000내외에서 임차가 가능하다.

저층아파트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건축된지 오래되어 임차료는 US\$1,000 내외이나, 발전기 설비가 없이 бат데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전이 오래되는 경우에는 냉방기나 냉장고의 사용이 중단되거나, 양수펌프의 가동이 중단되어 상수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8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는 대체로 최근에 건축되어 발전기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정전시에도 별다른 불편함이 없어서 중산층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월임차료는 US\$1,000-4,000대로 천차만별이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중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좋은 가격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

주택임차는 월세를 원칙으로 하며, 부대비용으로서는 보증금과 중개인수수료가 계약기간 1개년당 1개월분 월세가 각각 소요된다. 특히, 계약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후 임차료 자동인상 조항이 삽입되게 된다.

이주.정착자는 비자발급후 체류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체류허가는 처음 1년 만기 단기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2년 만기에 자동 갱신되는 장기체류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체류허가증을 취득하고 나면, 선관위에서 신분증(CEDULA)이 발급되며, 신분증은 운전면허 취득 등 현지 거주자의 필수 서류이다.

은행의 현지화 구좌는 자유롭게 개설되나, 미불구좌의 경우에는 정부의 외환관리 정책상 인출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 별도로 구좌를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행에 개설된 구좌로 발행하는 수표도 환전상이나 은행에서 자유롭게 환전이 가능하므로 금액이 큰 경우에는 만약의 인출동결 조치에 대비하여 제3국에 개설하는 것이 좋다.

산토도밍고 시내에서는 약 2주내에 전화개설이 가능하다. 전화선이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명의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신규 전화개설에 따른 비용은 없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핸드폰 전화의 경우에도 국내 전화서비스 사업자간의 경쟁으로 가입시 비용은 매우 저렴하나 이용요금은 일반전화의 5배정도로 비싸고 수신이용에도 요금이 부과되는 단점이 있다.

가구류 등의 비품은 대체로 판매용 재고를 비치하고 있지 않고, 주문제작에 의하기 때문에 대체로 납기가 2주-4주가 소요된다.

108. 자녀 교육여건

<자녀 교육 여건>

학교명	위치	전화	상세정보
Carol Morgan School	Mirador Sur	(809) 537-8080	시설이 우수하며 미국 대학진학시 학력을 인정하나, 수업료가 비싸고 정원 제한으로 인한 입학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강사진이 우수함
American School	Arroyo Hondo	(809) 567-6824	시설은 보통수준이며 미국 대학진학시 학력을 인정하나, 수업료가 비싸고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통학이 불편하다.

- 기타 현지 학교이나 Bilingual (영어, 스페인어)학교인 New Horizons에도 한국 학생이 많이 다니고 있음.

109. 진출기업/진출업체 디렉토리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진출기업명(한글) “ (영문)	가미스포츠 Garmy Sports, Inc.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대표자	Zona Franca de Moca, Rep. Dom (1809) 578-5710/1410 (1809) 578-5810 garmy@hanmail.net 김종직/Jong Jik Kim / 사장
업종 취급품목 진출년도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합작선 및 합작비율	제조 및 무역업 스포츠공 1989년 3:120 US\$ 270천 US\$ 3백만(04년) N/A
국내 모기업 주소 전화 팩스 대표자명	가미산업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신코아 오피스텔 609호 (02) 2202-5367/5369 (02) 424-0349 김종직

진출기업명(한글) “ (영문)	로드웨이 엔터프라이즈 Loadway Enterprises, INC.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대표자	Zona Franca Industrial de Bonao, Rep.Dom. (1809) 525-4525/4535 (1809) 525-4666 loadway@codetel.net.do 서성호/ Sung Ho Suh/ 공장장
업종 취급품목 진출년도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합작선 및 합작비율	제조업 Boy's & Men's Woven shirts 1988년 6 : 760 US\$ 200만불 US\$ 1,000만불 -

진출기업명(한글) “ (영문)	리한상사 LeeHan S.A.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대표자	Bella Vista, Santo Domingo, Rep.Dom. (1809) 534-8000 (1809) 534-8666 l.han@codetel.net.do 이원광/ Won kwang Lee/ 대표이사 사장
업종 취급품목 진출년도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합작선 및 합작비율	서비스업 수출입 통관대행 1995년 1 : 8 US\$ 50천 US\$ 200천 -

진출기업명(한글) “ (영문)	(주)미래와 사람 The Will-bes Dominicana inc.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대표자	Zona Franca de Barahona, Rep. Dom. (1809) 524-2829/2830/4411 (1809) 524-3688 willbesman@codetel.net.do 박택규/ Taek Kyu Park / 본부장
업종 취급품목 진출년도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합작선 및 합작비율	제조업 섬유(원단, 자수 및 니트웨어 봉제) 1986년 26:2500 US\$ 12,000천 US\$ 25,000천(04년) 한국측 지분

국내 모기업 주소 전화 팩스 대표자명	(주)미래와 사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14, 네트워크 빌딩 9층/10층 (02) 529-5700 (02) 552-5502 전병현
----------------------------------	--

진출기업명(한글) “ (영문)	발보아 케이 Balboa K. INC.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대표자	Zona Franca Industrial La Romana, Rep.Dom. (1809) 556-4931 (1809) 556-4376 balboa.k@codetel.net.do 지석봉 / Suk Bong, Ji / 지사장
업종 취급품목 진출년도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합작선 및 합작비율	제조업 신사복 상의 1983년 6:550 US\$ 350천 US\$ 18백만 -
특기사항	2005년 7월말 현지 철수 예정

진출기업명(한글) “ (영문)	비엔비 B & B S.A.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대표자	Zona Franca de Villa Altagracia. R.D. (1809) 559-4511 (1809) 559-4512 cisaventas@hotmail.com 배종태/ Jong T. Bae / 대표이사
업종 취급품목 진출년도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합작선 및 합작비율	제조업 플라스틱류 1997년 1 : 54 US\$ 1,600천 US\$ 3,000천(04년) -

진출기업명(한글) “ (영문)	아사모 Asamo Corp.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대표자	Zona Franca San Francisco, Rep.Dom. (1809) 588-8353 (1809) 588-6880 asamodr@hotmail.com 김동명 / Dong Myung Kim / 대표
업종 취급품목 진출년도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합작선 및 합작비율	제조업 면바지류 1999년 4 : 700 US\$ 2,500천 US\$ 11,000천(04년) -
진출기업명(한글) “ (영문)	에스엠씨 SMC,S.A.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대표자	Zona Franca Ind. La Vega, Rep.Dom. (1809) 242-6565/6566 (1809) 242-6567 smc@codetel.net.do 장성목 /Sung Mok Chang / Director
업종 취급품목 진출년도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합작선 및 합작비율	제조업 의류 1987년 1 : 300 US\$ 560천 US\$ 1,200천(04년) -
진출기업명(한글) “ (영문)	영스뉴욕 Young's N.Y.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대표자	Zona Franca de Moca, Rep.Dom. (1809) 578-4521/4522 (1809) 578-4523 ypungs.newyork@codetel.net.do 이남규/ Danny Rhee
업종 취급품목 진출년도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합작선 및 합작비율	제조업 스포츠의류 1990 4 : 280 US\$ 1,000천 US\$ 1,500천(04년) -

진출기업명(한글) “ (영문)	제이 앤드 제이 J & J C.por. A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대표자	Zona Franca de Nigua, San Cristobal, Rep. Dom. (1809) 542-1517 (1809) 542-1328 jyj@codetel.net.do 장인탁 / In Tak Chang / 사장
업종 취급품목 진출년도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합작선 및 합작비율	제조업 포장자재(박스) 1991년 5: 80 US\$ 50천 US\$ 6,000천(04년) -

진출기업명(한글) “ (영문)	아르코 이리스 도미니카나 Arcoiris Dominicana C.por.A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대표자	Zona Franca Industrial, San Pedro de Macoris, Rep. (1809) 526-6666 (1809) 526-6671 arcoiris_som@hotmail.com 이인빈 / In Bin Lee / 대표이사
업종 취급품목 진출년도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합작선 및 합작비율	제조업 및 무역업 재봉사 제조, 공업용 바늘 및 섬유자재 수입 1999년 1: 20 US\$ 1,000천 US\$ 1,800천(04년) -

진출기업명(한글) “ (영문)	씨 앤 케이 C & K, C.por.A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대표자	Calle 8, #60, Santo Domingo, Rep.Dom. (1809) 766-1212/1213 (1809) 766-0601 ck.cxa@codetel.net.do 김평구 / Pyung Ku Kim / 사장
업종 취급품목 진출년도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합작선 및 합작비율	제조업 완구인형, 홍보용품(가방, 열쇠고리) 1984년 1: 60 US\$ 50천 US\$ 800천(04년) -

진출기업명(한글) “ (영문)	케이 비 에이취 무역 (주) K N H Internacional, C.por.A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대표자	Jardines del Norte, Santo Domingo, Rep.Dom. (1809) 565-2725/ 926-5024 (1809) 926-5024 kbh_intl@hotmail.com 조봉기 / KI BONG CHO / 사장
업종 취급품목 진출년도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합작선 및 합작비율	무역업 신중고 오토바이, 자동차 및 관련 부품 1992년 1: 10 US\$ 1,000천 US\$ 2,500천(04년) -

110. 주요경제지표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국내총생산(US\$억)	198.8	216.8	217.1	166.3	186.5
1인당 GDP(US\$)	1,909	2,578	2,536	1,907	2,102
실질성장률(%)	7.8	1.9	4.1	-1.3	1.95
물가상승률(%)	9.02	9.4	10.5	42.7	28.7
수출(US\$백만)	5,737	5,276	5,183	5,471	5,750
수입(")	9,478	8,779	8,882	5,096	5,370
외환보유고(US\$억)	8.2	9.4	9.6	0.95	6.3
총외채(US\$억)	36.7	38.0	44.0	58.0	70.0
연말환율(RD\$/1US\$)	16.53	16.97	21.52	35.0	30.0
외국인투자(US\$억)	9.5	10.8	9.2	10.1	6.5

(자료원 :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Banco Central, 2005년 5월 자료)

111. 대외거래지표

<대외거래지표>

(단위 : US\$ 백만)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무역수지	-3,741	-3,503	-3,699	375	380
수 출	5,737	5,276	5,183	5,471	5,750
수 입	9,478	8,779	8,882	5,096	5,370
외환보유고	820	940	960	95	630

(자료원 : 중앙은행 Banco Central, 2005년 5월)

112.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

<수출 - 일반상품>

(단위 : US\$백만)

	2000	2001	2002	2003	2004
미국	2,489	3,854	3,654	3,356	2,985
벨기에-룩셈부르크	71.2	74.9	73.4	26.9	10.4
푸에르토리코	931	763	765	115	78.4
하이티	67.9	72.1	88.1	112	64.7
캐나다	16.5	296	68.6	32.7	54.2
한국	18.2	29.8	102	32.7	54.2
일본	8.5	26.4	33.6	13.0	35.3
네덜란드	8.3	94.6	76.6	34.2	87.9

(자료원 : 도미니카 수출투자센터 CEI-RD, 2005년 5월)

113.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 통계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 통계>

(수출)

	2000	2001	2002	2003	2004
사탕수수	70.9	64.6	73.9	97.0	93.5
커피	20.7	5.7	3.6	16.5	5.8
담배	24.2	22.6	18.3	19.9	43.1
카카오	21.7	38.0	54.9	77.0	59.4
페로니켈	237.4	145.2	156.9	238.7	390.0
자유무역지대	4,331	4,665	4,491	4,398	4,416
계	5,737	5,276	5,183	5,471	5,750

(자료원 : 중앙은행, 2005년 5월 통계)

(수입)

	2000	2001	2002	2003	2004
소비재	3,187	2,875	3,084	2,409	2,550
- 내구성 소비재	631.8	576.0	764.4	315.3	375.4
- 식품	260.1	258.6	288.4	240.5	214.9
원자재	2,031	1,792	1,863	1,772	1,950
- 석유	408.9	307.4	349.4	438.9	579.6
자본재	1,197	1,285	1,289	915	870
- 수송기계	219.2	184.3	237.8	142.0	78.1
계	9,478	8,779	8,882	5,096	5,370

(자료원 : 중앙은행, 2005년 5월 통계)

114.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주요 수출입 상품

<주요 수출품목>

(단위 : 천불, %)

순 위	품목 코드	품목명	2004		2005(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73,867	-9.4	41,158	68.4
1	74	수송기계	14,986	-28.4	13,662	763.3
2	43	직물	23,078	-15.4	7,674	-16.2
3	21	석유화학제품	2,878	-40.6	3,601	298.2
4	72	산업기계	2,098	32.6	1,677	99.6
5	82	가정용전자제품	1,368	-23.5	1,797	227.5
6	44	섬유제품	6,004	0.9	1,624	-41.0
7	42	섬유사	2,558	29.4	1,410	83.6
8	31	플라스틱제품	3,319	78.9	1,205	32.1
9	32	고무제품	2,891	-4.5	1,103	33.8
10	22	정밀화학제품	2,166	-5.7	1,091	-14.7
11	83	전자부품	3,531	103.8	897	-39.7
12	61	철강제품	581	-26.7	531	96.2
13	59	기타 생활용품	852	82.9	735	357.2
14	52	가구	1,048	25.1	495	32.6
15	64	주화, 뭇, 컨테이너	799	51.3	406	52.2
16	84	중전기기	743	14.2	376	46.8
17	29	기타화학공업제품	711	9.0	299	-3.9
18	25	제지원료, 종이제품	1,079	-13.1	293	-51.0
19	81	산업용전자제품	191	-10.4	231	740.0
20	91	인쇄물	16	-90.6	143	28,398.2

(자료원 : KOTIS 5월 통계, MTI 2단위)

<주요 수입품목>

(단위 : 천불, %)

순 위	품목 코드	품목명	2004		2005(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121,849	69.6	35,054	-27.7
1	61	철강제품	117,724	72.4	33,663	-28.5
2	73	정밀기계	2,003	13.0	871	30.8
3	42	섬유사	11	119.8	210	1,895.9
4	44	섬유제품	769	64.5	94	-63.0
5	01	농산물	300	-5.2	96	-12.9
6	62	비철금속제품	738	519.9	86	-69.9
7	43	직물	88	-86.0	14	542.1
8	83	전자부품	36	-46.7	2	-84.9
9	81	산업용전자제품	13	-87.0	8	-31.0
10	91	인쇄물	2	-39.7	1	729.8

11	25	제지원료. 종이제품	1	116.3	0	-
12	51	신변잡화	42	150.7	0	-61.7

(자료원 : KOTIS 5월 통계, MTI 2단위)

115.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품목별 외국인투자유치 통계

<도미니카공화국의 품목별 외국인투자유치 누적통계>

(단위 : US\$백만)

연도	광물	통신	에너지	상업 제조업	수출 자유무역지대	금융	광물	총계
2000	23.8	152.1	63.8	105.1	70.1	43.2	87.8	952.9
2001	23.8	159.2	65.1	113.1	19.7	56.6	62.1	1,079.1
2002	22.9	168.9	143.4	194.2	45.0	27.3	20.0	916.8
2003	24.7	175.7	174.8	143.4	82.5	82.2	63.5	1,005.3
2004	101.9	185.0	178.2	51.9	14.5	61.6	101.9	649.7

(자료원 : 도미니카 수출진흥청 CEI-RD, 2005년 5월 통계)

116.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국별 외국인투자유치 통계

<도미니카 공화국 국별 외국인투자유치 통계>

(단위 : US\$백만)

투 자 국 가	2002	2003	2004
미 국	434.2	433.1	301.1
스 페 인	25.7	140.2	2.4
캐 나 다	18.4	69.8	10.9
프 랑 스	109.6	66.0	-
영 국	0.2	35.0	-
콜 롬 비 아	23.0	34.3	15.0
이 태 리	5.0	17.5	34.6
바 하 마	20.3	34.3	-
칠 레	-	3.8	103.9
스 위 스	4.0	2.4	-
네 덜 란 드	119.4	-	-
독 일	56.3	-	-
케이만 제도	13.7	-	-
멕시코	-	-	54.3
브 라 질	-	-	40.0
총 계	916.8	1,005.3	649.7

(자료원 : 도미니카 수출투자진흥센터 CEI-RD, 2005년 5월 통계)

117.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연도별 외국인투자유치 통계

<도미니카공화국의 연도별 외국인투자유치 통계>

(단위 : US\$ 백만)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투자유치액	420.6	699.8	1,337.8	952.9	1,079.1	916.8	1,005.3	649.7

(자료원 : 도미니카 수출투자진흥센터 CEI-RD, 2005년 5월 통계)

* 2005년도의 경우는 6월 현재 20억불 규모로 50개 프로젝트가 진행중

118. 물가금융지표

<물가금융지표>

	2001	2002	2003	2004
소비자물가지수(1999=100)	120.34	126.22	168.05	189.12
도매물가지수(기준연도)	-	-	-	-
(소비자)물가상승률(%)	9.4	10.5	42.7	28.7
통화량(RD\$백만)	34,488	36,997	39,112	-
통화증가율(%)	8.1	9.3	10.2	-
연평균환율(RD\$/1US\$)	17.08	21.52	36.45	33.10
(대출)금리(%)	19.48	20.82	36.23	30.33

(자료원 :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Banco Central, 2005년 3월 통계)

119. 노동통계

<노동통계>

지 표	2000	2001	2002	2003	2004
고용인구 (1,000명/12세이상)	358.03	360.9	366.7	382.1	-
실업율(%)	13.9	14.0	15.4	17.0	18.0
주당평균근로시간	45	45	45	45	45
평균임금(RD\$)	1,704.99	1,756.87	2,300.83	2,401.85	2,306.89
임금상승률(%)	7.0	5.4	5.5	8.8	15.0

(자료원 : 도미니카공화국 노동부, 중앙은행, 2005년 3월 통계)

120. 지방자치구역동향/유관기관

<해외투자유치기관>

기관명 (2003년도 7월 수출진흥 및 투자 업무를 합쳐 CEI-RD로 통합기구 탄생)
Centro de Expotracion y Inversion, Republica Dominicana(CEI-RD)

대표

Mr. Eddy Martinez Manzueta(장관급, 현 Leonel Fernandez 대통령의 측근)

주 소

Av. 27 de Febrero Esq. Av. Luperon, Santo Domingo, Dominican Republic

전 화

1809-530-5505

팩 스

1809-530-8208

Web-site

www.dr-opin.com(투자업무는 웹사이트 이전과 동일)

E-mail

opi.rd@codetel.net.do(투자업무는 이메일도 이전과 동일)

기관개요

도미니카 수출투자진흥청-외국인 투자관련 제반 업무 및 수출진흥 업무